

국역 國譯
菊齋遺集
국재유집

나주오씨금양군종중 羅州吳氏錦陽君宗中



국재 금양군 정간공 휘 겸 영정 菊齋 錦陽君 貞簡公 諱謙 影幀



광산사廣山祠

- ◆국재 오겸吳謙 선생 초상을 모신 사당으로, 유림에서 유사와 제관을 맡아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유덕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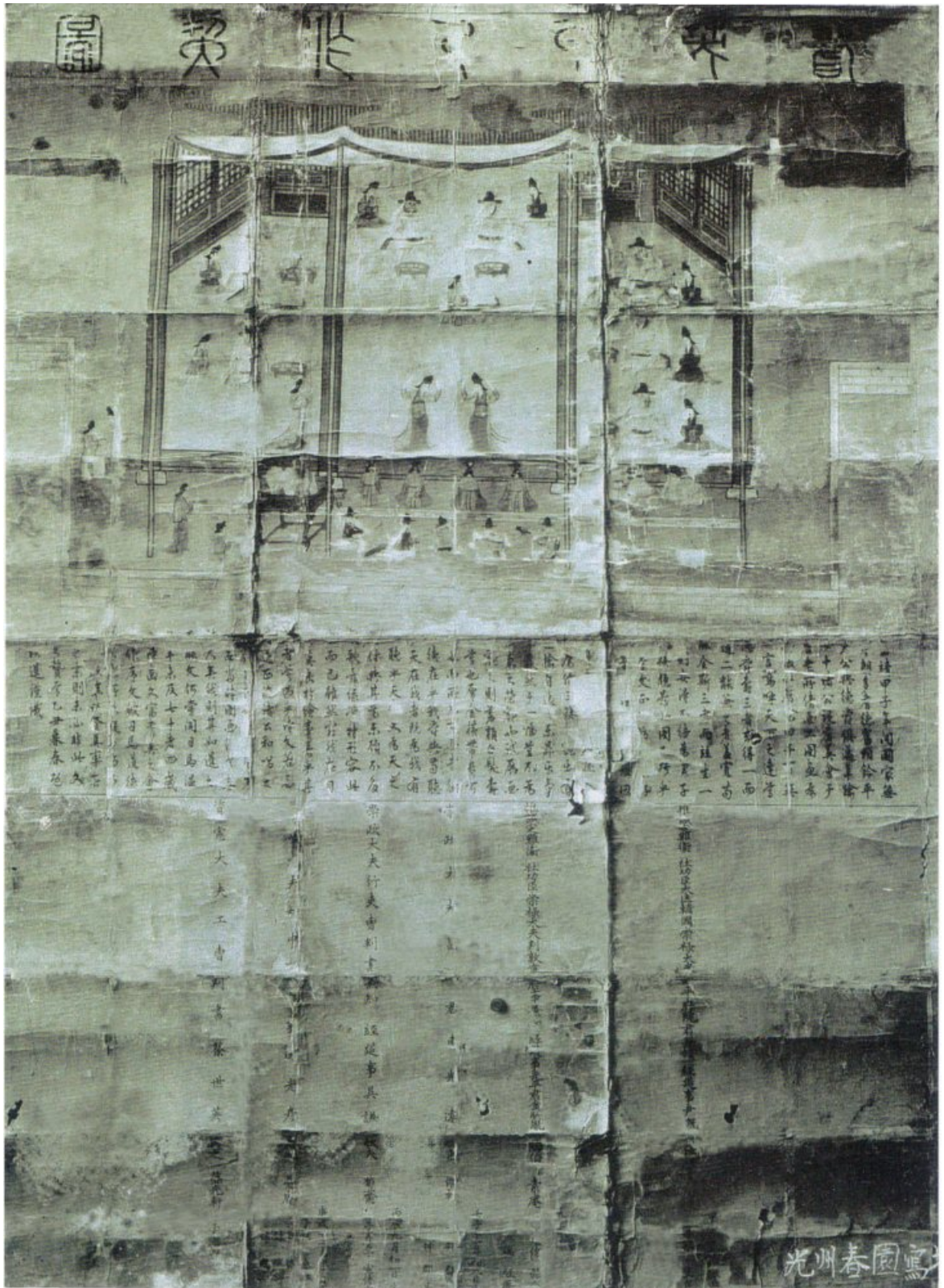
◆광산사 전경(상)과 영정을 봉안한 사우祠宇(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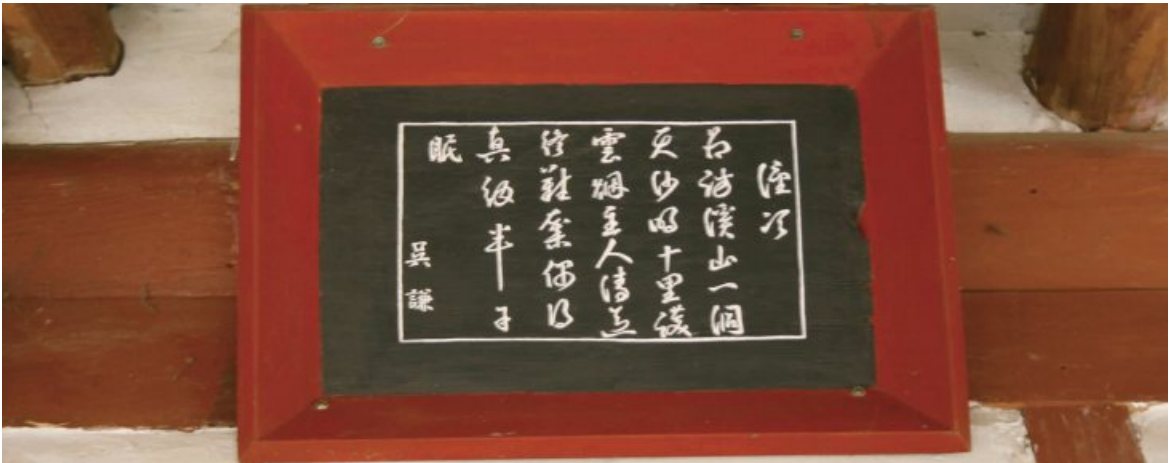
- ◆국재 선생 초상화를 봉안한 사우 내부 좌우 벽면에 그려진 목단, 포도, 소나무, 자귀나무, 매화
- ◆목단은 부귀와 명예, 포도는 다산, 소나무는 장수, 자귀나무는 부부의 금실, 매화는 선비의 고매한 품격을 상징한다



◆ 사우 외부 벽 정면에 그려진 6점의 벽화(맨아래 벽화의 상단 편액은 광산유허영각상량문이다)



◆국재 오겸 선생 기로도촬老圖(1564년)



- ◆호가정에 걸린 「유사의 호가정 시에 차운하다」 한시 편액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분토길 195(본덕동)



- ◆풍영정에 걸린 「풍영정에서 짓다」 한시 편액(점선 안)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21(신창동)



- ◆관수정에 걸린 「송흥의 관수정 시에 차운하다」 한시 편액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천방길 5(내계리)



◆국재 금양군 오겸 선조님 및 배위의 묘



丹白秋乃臨
萬載輝煌與
夫人李氏大
夫人諱石大
慈母氏事滿
曾公北加祿
神英翁 府
氏氏中紅左
國風曾
之夢時
風春基





◆1570년 퇴직 후 낙향하여 사시던 당시 나주 삼가리 광산촌(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마을 입구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하마비. 이 마을에 재상을 지낸 국가 원로가 살고 있으므로 말을 타고 이 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표지석. 현재는 광산사 입구 도로변에 옮겨져 있다.



◆국재 오겸 선생 수결手決(상)과 사인私印(하)

국역 國譯
菊齋遺集
국재유집

나주오씨금양군종중
羅州吳氏錦陽君宗中

『국역 국재유집國譯菊齋遺集』을 펴내면서

국재菊齋 오겸吳謙 선조님은 1496년(연산군 2년) 나원군羅原君 오세훈吳世勳 선조님의 아들로 서울 호현방(현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서 태어나 1571년(선조 4년) 우의정으로 관직을 마칠 때까지 조선 중기의 중종·인종·명종·선조 등 네 임금을 모셨습니다.

자는 경부敬夫요 호는 국재 또는 지족암知足庵이며, 금양군錦陽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정간공貞簡입니다. 우리 나주오씨 가문에서는 통상 금양군으로 부르며, 조선시대에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은 현조님이십니다.

금양군 선조님은 1522년(중종 17년) 진사시에 급제하고, 1532년(중종 27년) 문과에 등과하여 한평생 관직에 몸담아 75세에 재상宰相으로 퇴직한 후 가문의 세거지인 나주 삼가리(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에 낙향할 때까지 50여 년을 국정에 헌신하셨습니다.

주요 관직 중 외직으로는 남원·담양 부사, 광주목사, 전주부윤,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셨고, 특히 남원부사 재직 시에는 지방 수령 중 치적이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선정을 베푼 목민관이셨습니다. 중앙 내직으로는 사헌부 대사헌, 예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우찬성·좌찬성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국재 금양군 오겸 선조님은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치적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행적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57년(명종 12년) 사헌부 대사헌 때 올린 상소문을 보면, “임금께서 하고자 하는 바가 열이면 열이 다 시행되고, 신하들이 중지시키하고자 하는 일이 열이면 열이 다 거절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여러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후 “전하께서는 언로言路를 열어 정도正道를 높여서 바른 정치를 하소서.”라는 직언에, 명종 임금은 “짐이 부덕하여 잘못된 정치가 자못 많았다. 반성하여 봄에 두렵기 그지없다. 이 상소문의 내용이 곧은 말이어서 매우 기쁘다. 마땅히 유의하겠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금양군 선조님의 경륜과 인품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잠곡潛谷 김육金堉 선생이 펴낸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도 금양군 선조님을 조선 중기의 명신 중 한 분으로 선정하여 업적을 수록하였음은 위와 같은 사적史蹟에 근거를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재 오겸 선조님은 조선시대 전형적인 사대부士大夫입니다. 당시 사대부는 많은 학식과 높은 인품을 갖추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층 인사로서 시서詩書에 능한 문인이며, 역사와 철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입니다. 따라서 시부詩賦와 저술 등 많은 유고가 전해졌어야 함에도 여러 번의 병화를 겪은 나머지 대부분 유실된 채 선조님께서 서거하신 지 376년이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1958년에 이르러서야 아주 적은 분량의 유고遺稿를 수집하여 『국재유집』을 발간하게 되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선조님께서 80세 이후 83세까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과 가문을 위하여 근근이 작성하신 유서遺書가 사라지지 않고 이 유집에 수록된 것은 후손들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는 이 『국재유집』을 처음 대하는 순간 금양군 선조님을 뵈는 것처럼 떨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대들이 독해하기에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재유집』을 한글로 번역하고, 여기에 그 후 수집한 자료와 사적 등을 추가 보완하고, 편집 체제와 구성 등을 새롭게 하여 『국역 국재유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홀륭하신 선조님의 송조崇祖·겸양謙讓·검약儉約의 유훈을 받들고 사적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의무요 도리임에도, 그간 금양군 선조님께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나마 그 짐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소나마 도리를 이행한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훗날 어진 후손들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더 많은 자료를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국재유집』으로 이어가면서 빛을 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국재유집』이 한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번역을 맡아준 노강 박래호 님, 축간사의 옥고를 주신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시장님과 오근성 나주오씨대중회 회장님, 자료 수집에서 편집·교정까지 한 팀을 이루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중회 오형근 총무부회장님, 오종문 홍보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 아침에

나주오씨 금양군종중 대표 오동근 삼가 쓰다

『국역 국재유집』 발간을 축하하며

강운태

__전 광주광역시장,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16대·18대국회의원

역사는 오늘의 삶에 배어 있는 지혜의 보고이자 미래의 나침반이다. 특히 역사 기록물에 묘사되어 있는 위대한 선현들의 행적을 읽다 보면 저절로 신바람이 나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나주오씨는 명가名家이다. 문무의 전통을 이어 온 많은 애국 충절과 효행 및 정절의 미담佳話들이 엮여져 내려오고 있는 나주오씨는 고려 때부터 나주를 근거지로 살아오면서 조선조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해 적개공신에 녹훈된 나성군羅城君 오자치吳自治 등 4대 봉군을 받은 가문이다. 그 중 한 분이 군君으로 봉해진 조선 중기의 문신 오겸吳謙이다. 자는 경부敬夫, 호는 지족암知足庵·국재菊齋로 금양군錦陽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1522년(중종 1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532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중종·인종·명종·선조의 네 임금을 모시는 동안 그 벼슬이 우의정右議政에 이른 재상이다.

공公은 평생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당대의 석학인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율곡 이이, 고봉 기대승 등의 선배로서, 조정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특별한 교우 관계를 유지한 분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시부詩賦 등 많은 유고遺稿가 전해졌어야

함에도 대부분 유실된 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1958년에 이르러서야 적은 분량의 유고를 수집하여 『국재유집菊齋遺集』으로 출간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자는 통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되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의 양식이 되고 정신의 뼈가 되는 글들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과 같다. 하여 그 안에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많은 금언들이 들어 있다 해도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퇴색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고인古人과 벗을 삼는다”라는 말이 있다. 선인들의 사상과 삶의 철학은 옛날의 것을 빌려오지만, 그 뜻과 열이 오늘날에도 소통되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서 꽃이 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 같음이다.

아아!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유집이 유고를 보충하고, 자료를 더해 한글로 번역되어 세상에 빛을 본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글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국역 국재유집』은 선비인 공의 사상과 정치철학은 늘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에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마음 속에 형상을 감추고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스스로를 경계 삼는 법을 일깨운다.

정신에 새겨지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은 천 년 뒤에도 더욱 새로워짐이니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 진실로 명리命理가 간직된 깊은 숲이며, 사명使命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능히 자신을 다잡을 만하고 즐거워할 만하다.

2018년 새해 아침에 삼가 축사를 쓴다

후손들이 스승으로 삼아야 할 정신적 유산

오근성_나주오씨대종회 회장

세상 사람들은 선조의 아름다운 행실과 업적을 기리고 높이 찬양하여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후손이라면 선조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평소 공경심과 흠모의 정을 갖고 있는 국재공菊齋公 유고집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에 더하여 새로 찾아낸 시문詩文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적史蹟 등을 더해 『국역 국재유집』으로 새롭게 편찬編纂해 한글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어찌 흥분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간 세상의 흥망이 여러 번 바뀌고, 낡은 종이가 전쟁의 화마와 쑤미 스는 세월 속에서 당시의 문적文籍이 흩어지고 사라진 아쉬움이야 큰 산 골처럼 깊지만, 그나마 일부 유고遺稿가 오늘날까지 남아 전해질 수 있음은 후손들의 크나큰 복입니다.

국재공은 조선조 중엽의 명신으로 과거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외직인 전주부윤, 광주목사, 경상도관찰사 등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시고, 이조판서·호조판서·병조판서·형조판서·예조판서 직을 역임하셨으며, 의정부 우찬성과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쟁과 사화로 어지러웠던 시대에 공의 나이 75세가 되던 해까지 45년 동안 나라 일을 도와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대제학 율곡栗谷 이이李珣 선생이 찬한 묘지명, 영의

정 김재로金在魯님의 시장諡狀에 공의 이력과 삶의 단면을 소상히 잘 기록하고 있듯이, 높은 학식과 겸손한 인품, 청렴결백하고 명쾌한 판단력과 검소한 생활로 조야로부터 존경받은 삶을 일관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께서는 당시의 석학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청백리 지지당知止堂 송흠宋欽 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면서 명시를 남겼고, 나주오씨 가문의 원조遠祖에 관한 유기遺記, 도선산都先山 관리에 관한 유서遺書, 그리고 나주오씨 선계先系 정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약식가승略式家乘 등은 후손들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기禮記』에 “군자가 선조의 아름다운 행실을 분명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선행善行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면 현명하지 못한 것이요, 알고도 후세에 전하지 않는 것은 어질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역 국재유집』 편찬 사업을 결단하고 추진하신 오동근 금양군종중 대표님을 비롯하여 오기선 대종회 부회장님, 오종만 종사연구위원장님, 오성수 부회장님과 자손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 그리고 축하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국역 국재유집』을 스승으로 삼고 본받아야 합니다. 국재공의 높은 품격風格을 마음으로 구해 나태해진 정신과 무더진 감수성을 일깨우고, 늘 스스로를 지켜 허물을 적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흠모하는 국재공의 문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몸가짐을 가다듬고 축사의 권점圈點을 짚습니다.

2018년 1월 길일吉日에

『국재유집』번역을 마치면서

박래호_성균관부관장成均館副館長

아! 이 국역본 일책一冊은 곧 숭정대부 우의정으로 봉군은 금양군, 시호는 정간공, 아호는 국재이신 오 정승의 유집遺集이다.

곰곰 생각을 해보니 문학은 옛날과 지금에 다름이 있으며, 선비들의 익힌 것은 모름지기 그 시대의 숭상한 것에 따른다.

그러나 그가 바라던 바 기질의 청명하고 혼탁함과 같고 닳은 학문의 정밀하고 거칠거칠한 것에 따라 혹자는 자신을 닳고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서 멈추기도 하고, 혹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지구촌을 평화롭게 하는 지위에 이르기도 하니 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름이 없는 하늘의 이치요 인간이 겪어온 일이다.

지난 옛날 호남 땅 나주 고을 삼도면은 나주오씨가 대대로 거주한 지역인데 중종·인종·명종·선조 네 임금 년간에 하늘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구촌을 평화롭게 할 큰 선비를 내려 보냈으니 곧 오 정승 이름은 겹, 아호는 국재라는 선생이 이 분이다.

못난 내가 정승공의 선외先外 후손으로 사백오십 년이 가까운 뒷세상에 태어나 항상 정승공의 정승공다운 인품 됄을 알고 자 함이 간절하였건만 들을 수가 없었다.

이 해 초여름에 정승공의 후손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기선, 종만, 그 종중 대표 동근 등이 그 종친 낙균 군과 더불어 황룡강 위 기양정사까지 못난 나를 찾아와 책 한 권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기를, 국역國譯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필수적인 요구라며

번역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책은 못난 내가 한 번 보기를 바라던 『국재유집菊齋遺集』이었기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받아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하고 말씀드리기를, 정승공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못난 나의 소망이었으니 이는 큰 다행이며 좋은 기회라고 말씀할 만합니다.

그러나 국역이란 못난 나의 천박한 식견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며 완고히 사양하고 호응하지 않았는데, 청탁의 말씀이 더욱 간곡하기에 매우 거절하기 어려워 펼쳐 열람하였다.

이 날부터 하던 일을 멈추고 읽으며 연구하고 사전도 참고하며 대가大家들에게 질문도 하여 해석을 하는데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괴로운 더위도 모두 잊었으며 초가을에 이르러 번역을 끝냈다.

그 뒤 어느 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종만 님께서 유집 간행 작업이 끝이 보인다고 여러 종친들의 뜻에 따라 번역자인 나에게 국역본에 올릴 글을 요청하였다.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서술하여 가로되 이 유집의 편집은 세 권으로 구분을 하였고 합하여 한 책으로 되었으며, 초간본은 광복光復 후 14년 무술戊戌 1958년에 발간되었으니 이제 60년이란 오랜 세월이 되었다.

통정대부通政大夫 민광식 님이 쓴 서문序文에 이르기를, 상공相公의 문장은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듯하며 웅장하면서도 넘실거리는 듯하다고 하였으니 못난 나로써 입을 놀린다는 것은 불가不可하며, 다만 두세 번 읽어 본즉 특이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그 유서遺書 상上에서는 선산 별송 수호를 위하여 약속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유서遺書 하下에서는 불사佛事와 무

사(祀)를 하지 말 것이며, 존장(尊丈)을 받드는 일에 있어 감히 지역에서 교만하며 쉽게 깔보지 않을 것이며, 모두에게 연치가 많은 분들은 존경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록 연령이 한 두 살만 더 많더라도 모두에게 사양을 하고 감히 먼저 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비록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가는 길을 양보하고 좌석을 양보하여 아래 자리에 앉는 것을 꺼려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이 될 것이다.

부록 유사(遺事)편 중간에 문회연(文會宴)의 기록이 있는데 요약하여 말씀하자면, 오늘날 기군(奇君)(대승)과 이군(李君)(후백) 두 사람을 초청한 것은 한바탕 한가로이 대화하고 정담을 나누며 소박하게 술잔을 나누는 자리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니 두 사람은 양보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두세 가지 안전은 모두가 선조를 사모하고 어른을 높이며 선비를 예우하는 의도(義道)에서 나온 것이니 상공(相公)의 상공(相公)다운 정신을 능히 알겠다.

옛날 한창려(韓昌黎)께서 이른바 문자(文字)란 도학(道學)을 담은 그릇이라 하였으니, 상공(相公)의 유집다운 글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 상공(相公)의 유집을 편성한 양이 비록 적다고 말하겠지만, 뿔뿔한 윤리(倫理)의 도학과 인성교육이 담겨 있으니 참으로 수(隋)나라 주옥이요 곤륜산 주옥이라고 할 만하여 족히 풍속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있으리라는 것에 뉘가 감히 이의(異議)를 제기할 것인가.

나는 못난 사람이지만 느낀 바 적지 않아 위와 같이 써서 청문(請文)하신 분의 성의(誠意)에 외롭게 하지 않았다.

정유(丁酉) 2017년 11월에

국역 국재유집 · 차례

발간사	014 『국역 국재유집國譯菊齋遺集』을 펴내면서_ 오동근
축간사	018 『국역 국재유집』 발간을 축하하며_ 강운태
축간사	020 후손들이 스승으로 삼아야 할 정신적 유산_ 오근성
번역을 마치면서	022 『국재유집』 번역을 마치면서_ 박래호

국재유집 서문(1957년) 030 국재 선생 유집遺集 서문_ 민광식

제1장

한시漢詩

1. 고시古詩

- 036 송순의 면앙정 시에 차운次韻하다
- 038 송순의 면앙정 원운原韻

2. 오언단율五言短律

- 039 영장사에게 시를 지어 주다
- 041 영장사에게 지어 준 시에 차운하다 <면앙정 송순>

3. 칠언단율七言短律

- 043 벼슬을 그만 두고 귀향길 진원현에서
- 044 위 시詩에 덧붙여 차운하다 <재신 이순형>
- 044 삼가 덧붙여 차운하다 <종손 희길>
- 045 안분당에서 짓다
- 046 유사(劉師)의 호가정 시에 차운하다
- 048 문충공의 청림 옛터에서 읊다

4. 오언사율五言四律

- 049 송재 나세찬을 애도하며
- 050 양산보의 소쇄원 시에 차운하다

5. 칠언사율七言四律

- 052 풍영정에서 짓다
- 054 송흙의 관수정 시에 차운하다
- 056 송흙의 관수정 원운

제2장 유서遺書

제1절 유서遺書·상上

- 058 1. 나주오씨 가문의 원조遠祖에 관한 유기遺記
- 060 2. 도선산都先山 관리에 관한 유서遺書
- 069 3. 약식가승略式家乘

제2절 유서遺書·중中

- 073 1. 가문의 원조遠祖에 관한 추록追錄
- 075 2. 나성군羅城君 선조님의 이시애李施愛 반란 평정기

제3절 유서遺書·하下

- 077 1. 본인 장례에 관한 유서
- 083 2. 불사佛事를 하지 마라
- 084 3. 무당을 불러와 제사 등을 하지 마라
- 085 4. 풍수지리설에 따라 묘지를 선택하지 마라
- 086 5. 나라에 시호諡號를 신청하거나 묘비를 세우지 마라
- 087 6. 제례祭禮에 관한 유기
- 091 7. 제사를 모시는 몇몇한 의식
- 097 8. 아들과 조카들에게 남긴 훈계訓戒

제3장 부록附錄

제1절 유사遺事

- 100 1. 종손 도암 희길 소기從孫韜庵希吉所記
- 104 2. 문회연文會宴
- 107 3. 금양군 부인 안씨安氏를 애도하는 기고봉 만장奇高峯挽章
- 110 4. 금양군 부인 안씨를 애도하는 김하서 만장
挽錦陽君吳謙夫人安氏〈金河西〉
- 111 5.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주고받은 시詩
- 111 •목사 오겸의 시에 차운하다
- 113 •목사 오겸의 「단선가」에 차운하다
- 114 •기고봉이 소동파蘇東坡의 시운에 따라 지어 보내온 시
- 117 6. 기로소耆老所
- 122 7. 모친 신씨 봉양母親申氏奉養 등
- 124 8. 좌찬성左贊成 사직서
- 126 9. 사직 관련 참고사항

제2절 묘지명墓誌銘·시장諡狀·광산사 정향축문

- 129 1. 우의정 금양군 휘 겸 묘지명右議政 錦陽君 諱 謙 墓誌銘
- 139 2. 우의정 정간공 휘 겸 시장右議政 貞簡公 諱 謙 諡狀
- 150 3. 광산사廣山祠 정향축문

제3절 관보官譜

- 151 승정대부 우의정 금양군(휘 겸) 관보

제4절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금양군 사적史蹟

- 156 • 남행 관원들의 시험에서 별좌 오겸이 수석을 차지했는데 서책 1건을 내리다
- 156 • 조강에 나아가 가뭄과 농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 158 • 재앙 변고가 나타나는 것은 민생 폐단 인재를 잘 선택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송인수 등의 상고
- 165 • 사헌부 대사헌 오겸 등이 천재와 물괴에 응하여 삼갈 것을 청하다
- 166 • 경상도관찰사 오겸이 박전이 모자 네 사람을 죽인 사건을 장계로 올리다
- 167 • 빈청에 정릉을 천릉할 뜻을 전교하다
- 170 • 왕비모의 죽음에 철조하는 일을 의논하다
- 173 • 호조판서 오겸이 양주의 금년 세금만 면제할 것을 건의하다
- 173 • 상진·윤원형 등이 재궁의 물기를 없애는 방법을 의논하다
- 174 • 조강에서 세법의 문란, 함경도 육진의 육성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 175 • 영평부원군 윤개 등이 국본에 관하여 중전과 논의하다
- 176 • 2품 이상을 모아 놓고 일본이 요청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승락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 180 • 공경, 정부의 동·서벽 등 백관이 을사년의 일을 바로잡으라고 청하다
- 182 • 경연관 정지연이 은퇴한 신하들을 문안하기를 청하니, 이조에 서계하도록 하다
- 183 • 상이 오겸·백인걸·송순에게 음식물을 내리다
- 183 • 오겸·송순에게 식료를 제공하라는 전교

제5절 유집 발문跋文

- 184 1. 방후손 계수繼洙 삼가 쓰다
193 2. 종후손宗後孫 승환勝煥 삼가 쓰다

제6절 유집 후기後記

- 195 1. 10세손 불초 재두在斗 삼가 쓰다
198 2. 10세손 불초 재술在述 삼가 기록하다
200 3. 11세손 불초 만선萬善 삼가 기록하다

제4장 금양군 유서遺書 (친필 영인 일부)

- 204 1. 나주오씨 가문의 원조遠祖에 관한 유기遺記
206 2. 도선산都先山 관리에 관한 유서遺書
214 3. 약식가승略式家乘
221 4. 물작불사勿作佛事, 물작무사勿作巫祀
223 5. 추록追錄
225 6. 선산수호 약속서지先山守護 約束書誌

- 228 『국역 국재유집』 발간 후기_ 오종만
232 『국역 국재유집』 발간 사업 추진 일정
234 1958년 『국재유집』 임원록任員錄
234 2018년 『국역 국재유집』 발간위원회 임원 명단

국재 선생 유집遺集 서문

국재菊齋 오 선생의 유집遺集이 오래도록 발간되지 못한 것은 대부분 문헌文獻이 흩어져 없어졌으며, 약간의 기록은 모두 선비들이 서술한 책자 속에서 찾아낸 것으로 또 끊기고 찢기어져 거의 없어질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행히 후손 희수希洙·종수鍾洙 등이 보존된 그 원고의 약간 편을 모아 부족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곰곰이 생각을 하니, 사군자士君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사건을 들어 그 분의 출처와 거취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결같이 의리가 당연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아야 하며, 대중들의 부당한 여론에 따라가지 아니한 선비라야 거의 허물이 적을 것이다.

간혹 구차하게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옮겨가고 있을 때 제재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요행의 길목으로 달려가 자기를 굶힌 자가 올바른 것을 찾으려 해도 물어볼 곳이 없으며, 걸식하듯 착복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욕망은 치열했지만 근본은 무너진 것이다. 이는 공자께서 강직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탄식한 것으로 세상 교육이 점차 무너져 말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나는 이 세상에서 국재 선생의 포용력과 정직성이 처음이나 마침까지 한결 같음을 옛 분들 가운데 찾아볼 때 나

처럼 밝은 화내기를 좋아한 자로서는 그 만 분의 일이라도 흉내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선생은 근원이 있는 옛 가문과 문무文武를 온전히 겸한 재질로서 일찍이 문과에 발탁되었으며,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면앙정 송순, 지지당 송흠, 송재 나세찬 등 선생들과 도의道義로 교제를 하였다. 청렴 정신으로 임금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그때마다 세우신 업적이 매우 대단하였기에 이름은 맹부盟府¹에 기재되었으며 지위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다.

가정에 있을 때나 조정에 있을 때나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고, 많은 녹봉을 헌신짝 버리듯 하시고 하루아침에 관직에서 물러나 처음에 가졌던 뜻을 이루셔서 안정되고, 샘물이 졸졸 흐르듯 깨끗하고 순조로운 모습을 이어가셨다.

문밖을 나가지 않고 모든 인연을 물리치고 깨끗이 살 것을 스스로 다짐하셨으며, 확실히 얻음과 잃음, 영화와 곤욕 따위로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셨으니, 진실로 수양한 바가 정대하고 지킨 바가 확고하여 지조 있는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는가?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백발 노옹들은 자기 지위의 높고 낮음과 얻고 잃음에 대하여 알고 하는데 나태하고 또 어떻게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비록 벼슬길에서 매우 꺼리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함부로 헐뜯는 일들이 있었지만, 선생은 자신을 믿고 의연했으니 인품에 무슨 손상을 입힐 수 있었겠는가. 선생의 그 맑게 흐르는 향기는 참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아주 적은 기록만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1. 맹부盟府: 조선시대 공신의 관부官府, 곧 충훈부忠勳府를 달리 이르는 명칭. 충훈부는 조선시대에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관청.

그러나 선조의 아름다운 행적과 문장을 수습하여 책으로 만들어 미래의 후예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조상님께 효도하고 자손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다. 더구나 유집 속에 벼슬살이를 끝낸 느낌을 읊은 시 일장一章과 자손에게 남긴 장문의 글(書) 한 편은 실제의 환경을 쏟아낸 작품으로 문장력이 웅장하고 넘실거리, 임금을 연모하고 후손에게 당부하는 마음이 말쑥밖에 넘쳐 흐르니, 한 점의 고기 맛으로 온 술의 국 맛을 안다고 하기에 만족하다.

다만 후배가 전인前人을 위하여 문자文字를 작성하는 것은 마치 화공이 초상화를 그릴 때, 비록 매우 훌륭한 재주가 있을지라도 참모습 그대로를 그린다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다. 내가 선생의 유집遺集에 감히 믿음직한 글솜씨도 아니면서 그 문자文字를 함부로 언급하여 그들의 요청을 메꾸노라.

정유丁酉(1957년) 12월 상순

통정대부 전 비서원승, 원임 규장각 대제

여흥 민광식閔廣植 삼가 쓰다

[原文]

菊齋先生遺集序

菊齋吳先生遺集久未入梓大抵文獻散亡零記瑣錄之出於諸家叙述者又斷爛幾就泯滅後孫希洙鍾洙哀梓其幸存者若干篇問序於不佞竊惟士君子之所以立於斯世不可執一而論其出處去就一聽義理之當然而不與衆俱往者庶幾寡過苟或因物有遷不知所裁則或汨於名利之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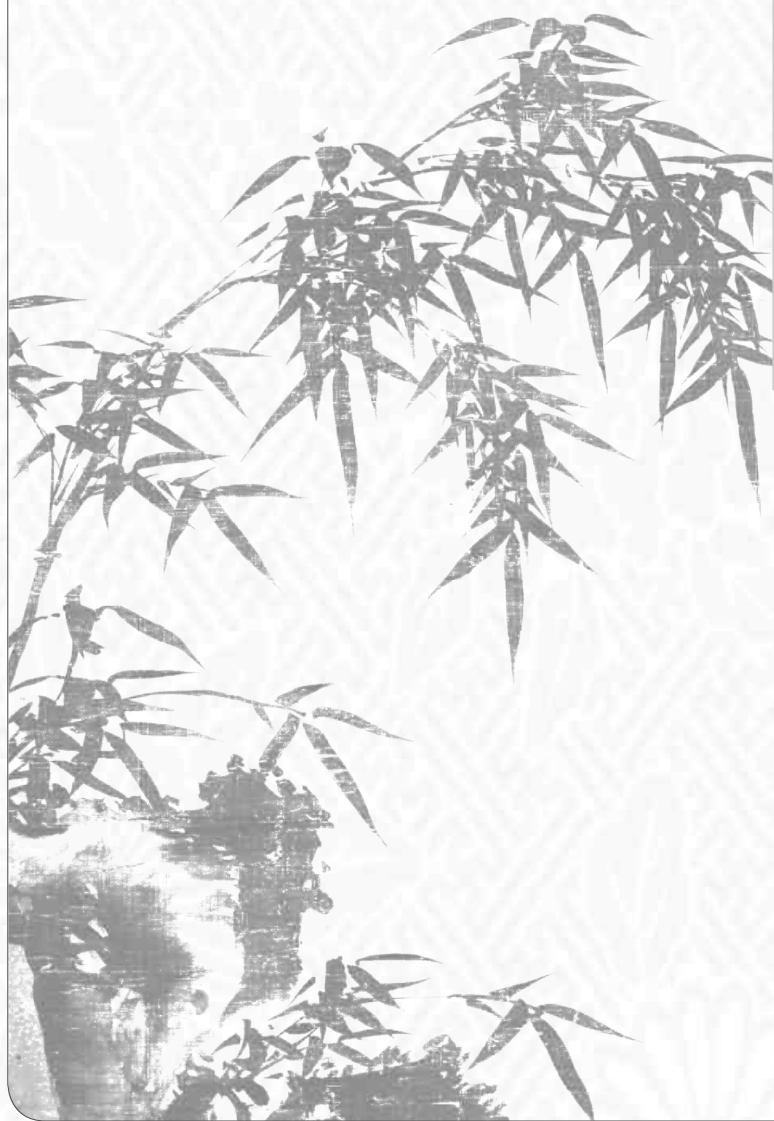
或驚於僥倖之途枉己者無問尋尺乞餘者不羞厭足情欲熾而本實壞此夫子所以歎息於未見剛者而世教所以漸淪於叔季也愚於是知菊齋先生雍容整暇始終一節當於古人中求以非悻悻自好者所可彷彿其萬一也先生以淵源古家文武全材與退溪河西高峯俛仰知止松齋諸先生爲道義交而早擢巍科所在冰蘖贊襄密勿厥樹甚大名載盟府位極人臣在家在邦俱無怨惡而屢視萬鍾一朝引退賦遂初之操賡衡必之章杜門却掃清修自勵切不以得喪榮辱累其心固非所養之正所守之確有不可奪也而能然乎視世之奔走熙攘老白首不知倦其高下得失又何如也雖有當路之最所忌嫉時人之妄加訾謗而先生之爲先生固自若也有何加損哉茲其清芬流芳誠不待小小記述而可與天壤同其久遠然收拾先美登諸文字以徵來後孝子慈孫至情也況其致仕感吟詩一章遺子孫書一篇洵瀉實境雄渾滂沛戀國貽後之心溢於言表足可一嚮知鼎也耶但後輩爲前人作文字如畫工肖物雖甚良才終難肖十分直面余於先生遺集不敢信手放言就其文字以塞其請云

丁酉臘月上澣

通政大夫前秘書院丞 原任 奎章閣待制 驪興 閔廣植 謹書

【제1장】

한시漢詩



1. 고시古詩

송순의 면앙정¹ 시에 차운²하다

次宋純俛仰亭韻

차 송 순 면 앙 정 운

1. 면앙정俛仰亭: 조선 중기의 문신인 송순宋純이 지은 정자.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에 있다.

2. 차운次韻: 한시에서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

파산坡山의 물이여

坡山之水

파 산 지 수

몸을 씻을 만하구나

可以澡沐

가 이 조 목

나의 갓끈에 낀 더러움

余纓之塵

여 영 지 진

이 물에 씻고 싶다 말하리라

願言斯濯

원 언 사 탁

가는 길이 막혔으니

道里阻矣

도 리 조 의

이내 근심만 깊어지는구나

俾我懷憂

비 아 회 우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니

歲云暮矣

세 운 모 의

그대와 더불어 즐기고 싶네

行與子歸遊

행 여 자 귀 유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402
- 국재 금양군 오경 선조님이 담양부사 재직 시 면양정 중건을 지원하였다

송순의 면앙정 원운

附原韻

부 원 운

1. 우산牛山: 중국 강소성 동해현에 있다.

2. 당우唐虞: 중국의 도당씨陶唐氏와 유우씨有虞氏. 곧 요와 순의 시대를 함께 이르는 말로, 중국 역사상 이상적 태평시대.

* 송순과 국재(금양군) 오겸 선조님은 동년배의 교우로서, 금양군 선조님께서 담양부사 재직(1550. 2. 28~1553. 6. 15) 시 면앙정 중건을 지원하였다.

파산의 물이여

坡山之水
파 산 지 수

목욕하기 마땅하기만 하는데

宜浴宜沐
의 욕 의 목

아, 저 우산牛山¹은

嗟彼牛山
차 피 우 산

그렇게나 깨끗하기만 하구나

胡然濯濯
호 연 탁 탁

엷매인 세월 이미 지나갔으니

管絃已去
관 곡 이 거

가난 걱정일랑 역시 잊었어라

貧亦忘憂
빈 역 망 우

꿈속에 당우唐虞² 시대 만나서

夢接唐虞
몽 접 당 우

요 임금 순 임금과 놀았다네

堯舜與遊
요 순 여 유

2. 오언단율五言短律

영장사¹에게 시를 지어 주다

贈靈藏師

증 영 장 사

1

불교²에 의탁하여 발자취를 남겼지만

細流雖托迹
세류수탁적

뜻은 유학을 사모하였네

志慕卽斯儒
지모즉사유

학문의 바른 길을 이미 얻었으니

爲學旣得路
위학기득로

나가는 길이 어찌 다르다 하리오

所趨寧異塗
소추녕이도

2

훌륭한 소학小學의 서책은

偉哉小學書
위재소학서

주문공朱文公³이 편집과 서술을 하였기에

纂述自文公
찬술자문공

큰 교훈은 깨우침이 밝고 명랑하게 드러나

大訓諫昭晰
대훈간소찰

귀머거리와 눈쁜 장님의 어둠을 열어주리라

闡開聵與矇
천개농여몽

1. 영장사靈藏師: 과거승으로 학식이 높은 인물이라고 전해질 뿐 성명 등 인적사항이 전하여지지 않음.

2. 불교: 원문은 세류細流로 물줄기가 가는 시내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유교를 대하大河인 본류本流에 비유해 불교를 세류細流라고 표현한 것.

3. 주문공朱文公: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유학자 주희朱熹의 시호. 일반적으로 주자朱子로 존칭.

* 정축년丁丑年(1577) 음 6월에 국제 선조님이 용진산 아래에 서사書畵를 짓고 영장사로 하여금 아동들을 가르치게 했다. 이때 국제 선조님이 먼저 오언절구를 지으니 면양정 송순이 시운을 따라 지어 화답했다.

* 「영장사에게 시를 지어 주다」 세 수는 유집 원고에는 누락되었으나 선조님의 외손인 노강蘆江 박래호朴來鎬 님이 송순宋純의 『면양집旣仰集』 3권에 수록된 것을 발췌, 제공해 수록했다.

3

처음 글을 배우는 어린이들은

童蒙初學子
동몽초학자

배움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校軌從茲始
교인종자시

덕德에 이르는 길은 이것이 기본이니

入德斯其基
입덕사기기

배움의 큰 길이 숫돌같이 탄탄하도다

大途坦若砥
대도탄약지

영장사에게 지어 준 시에 차운하다 <면앙정 송순>

次贈靈藏師韻 <俛仰亭 宋純>

차 증 영 장 사 운 <면 앙 정 송 순>

1

금양군이 서사書畵¹를 지어 놓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유학자를 따르도록 하였네

소학小學²은 본시 밝은 스승이니

어찌하여 배움이 어렵다고 도중에 되돌리랴

錦陽起書畵
금 양 기 서 사

令爾強從儒
영 이 강 종 유

小學是明師
소 학 시 명 사

何難回半塗
하 난 회 반 도

2

면앙정 안의 늙은이와

용진산 아래 사는 공公이

똑같이 구십의 나이가 되었으니

인사人事는 모르는 게 당연하도다

俛仰亭中老
면 앙 정 중 노

湧珍山下公
용 진 산 하 공

同延九十壽
동 연 구 십 수

人事免爲朦
인 사 면 위 몽

1. 서사書畵: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집

2. 소학小學: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수신서修身書이다. 내편內篇 4권과 외편外篇 2권의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았다.

* 면앙정 송순의 시 「영장사에게 지어준 시를 차운하다」 세 수는 국재 선조님의 시 「영장사에게 시를 지어주다」를 차운한 시로, 유집 원고에는 누락되었으나 선조님의 외손인 노강蘆江 박래호朴來鎬 님이 송순의 『면앙집俛仰集』 3권에 수록된 것을 발췌, 제공해 수록했다.

용진산 석봉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 용진산(龍珍山)(349m):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과 임곡동을 나누는 경계에 있는 산. 이름 그대로 들녘에서는 드물게 보는 겹겹으로 포개져 있는 높은 산으로 조선의 개국공신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선생이 전국을 두루 돌면서 이 산의 빼어난 경치에 빠져서 산사(山寺)에서 며칠을 머물고 갈 정도로 그 옥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위 사진은 주봉인 석봉(石峰)이다. 산이 큰 바위로 이루어져 그 정상은 마치 붓끝처럼 뽕족해 문필봉(文筆峰)이라고도 부른다.

3.

자고로 칠십에 이르는 것도 드문 일인데

백 년을 이로부터 시작함이라

마음속엔 근심도 즐거움도 모두 비었으니

이제 남은 생은 순탄하기만 하리라

七十亦云希
칠십역운희

百年從此始
백년종차시

心中憂樂空
심중우락공

餘事尙如砥
여사상여지

3. 칠언단율七言短律

벼슬을 그만 두고 귀향길 진원현¹에서

致仕到珍原縣賦歸

치 사 도 진 원 현 부 귀

한갓 덧없는 명성에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濫荷浮名愧已多

남 하 부 명 괴 이 다

나이 팔십이 되어서야 가정으로 돌아왔네

年垂八十始還家

연 수 팔 십 시 환 가

지난 날 잘못 산 삶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

昨非悟了嗟遲晚

작 비 오 료 차 지 만

동쪽 울타리 노란 국화² 마주하기 부끄럽구나

羞對東籬黃菊花

수 대 동 리 황 국 화

1. 진원현珍原縣: 전남 장성군 진원면珍源面的 옛 행정 구역.

2. 동쪽 울타리 노란 국화菊花: 중국 남북조시대 동진東晉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陶淵明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국화를 심으며 술과 시로 전원생활을 한 데서 유래.

1. 재신宰臣: 재상宰相인 신하. 곧 품계品階가 정2품 이상인 신하.

2. 이순형李純亨(생년 1498년, 연산군 4~졸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3. 오희길吳希吉: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길지吉之, 호는 도암韜庵이다. 금양군 오겸의 아우인 서윤공庶尹公 오원吳源의 손자로 김인후金麟厚·기효간奇孝諫의 문하에서 수학.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주 경기전慶基殿 참봉으로 태조의 영정影幀과 역대의 실록實錄을 내장산에 옮겨 봉안한 공적으로 위성공신衛聖功臣에 녹훈되었다. 전란으로 다른 사고史庫의 실록은 모두 없어졌으나 전주사고의 것이 보존됨으로써 재간再刊할 수 있게 한 공로가 크다. 사근도 찰방을 거쳐 태인泰仁현감에 이르렀다. 저서에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 『명대의明大義』 등이 있다. 고창 금암사에 봉향.

위 시詩에 덧붙여 차운하다 附次韻〈宰臣¹ 李純亨²〉

부 차 운 〈재 신 이 순 형〉

대궐에서 관복 띠 두르고 국사 돌봄이 많았으니 廊廟垂紳贊花多
낭묘수신찬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라 위한 마음이었네 一心終始在王家
일심종시재왕가

돌아온 고향 이르는 곳마다 임금님이 준 것이니 還鄉到處皆君賜
환향도처개군사

집안엔 술독이 가득하고 화단에는 국화가 피어 있네
室有盈樽菊有花
실유영준국유화

삼가 덧붙여 차운하다

附謹追次韻〈從孫 希吉³〉

부 근 추 차 운 〈종 손 희 길〉

조정에 나아가 어진 일 많이 하셨으니 職造廟堂贊德多
직조묘당찬덕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랏일 도우셨네 心精一向補王家
심정일향보왕가

돌아온 고향 곳곳마다 임금님의 은택 따랐으니 歸來處處隨恩澤
귀래처처수은택

금빛 향아리 맛 좋은 술에 노란 국화 띄우셨네 綠酒金樽黃菊花
녹주금준황국화

안분당¹에서 짓다

푸른 시냇가에 한가로운 집 짓고서

거닐며 보는 즐거움으로 세상사 잊을 만하네

일찍이 분수를 안 그대를 부러워했는데

뒤늦게야 돌아온 나의 모습 부끄럽다오

題安分堂

제 안 분 당

構得閒堂碧溪湄
구 득 한 당 벽 계 미

逍遙玩樂可忘機
소 요 완 락 가 망 기

羨君早歲能知分
선 군 조 세 능 지 분

愧我歸來獨後期
괴 아 귀 래 독 후 기

1. 안분당安分堂: 이희보李希輔(1473~1548)의 서실. 조선 중기의 문신·문장가. 공조참의, 나주목사, 여주목사 등을 지냈다. 중종이 수차 대사성에 임명하려 했으나 사헌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536년 대사성에 올랐다. 문집으로 『안분당 시집安分堂詩集』 2권이 있다.

유사의 호가정¹ 시에 차운하다

次柳泗浩歌亭韻

차 유 사 호 가 정 운

1. 호가정浩歌亭: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설강雪江 유사柳泗(1502~1571년) 선생이 만년에 지은 정자. 호가정이라는 이름은 중국 송나라 소강정이 말한 호가지의 뜻을 취하여 지은 것이다. 명종 13년(1558년)에 처음 세웠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지고 고종(8년) 때 다시 지었다. 설강은 1522년 진사 합격, 1528년 문과에 합격, 도승지 무장현감 전라도사 삭주부사 종성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앞으로는 무등산이요 동북으로 담양 추월산, 남서에 영암 월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이며 영산강 6경으로써 극락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 설강 유사 선생과 국재 오겸 선조님은 사돈 관계이다.

시냇물과 산자락 어우러진 곳 찾아오니

爲訪溪山一洞天
위 방 계 산 일 동 천

십 리 모래밭 물안개 구름처럼 피어오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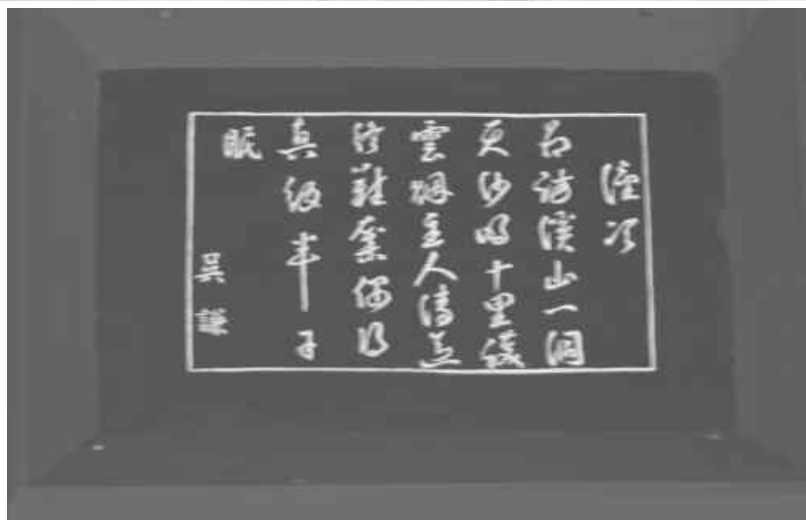
沙明十里護雲烟
사 명 십 리 호 운 연

주인의 청정한 마음 끝내 따르지 못했지만

主人清意終難業
주 인 청 의 종 난 업

우연히 얻은 참된 인연으로 한나절을 쉬었다오

偶得眞緣半日眠
우 득 진 연 반 일 면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분토길 195(본덕동)
- 국재 금양군 오겸 선조님이 지은 한시 편액이 호가정에 걸려 있다

문충공¹의 청림 옛터에서 읊다

詠文忠公靑林舊基

영 문 충 공 청 립 구 기

1. 문충공 文忠公: 포은 圃隱
정몽주 鄭夢周 선생의 시
호.

* 국재 금양군 오검 선조
남께서 경상도관찰사로
재직 시(1558.1.9~1559.
3.20)에 포항시 오천읍 문
충리 청림산 기슭 옛 집
터를 지나며 읊은 시로,
국재유집에는 누락되었
으나 12대손 종만이 수
집해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유학은 이 곳이 연원이라

吾東道學此淵源
오 동 도 학 차 연 원

절의와 문장을 감히 논할 수가 없도다

節義文章不足論
절 의 문 장 부 족 론

옛집은 허물어져 물을 곳이 없는데

舊宅荒涼無處問
구 택 황 량 무 처 문

저녁바람과 석양은 넋을 녹일 만하네

晚風斜日可消魂
만 풍 사 일 가 소 혼

4. 오언사율五言四律

송재 나세찬¹을 애도하며

挽羅松齋世縝

만 나 송 재 세 찬

떨어져 살면서도 지기知己가 되었으니

托分爲知己

탁 분 위 지 기

우정은 더 깊어져 형제처럼 지냈었네

情深伯仲行

정 심 백 중 행

명성이 한강 북쪽까지 알려졌고

揚聲漢北外

양 성 한 북 외

호남에서는 독보적인 태두泰斗였네

獨步斗南方

독 보 두 남 방

조정에서는 어질고 착한 신하 죽음을 애도했고

朝惜賢良逝

조 석 현 량 서

사람들은 큰 인물 떠났다고 슬퍼했네

人悲長者亡

인 비 장 자 망

앞으로 지지地誌²가 편찬된다면

他年撰地誌

타 년 찬 지 지

공공 때문에 우리 고장이 드러나리라

吾土賴公彰

오 토 뢰 공 창

1. 나세찬羅世(1498~155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나주 출신. 자는 비승(丕承), 호는 송재. 두 차례의 장원급제로 문명을 떨쳤으며, 한성우윤·전주부윤·대사간 등을 역임하였고, 권신을 서슴지 않고 탄핵하는 기개가 있었다. 저서로 『송재선생유고松齋先生遺稿』 4권. 시호는 희민(僖敏). 국재 오겸 선조님과 절친한 친구이다.

2. 지지地誌: 특정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을 백과사전 식으로 나누어 기술한 책.

양산보의 소쇄원¹ 시에 차운하다 次梁山甫瀟灑園韻

차 양 산 보 소 쇠 원 운

1. 소쇄원 :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원림園林으로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가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다. 양산보梁山甫(1503~1507)가 조성한 것. 스승인 조광조趙光祖가 기묘사화로 유배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소쇄원을 지어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소쇄원은 양산보의 호인 소쇄옹에서 비롯되었으며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곡문五曲門 담장 밑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 물은 폭포가 되어 연못에 떨어지고, 계곡 가까이에는 제월당霽月堂(비 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뜻의 주인집)과 광풍각光風閣(비 온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란 뜻의 사랑방)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많은 학자들이 모여 들어 학문을 토론하고 창작활동을 벌인 선비정신의 산실이기도 하다.

* 국재(금양군) 선조님이 담양부사로 재직 시(1550.2.28~ 1553.6.15)에 교유하였다.

1

속세를 떠나 사는 참 즐거움으로

幽居眞可樂
유거진가락

세상사 모두 잊고 마음마저 비웠는가

隨事空人心
수사공인심

대나무는 서로 자라 성긴 그림자 드리우고

種竹分疏影
종죽분소영

심어 논 오동나무는 긴 녹음을 이루었네

栽梧長綠陰
재오장녹음

한가하게 찾아 와 돌을 쓸고 앉으니

閒來掃石坐
한래소석좌

흥이 절로나 못가에서 시를 읊었네

興到繞池吟
흥도요지음

온종일 임정林亭은 조용한데

盡日林亭靜
진일임정정

새들만의 울음소리 들려오누나

恒聞自在禽
항문자재금

소쇄원 전경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2

그대의 정우亭宇는 과연 좋구려

君家亭宇好
군가정우호

진작부터 사립문이 궁금했는데

久擬疑柴扉
구의의시비

돌 아래는 맑은 물이 흘러가고

石下清泉達
석하청천달

바윗가엔 작은 국화가 심어져 있네

巖邊細菊圍
암변세국위

산림에서 살기가 편안한 것은

山林棲息穩
산림서식온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기 때문이라네

城市往來稀
성시왕래희

꼭 찾아보겠다는 약속 어겨 부끄러웠는데

愧負尋眞約
괴부심진약

난 오히려 작은 녹봉만 탐했나 보오

猶貪寸廩微
유탐촌름미

5. 칠언사율七言四律

풍영정¹에서 짓다

題風詠亭

제 풍 영 정

1. 풍영정風詠亭: 광주광역시 신창동 극락강변의 신창산 위에 자리한 정자로, 조선 중기 문신인 칠계漆溪 김언거金彦據(1503~1584)가 세운 정자.

2. 표성表聖: 당나라 말기의 시인으로 사공도司空圖(837~908)의 자字. 저서『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은 시의 의경意境을 24품品으로 나누어, 각각 4언의 운어韻語 12구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설하였다. 시는 당나라 말기에 으뜸으로 꼽혔고, 특히 기품 있기로 알려져 있다.

3. 삼의三宜: 재주, 분수, 건장을 일컫는다.

어느 날에나 그대와 함께 보낼 휴가를 얻을는지 與君何日得歸休
여군하일득귀휴

하늘을 바라보니 한 해가 저물어 서글프구나 回首天邊歲暮愁
회수천변세모수

이 몸은 대궐 안 붉은 띠에 메였지만 身繫黃堂朱綬紱
신계황당주수불

마음은 푸른 바다 흰 갈매기와 놀고 싶구나 心遊滄海白鷗洲
심유창해백구주

표성²이 삼의³를 들어 떠나 간 것을 늘 그리워했고 常憐表聖三宜去
상련표성삼의거

도연명이 닷 말의 쌀에 머무른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오 亦恥淵明五斗留
역치연명오두유

내가 먼저 가고 싶었는데 그대가 날 기다리니 만족일세 我慙先行公待滿
아욕선행공대만

닭국과 기장밥으로 남은 여생 함께 보내고 싶구나 共將鷄黍送殘秋
공장게서송잔추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21(신창동 852)
- 국재 금양군 오겸 선조님이 전주부윤 재직 시 지은 한시 편액이 풍영정에 걸려 있다

송흙의 관수정¹ 시에 차운하다

次宋欽觀水亭韻

차 송 흙 관 수 정 운

1. 관수정觀水亭: 조선 전기의 문신 송흙宋欽이 지은 정자. 관수정은 “맑은 물을 보고 나쁜 마음을 씻는다”는 뜻으로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

2.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시호. 조선 중종 때 사림의 지지를 바탕으로 도학정치의 실현을 위해 개혁을 단행하였다가 훈구파의 반발을 야기해 귀양간 후 사사되었다. 훈구파勳舊派에 의해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新進士類들이 숙청된 사건을 기묘사화라 한다.

3. 엄자릉嚴子陵: 본명은 엄광嚴光, 자릉은 자이다. 동한東漢(후한) 광무제유수劉秀의 죽마고우. 유수가 병사를 일으키자 적극적으로 도왔으나, 유수가 황제로 즉위하자 은거했다. 훗날 유수가 엄광에게 자신을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자고 하자, 엄광은 “옛날 요임금이 자신의 덕을 천하에 드러내려 하자 소보가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뜻이 있으니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꾀박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관리가 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정자 가까운 그윽한 계곡의 물빛 차가운데

亭臨幽澗水光寒
정 임 유 간 수 광 한

맑은 물 좋아서 홀로 난간에 기대었네

爲愛清澄獨倚欄
위 애 청 정 독 의 란

지금껏 나라를 걱정한 문정공²의 뜻 지녔으며

尙有憂邦文正志
상 유 우 방 문 정 지

처음부터 세상 잊으려는 엄자릉³의 여율은 아니었네

初非忘世子陵灘
초 비 망 세 자 룡 탄

백세의 수명은 한가로움으로부터 얻어지고

期耄壽自閒中得
기 모 수 자 한 중 득

만족을 아는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볼 수 있네

知足心從靜裏觀
지 족 심 중 정 리 관

천년 만에 들은 이야기는 나약함을 분발하게 하였으니

千載聞風猶激懦
천 재 문 풍 유 격 나

남은 물결 서로 나누어 찌든 마음 씻으리라

餘波分與洗塵肝
여 파 분 여 세 진 간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천방길 5(내계리)
- 국재 금양군 오경 선조님이 홍문관 부응교 때(1542년) 지은 한시 편액이 관수정에 걸려 있다

송흙¹의 관수정 원운原韻

附原韻

부 원 운

1. 송흙宋欽(1459~1547): 조선 중기 문신. 자는 흙지欽之, 호는 지지당知止堂·관수정觀水亭이며 시호는 효헌孝憲.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중종이 즉위하자 담양부사, 광주·나주 목사,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538년에는 청백리로 뽑혔으며, 한성부우윤, 병조판서, 우참찬 등을 거쳐 관중추부사 겸 경연지사가 되었다.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관수정을 짓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2. 팔절탄八節灘: 중국 하남성 낙양 부근의 용문龍門 근처에 있는 여울로, 이곳에 시인 백거이가 정자를 짓고 노인들과 함께 풍류를 즐겼다 한다. 용문은 등용문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지명으로 황하黃河 상류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물가에 지은 정자 여름에도 서늘하여

危構臨流夏亦寒
위구임류하역한

늙은이 난간에 기대어 서지 않은 날이 없었다네

老夫無日不憑欄
노부무일불빙난

일찍이 골짜기 두 시냇물을 독차지하였는데

既專谷口雙溪水
기전곡구쌍계수

어찌하여 중국 용문의 팔절탄²을 부러워하리

奚羨龍門八節灘
해이용문팔절탄

물속에 잠긴 그림자 참으로 사랑스럽고

靜影洗光眞可愛
정영세광진가애

날이 개이면 비에 씻긴 모습 즐겨 보리

晴粧雨沫最堪觀
청장우말최감관

천만 가지 모습들이 눈앞에 어지럽지만

千資萬態渾迷眼
천자만태혼미안

맑은 물 떠다가 나의 애간장을 씻어내리라

要取清瀾洗我肝
요취청란세아간

【제2장】

유서
遺書



1. 나주오씨 가문의 원조遠祖에 관한 유기遺記

오씨의 선세先世는 나주에서 나왔고, 후손들도 이 곳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세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자손들도 쇠미해져서 성을 시작한 조상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향중鄉中의 옛 늙은이들이 간혹 전하는 말에 따르면, 시조가 중흥리中興里에서 출생하여 과거에 급제, 신라 조정에 벼슬을 하여 경순왕敬順王의 사위가 되었고, 그 후손에 진사인 오숙규吳淑珪란 분이 있어 정랑正郎인 정수鄭隨와 급제한 정송수鄭松壽와 함께 중랑장인 정보유鄭寶儒의 사위가 되었다. 정송수는 바로 고려의 시중侍中 정가신鄭可臣의 아버지요, 오숙규는 바로 중랑장 오언吳偃의 선조라고 한다. 그러나 고증을 할 만한 문적이나 대수代數나 명휘名諱 등을 상고할 길이 없다.

아! 상고할 길이 없기에 망령된 말을 전할 수는 없지만, 중랑장 이하 양조兩祖의 유체가 이 곳에 모여져 있으니, 후손된 사람으로 이 곳에 살고 있는 자가 원조遠祖를 추모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중랑장께서 예빈시정禮賓寺正 계진季眞을 낳으셨고, 계진께서 공조참의 영달穎達을 낳으셨고, 영달께서 부사 신교愼交와 진사 신중愼中과 신의愼儀 3남을 낳으셨다.

신교께서 경조敬祖·경친敬親·경장敬長을 낳으시니, 함께 경진

년(1460년)에 무과급제를 했으나 벼슬하지 않았다.

진사 신중께서 나성군羅城君 자치自治를 낳으셔서 적개공신敵愾功臣이 되어 아버지 신중이 금성군錦城君에 증직하게 되었고, 할아버지 영달은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증직 되었다.

다음의 아우 신의께서는 그 손자 습독習讀·명복命福이 영광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성군의 후손과 경조 3형제의 후손들이 나주의 삼가리三加里 광산촌廣山村에 많이 살고 있다.

[原文]

吳氏之先出於羅州後裔多居之而世代已遠子孫衰微未知始姓之祖爲何代人鄉中舊老或傳始祖生於州之中興里登科仕新羅爲金傅王駙馬其後有進士吳淑珪與正郎鄭隨及第鄭松壽同爲中郎將鄭寶儒之婿松壽卽高麗侍中鄭可臣之考淑珪乃中郎將諱偃之先也云而可徵文籍代數名諱不得考焉噫其不得考焉不可妄爲傳說矣而中郎將以下兩祖遺體實始安措於此爲後裔子孫居此者其可不爲之追遠而念之哉中郎將生禮賓正諱季眞季眞生工曹參議諱穎達穎達生府使愼交進士愼中愼儀三男焉愼交生敬祖敬親敬長同登庚辰武舉不仕進士愼中生羅城君諱自治參敵愾功追贈考錦城君祖考則仍工曹參議次弟愼儀孫習讀命福居靈光而羅城君之後敬祖三兄弟之後多居三加里廣山村

2. 도선산都先山 관리에 관한 유서遺書

1. 정덕正德: 1506~1521.

중랑장과 예빈시정 두 분 선조의 묘소가 광산촌 남쪽 2~3백 보步의 거리에 있는데, 이 곳에서 와요동 ‘평지원平地原’이라고 부르는 곳(현재는 ‘평가平價’라고 부르는 곳)에 모셔져 있다. 낙락장송과 잠목 수천 여 그루가 곧게 뻗고 뻗뻗하게 서 있는데, 그 높이가 모두 다 백 여 척이 되어 온통 가득 차 있으니 오고 가는 길손들이 바라보며 그 푸르고 울창함에 감탄을 자아낸다.

이 수림은 곧 공조참의 선조께서 그 조부와 부친 두 분의 묘역을 위하여 손수 심으신 것이다. 그 뒤 태어난 자손들이 용렬하고 미약하여 당당함을 들어내지 못한 까닭에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남들이 벌목을 하는데도 금지할 능력이 모자라 한없이 계속 되었는데 하면, 정덕正德¹ 갑술甲戌(1514년)에 강풍을 만났으며, 금년 만력萬曆 을해乙亥(1575년)에 또 폭풍의 변괴를 만나 많은 수목이 넘어졌으니 한탄만 할 뿐이었다.

그 풍해를 겪고 남아 있는 것을 계산하면 겨우 863그루가 서 있으니, 만약 또 종전과 같이 벌목하려는 침범을 막지 못하고 자손들이 가까운 곳에 많이 살면서도 함께 노력하여 수호하지 않는다면 10년이 못 되어 별안의 나무는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선조 참의공께서 손수 수목을 심으신 지 이제 거의 200년이

되며, 그 가운데 긴 가지의 높이가 100척이 되는 수목은 뚜렷이 나타나 숫자를 셀 만한데, 만일 베어 내어 남은 것이 없는 민둥 상황에 이른다면 어찌 이 곳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며, 남들은 무어라고 비웃겠는가! 아마도 오씨 문중에 사람이 있느냐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초 겸謙(국재 선조님 본명)이 이 마을에 사는 자손 약간을 인솔하여 몸소 묘역을 살펴보면서 높이 자란 소나무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세어 책자에 기록하고, 또한 자손들과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경고하기를, “우리 오성吳姓으로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비록 촌수가 먼 종친일지라도 모두 중랑장(1세 언)과 예빈시정(2세 계진) 두 분 선조님의 후손이다.”

이 곳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눈으로 묘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주변의 관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 송림은 모두 공조참의 선조님께서 할아버지(1세 언)와 아버지(2세 계진)의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손수 심으신 것이다.

세월이 이미 2백 여 년이란 오랜 기간이 가까워졌으니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라면 관심이 어찌 감당甘棠나무¹를 경모敬慕하는 것 정도뿐이겠는가! 백세의 뒷날에 이르러도 오히려 마땅히 자르거나 뽑아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무식한 후손이 있어 송림을 심은 본래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선조님들께서 생전에 용납하지 않는 바이므로 하늘에 계신 선조님의 명령께서

1. 감당甘棠나무: 팔배나무를 말한다. 중국 주周나라 소공召公이 지방을 순시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는데, 순시할 때는 관청에 들어가 올라가지 않고 관청 밖 감당나무 아래에서 백성의 송사訟事를 듣고 공정하게 해결했다. 후대에도 사람들이 어진 정치를 생각할 때 소공이 앉았던 감당나무를 마치 그를 대하듯 좋아하며, 그의 선정을 기린 노래가 『시경』 소남편의 ‘감당’이란 노래이다. “우거진 저 감당나무/ 자르지도 말고 꺾지도 말라/ 소백이 쉬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塞勿敗 召伯所說).”

반드시 보우하지 않을 것이다.

향차 신위를 위한 전답은 산지기들에게 맡겨 영구히 보존해 내려오고 있는데, 자손 되는 자가 그 당연한 까닭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인가?

선대의 유학자들이 남겨주신 말씀에 이르기를, “별안의 나무를 베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마도 옛날부터 선조님의 묘역을 가꾸기 위하여 소나무 등을 심은 뜻을 이와 같이 받들어 왔는데, 별안에 심은 소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손들이 가난하여 관판棺板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군색하고 급박하여 남의 집에서 빌려 쓰고 상환할 수 없거나, 혹은 가옥을 짓는데 필수적으로 장목長木을 사용하여야 할 때 구하여 얻을 수 없는 형편일 경우에는 마땅히 선산을 공동으로 수호한 자손들 모두에게 통보하여 전체 의견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한 그루만 허락하되 반드시 공동 감시가 필요하다.

벌목 채취란 역시 쉽게 허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그루 채취를 허락받은 자는 반드시 열 그루를 심도록 하고, 밭갈이하는 얼룩소가 옛 별안을 가까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별안에 심은 나무가 더 증가하고,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벌목 금지를 약속한 뜻을 되돌아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벌목하는 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선산을 수호한 자손들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서로 모아 물리치고, 본래의 근원을 등지고 선조님의 뜻을 망각하고 버린 죄악을 논의하여 반드시 연명으로 모두 서명한 서류를 만들어, 그 서류를 관아 목사에

게 제출하고, 혹은 감사에게도 제출하고, 혹은 수사에게도 제출하여 기어코 추궁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안에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이 약속 책자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들이 반드시 나(謙)의 뜻이 선조를 위하고 분묘를 보호하려는 생각을 두루 가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므로, 그 누가 그들의 죄를 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것인가?

처음 세대는 아주 오래 되었고, 후예들은 쇠퇴하고 미약하여 오성吳姓을 시작한 선조를 자상하게 알지 못한다. 중랑장공과 예빈시정공 두 분 선조님의 묘소가 이 곳 “평지원平地原에 처음으로 안장되어 우리 오씨 가문의 시조가 되었으며, 김해부사공과 금성군 및 정부인貞夫人의 묘가 그 뒤를 따라 이 곳에 안장되었고, 나머지 이 마을에 사는 후손들 역시 그 아래에 묘를 썼으니 모두 이 두 분 조상님의 묘를 위주로 의탁한 묘들이기에 지금 여기에 기록을 다하지 않는다.

기타 분산되어 먼 지역에 장례를 모신 분묘까지를 하나하나 잘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은 역시 인심이 점차 나빠져 옛날 같지 아니 하기 때문에 초목樵牧들의 침범을 금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랑장공과 예빈시정공 두 분 선조님 묘소는 가까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으며, 두 분 모두 관작官爵으로 인해 침범이 규제된 묘소이고, 더구나 장성한 나무들은 국법으로 수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목들의 침입을 금지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곳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비록 분과된 대수가 멀어 기제사를 받드는 일에는 다 참석하지는 아니 하지만, 모두 다 이 두 분 선조님의 음덕으로 그 뒤 2~3세대 조상님까지 벼슬을 이어 받아 의관을 갖춘 집안의 후예가 되었고, 이에 확실히 양반의 대열에 끼어 행동하는 것이니 그렇게 된 까닭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옳다고 하겠는가? 오직 마땅히 함께 수호하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조부 금성군의 산지기 만수의 집은 아주 가깝게 ‘평지원’ (중랑장공 묘역) 서쪽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는 지척의 지역이고, 훈도 오한吳瀚 역시 그 조모를 위해 묘소를 ‘영옥’이란 곳에 정하고, 같은 자손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집은 약간 멀지만 벌목을 금지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거주지가 비록 두루 가깝지는 않지만 왼쪽과 오른쪽에서 선산을 수호하고 있다.

위전위답位田位畓의 수확을 반씩 나누어 경작을 하는 자는 함께 힘을 모아 선산을 지켜야 하고, 칙령에 의거 벌목하는 혐의자를 고발하여 검거할 수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등 맡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나뭇가지를 자르고 몸통을 찍는 소리가 나면 반드시 알지 못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곧바로 달려와 알려야 하고, 함께 산소를 지키는 가정에서는 미처 벌목하는 소리를 듣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소홀히 하는 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뒷날 자손 중에 노복을 부려 계속하여 산지기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이 준례에 따를 것이며, 선산 산지기는 그들 스스로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고, 잡목은 그 주인집에서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참의공 선조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산소를 위하여 손수 심은 소나무와 잡목은 인심이 순후하며 법을 두려워한 때에 양성된 것으로 이제 200년이 가깝게 됐다. 그 성장 기간이 오래되어 근년에 특이하게도 양성된 그 소나무들이 뚜렷이 표시가 나서 숫자를 셀 만하다.

같은 문중의 자손들이 만약 아끼며 보호하지 않고 마음대로 손을 대어 벌목을 한다면, 결코 옛날의 성장한 모습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 텅 빈 자리가 되어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부득이 벌목할 일이 있으면 문중 모두가 모여 동의를 얻은 뒤에야 한 그루만을 허락할 것이요, 이 한 그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논하여 허락을 받을 사람은 곧 가난한 종친의 자손으로서 내관內棺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바 한 그루를 줄 뿐이다.

한 그루를 주었으므로 내관만을 훌륭하게 갖추면 된다. 외곽外槨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허락해서는 안 된다. 대개의 경우 집이 가난해서 외곽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내관은 이미 있으므로 외곽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외곽의 판자는 반드시 높고 큼직한 나무를 선택하여야 됨으로 묘역의 나무를 보호하는 정상을 참작할 때 커다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자식된 마음에 반드시 외곽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 개의 판자를 모아 제작하여도 되며, 외곽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므로 외곽용 판목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기타 문중의 일에도 위와 같이 처리한 의미를 기준 삼아 적절히 상의하여야 할 것이요, 어림잡아 경솔하게 허락하는 것은

1. 춘사春社: 입춘立春이 지나고 다섯 번째 돌아오는 무일戊日에 올리는 제사.

안 된다. 모두가 의논을 거쳐 허락하는 자의 명령을 기다려 춘사春社¹ 이전에 5~6세 된 어린 소나무가 곧게 자란 것을 선택 하여 뿌리에 흙이 묻은 그대로 열 그루를 옮겨 와서 묘소 아래 빈 자리에 심고, 다음 해 온전히 살아 생기를 탄 그 때까지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가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온 가문이 함께 논의하여 책임과 벌을 시행할 것이고, 반드시 심은 나무가 온전히 세워져 생기를 탈 때까지 기한을 삼는 것이 옳은 것이다.

[原文]

中郎將禮賓正兩祖墓在廣山村南二三百步俗號瓦窯洞平地之原長松雜木數千餘條直幹森立皆可百許尺者瀰滿一洞行路望之蒼翠鬱然者卽工曹參議祖爲先祖先考兩墓而手植者後來子孫劣弱不振爲公私斫伐而有不能禁焉何限正德甲戌遭烈風迄今歲萬曆乙亥又值風變而多顛仆可勝嘆哉計其餘存僅有八百六十三條若又如前時之斫伐不能禁絕子孫等列居旁近不爲共力守護則不十年而無餘矣先祖參議公之手植今幾二百年其長條高至百尺者表表可數而至於兀禿無所餘則豈不爲後孫居此者之責又可安於心而人之謂之何如也吳氏之門有人乎哉不肖謙謹率子孫居此村者若干人躬親扶持奉審松林之秀拔表表者一一考數錄之於冊而又與約束作約束冊而告之曰吳宗姓在此里者雖雲仍之遠皆是中郎將禮賓正兩祖氏之後裔飲食居處于斯常目在之其可不爲之

思念乎況此松林皆工曹參議祖爲先祖先考之墓手植者歲月已近二百餘年之久爲其後生子孫者豈但甘棠之敬慕乎歷至百世猶當勿剪勿拜者而或有無識之裔不思所本之源而惟利是圖者斯皆先祖之所不容也先祖在天之靈必不保佑之矣況置位田與畚以付諸山直以垂諸永久爲子孫者其可不思其所以然之故乎先儒有言曰不斬丘木以爲宮室蓋古之爲墳墓培植松楸之意如此其可忽諸然子孫貧乏如不得備棺板或窘急貸用人家之所有而不能償者或造家而必須用長木者他無可得之勢者則當與共守護子孫等通共僉議可否只可許一條而須要共監伐取亦不可容易許之而許取一條者必種植十條毋使耕犁侵近舊基之內必使松楸有增無減可矣或有不顧約束之意而擅自斫伐者子孫共守護之人同心同力相與排擯論以背本源忘棄祖先之惡而斥之必須連名僉署遣人呈單于牧官或呈于監司或呈于水使期於推考治罪不可但已將此約束冊而告之則其必有矜謙此志而均有爲先人護墳墓之念孰不爲之釐正其罪乎

一世代久遠後裔衰微始姓之祖不得詳知而中郎將與禮賓正兩祖墓始乃安措於平地之原爲吳門之始祖而金海府使與錦城君及貞夫人墓隨其後葬于此其餘後裔之居此里者亦葬其下皆以是兩祖墓爲主而托焉今不盡錄其他分葬遠地者則不能一一可能守護亦緣人心漸惡不古難得禁樵牧者已矣不論而若此中郎將禮賓正兩祖墓則近在望見之地皆有位爵禁制之墓況因已長之材守國法而禁止樵牧有何難焉後裔在此之人雖遠代不及奉祀事

而皆以是兩祖蔭與承荷二三祖爵位而得爲衣冠之後乃
能得齒於兩班之列而行於鄉閭者可不思其所以然者乎
惟當共守護而不可忽也曾祖錦城君之山直萬壽之家適
近平地原之西正與相對咫尺之地訓道吳澣亦爲其祖母
墓定令玉同仍居其家遙與禁伐居止雖不均近然左右直
守位田位畚半分并作同力直守而勅令常川檢舉看審照
管與有折枝斲削之聲則必無不知輒卽來告共守護之家
母曰不及聞知而忽之哉後有子孫中欲而奴繼使守直之
人則亦依此例而爲之而山直者其所自培植之松雜木則
各其主家任自區處矣而至於參議祖主爲先祖考手植之
松與雜木則養成於人心醇厚畏法之時今近二百年其成
長也久遠特異於近年養成者表表可數同門子孫若不愛
護而擅行下手伐之則而今決不復古昔之盛長而終爲兀
禿無餘矣如有不得已斫伐之事則家門宗姓齊會同議以
爲可然後乃可而一條許之不得過此一條也所以議許者
乃指貧乏同宗子孫不備內槨者與一條耳盖與一條則優
可備內棺矣至如外槨則亦不可許之盖外槨貧家不能備
則雖有棺而無槨亦可也外槨板必擇高大木而與之於墓
木保護之情大有妨而人子之心必欲爲之則外槨集衆板
亦可合爲槨雖不與之亦可矣槨板亦不許之其他又可以
此意爲准而商議斟酌切不可輕易許之也

僉議許之者令俟春社前擇取五六歲稚松直幹者戴土掘
取十條種于墓道之下虛踈處以翌年成立生活爲度其不
如約者家門同議責行罰禮必以成立生活爲之期限焉可
也

3. 약식가승略式家乘

선대先代 및 현재 이 마을에 사는 동성인同姓人을 차례로 기록하여 계파를 밝히고, 또 5대까지를 기본으로 세대를 나타낸다(6대 이하는 혼인하여 이 곳에 사는 사람을 기록하고, 이에 미급자는 기다렸다가 다시 추가 기록할 것이다).

- 중랑장 휘諱 언偃, ‘평지원平地原’에 묘를 씀
- 통정대부 예빈시정 휘 계진季眞, 아버지 묘 아래 묘를 씀
이 두 분 선조님을 ‘평지원’에 비로소 묘를 씀
- 공조참의 휘 영달穎達, 북성산에 묘를 씀. 위 ‘평지원’의 소나무는 참의공 선조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해 손수 심었다고 전해옴
- 참의공 장자 통정대부 김해부사 휘 신교愼交, 할아버지 묘 아래 묘를 씀
- 참의공 차자 중 순충보조공신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 의금부사 금성군 성균진사 휘 신중愼中, 평지원의 서쪽에 묘를 씀
- 부사공 장자 휘 경조敬祖, 차자 휘 경친敬親, 말자 휘 경장敬長
- 무과급제 경조의 장자 성균 생원 휘 암巖, 암의 자 석년石年, 석년의 자 진남震男

* 이 가승은 나주오씨 2세 예빈시정공 휘諱 계진季眞 선조님 후손 가문의 가승임. 이 가승을 작성한 1570년대에는 나주 오씨 2세 휘諱 탁진卓眞 선조님, 사정공 휘諱 경진敬眞 선조님 등의 가문에서도 각각 자기 파의 가승을 별도로 작성하였고, 나주오씨 전체 족보는 1747년(정묘년)에 이르러 제1회 족보가 발간되었음.

* 참의공의 말자 내금위공 휘諱 신의愼儀 선조님 및 그 자손은 영광에서 거주하였고, 나원군의 말자 서윤공 휘諱 원諤의 차자 언기彦麒 선조님은 고창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575년 당시 나주 삼가리에 거주자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위 기록에서는 누락되었다. 또한 서윤공 휘諱 원諤 선조님의 아드님인 언흠彦欽, 언지彦智, 언예彦禮, 언홍彦弘 선조님은 당시 미혼이었으므로 가승 기록에 누락되었다.

- 무과급제 경친의 장자 휘 세호世豪, 세호의 양자 승복承福, 승복의 자 훈도 한瀚
- 경친의 차자 휘 세준世俊, 세준의 자 승명承命, 승명의 자 식湜
- 무과급제 경장敬長의 장자 휘 세린世麟, 세린의 장자 계창季昌, 차자 기창起昌, 말자 응창應昌
 - 계창의 장자 징澄, 차자 항沆, 말자 결潔
 - 기창의 장자 별감 인우仁祐, 차자 인억仁億, 말자 인호仁豪
- 경장의 차자 휘 세구世龜, 세구의 자 필창必昌, 필창의 자 수상壽祥
- 금성군 자 정충출기적개공신 나성군 가선대부 병조참판 중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증시 양평공 휘 자치自治
- 나성군의 장자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나원군 행 통정대부 부평도호부사 휘 세훈世勳
- 나원군의 장자 숭정대부 금양군 겸
 - 겸의 장자 통훈대부 행 임피현령 언후彦厚, 차자 언관彦寬
- 나원군의 차자 성군진사 인訥, 인의 장자 언룡彦龍, 차자 언호彦虎
- 나원군의 말자 통훈대부 행 옥과현감 원諤
 - 원의 장자 언린彦麟, 차자 언표彦彪, 차자 언인彦仁
- 나성군의 차자 어모장군 행 충좌위 부호군 휘 세익世翊
 - 세익의 자 성誠, 성의 장자 경로敬老, 차자 경복敬福

6대 이하 동성인同姓人은 차서次序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혼인하여 이 마을에 사는 자를 추록한다.

- 진남震男 장자 연淵, 차자 잠潛, 차자 영泳, 차자 순詢, 차자 개漑
- 결潔 장자 몽정夢井, 차자 몽삼夢參
- 징澄 장자 몽규夢奎, 차자 몽성夢星, 차자 몽득夢得
- 순詢 자 희복希福

[原文]

列錄先代及今同姓人居此里者以明系派又以著世代所本以至于五代(六代以下婚娶定居則亦錄之其未及者俟更追錄其次)

- 中郎將諱偃(或云彦)葬于平地之原(資級不得考)
- 通政大夫禮賓寺正諱季眞葬先考墓下
 - 此兩祖平地原始葬之墓
- 工曹參議諱穎達葬北星山(平地原松木參議祖爲祖與考而手植云)
- 參議公長子通政大夫金海府使諱愼交葬祖墓下
- 參議公次子贈純忠補祚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錦城君成均進士諱愼中葬平地原之西
- 府使公長子諱敬祖 次子諱敬親 末子諱敬長
- 武科及第敬祖長子成均生員諱巖 巖子石年 石年子震男
- 武科及第敬親長子諱世豪 世豪養子承福 承福子訓道瀚
- 敬親次子諱世俊 世俊子承命 承命子湜

*『국재유집』원문에는 가승 기록이 생략되어 있으나, 나주오씨 최초의 가승으로 가문의 귀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국역 국재유집』에 추가 기록하였다(출처: 금양군 친필 유서).

- 武科及第敬長長子諱世麟 世麟長子季昌 次子起昌
又次子應昌
- 季昌長子澄 次子沆 次子潔
- 起昌長子別監仁祐 次子仁億次子仁豪
- 敬長次子諱世龜 世龜子必昌 必昌子壽祥
- 錦城君子 精忠出氣敵愾功臣 羅城君 嘉善大夫兵曹參判 贈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 贈諡襄平公 諱自治
- 羅城君長子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兼 判義禁府事 羅原君 行通政大夫富平都護府使諱世勳
- 羅原君長子 崇政大夫 錦陽君 謙
- 謙長子通訓大夫 行臨陂縣令 彦厚 次子彦寬
- 羅原君次子 成均進士訥 訥長子彦龍 次子彦虎
- 羅原君末子 通訓大夫行玉果縣監 諶
- 諶長子彦麟 次子彦彪 次子彦仁
- 羅城君次子 禦侮將軍 行忠佐衛副護軍 諱世翊
- 世翊子誠 誠長子敬老 次子敬福

六代以下同姓之人勿拘次序惟婚娶定居此里者追錄于此

- 震男長子淵 次子潛 次子泳 次子洵 次子漑
- 潔長子夢井 次子夢參
- 澄長子夢奎 次子夢星 次子夢得
- 洵子希福

1. 가문의 원조遠祖에 관한 추록追錄

만력萬曆 을해乙亥(1575년), 이 책을 만들 때에는 진사 오숙규 吳淑珪의 후손 중랑장 오언吳偃에 이르는 연대가 너무나도 오래 되고 멀어, 그 사이 조상의 명휘를 알아 볼 길이 없어 항시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는데, 만력 6년(1578) 4월에 정몽호鄭夢虎라는 같은 고을 사람이 자칭 동보同譜를 한 선계先系라면서 오래 된 족보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상고해 보니 오숙규가 정가신鄭可臣의 아버지와 더불어 정보유鄭寶儒의 사위가 되어 있으며, 그 휘는 정송수鄭松壽라 했고, 오숙규의 자子是 오경연吳慶延이요, 그 자子是 오광좌吳光佐라 하여 명휘와 세차世次를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중랑장 언과 예빈시정 계진 양조兩祖는 기록하지 않았고, 그 아래에 무과급제 오신교吳愼交가 김해수金海守를 지냈다고만 했다.

아! 세대가 오래 되다 보니 각기 들은 바대로만 기록을 하여 보譜를 하므로, 제문諸門의 기록한 바가 자세한 보譜와 소략한 보譜가 있어서 그리된 것일까?

중랑장 언 할아버지 이하는 우리 가문에서 자상하게 알고 의심이 없는데, 그 위의 양조兩祖 경연, 광좌는 이 보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니 몹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므로 여기에 추

록해 두는 바이다.

만력 6년 무인(1578) 4월 15일 금양군 錦陽君 겸 謙 서書

[原文]

萬曆乙亥歲成此冊時進士吳淑珪之後至中郎將吳偃其間年代長遠而祖先名諱無從可憑考常多憫然者有之矣萬曆六年四月鄉人鄭夢虎自稱同譜系云袖持久遠族譜以示予予考之則吳淑珪與鄭可臣之考同爲鄭寶儒之婿諱鄭松壽而吳淑珪子吳慶延子吳光佐名諱世次昭然可考矣而中郎將偃禮賓正季眞兩祖又闕遺不錄其下以及第武科吳慎交金海守云云噫世代久遠記其所聞而爲譜諸門所錄互有詳略而然耶然中郎將偃祖以下則吾門所詳知而無疑矣其上兩祖慶延光佐始得因是譜而知之深爲辛喜而追錄于此

萬曆六年戊寅四月十五日 錦陽君 謙 書

2. 나성군羅城君 선조님의 이시애李施愛 반란 평정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세조 정해년(1467)에 이시애가 영북寧北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무과에 급제하여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겸사복兼司僕으로 선임되어 종군하였다.

이시애의 아우 이시합李施合이 길주吉州의 군중에 있었다. 건장한 군사를 택하여 차운혁車云革과 더불어 이시합을 잡아 묶어 오도록 했다. 마침내 시합을 잡아오다가 도중에 말을 몰아 돌진하여 오는 적들에게 차운혁은 잡히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할아버지께서는 급히 달려 되돌아 왔다. 그 후 마침내 시애를 잡아 죽이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차운혁과 함께 이등공신에 올랐고, 다음 해 4월 당상관에 오르고, 7월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으며 나성군에 봉군되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 봉양할 것을 원하여 귀향하시었다가 상을 당하고 거상중居喪中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국재유집』 원문에는 '이시애 반란 평정기'가 누락되어 있으나 정묘보(1747년)에 실려 있는 금양군 소록所錄을 이『국역 국재유집』에 이기移記하였다.

[原文]

李施愛叛亂平定記

惟我祖考當世祖丁亥歲李施愛叛于寧北祖考登第未久
以兼司僕被選從軍施愛之弟施合在吉州軍中擇壯健令
與車云革縛致施合果得捕捉在途爲追騎突至云革被執
死之祖考奔還施愛伏誅與云革同參二等功臣翌年四月
陞堂上七月嘉善封君祖考願歸養下鄉遭憂居憂病卒

*(出處:丁卯譜)

1. 본인 장례에 관한 유서

생각하니 나는 용렬하여 재주도 없고 학덕도 없으며, 관직은 분수를 넘었고 나이 또한 이 숫자(80)에 이르렀으니, 어찌 가히 자신을 일반 사람에게 비교하여 예문禮文을 따라 후하게 예우하는 것을 따르겠는가?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의 자손과 모든 조카들의 의론이 같지 않아 관습에 따르므로 인하여 오히려 검소와 절약에 역행하지 않을까 두려운 까닭에, 이 유서를 작성하여 손수 써서 정녕코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은 모두 다 검소와 절약을 따르도록 힘써 생략하라.

내관內棺과 외관外棺을 제작함에 있어 두껍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얇박하고 조그맣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내관內棺 속에는 단자의복段子衣服¹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염습할 때는 겹옷을 입히고, 다음에는 평상시 입었던 옷을 사용하는데 비단옷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나머지는 화려한 옷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내가 거주했던 집터로부터 분묘墳墓에 이르기까지 멀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의복은 관 속에 가득 채우지 말고 빈 공간만 없게 하는 것이 좋다. 산소에 가는 길은 멀지 않으면서 반드시

1. 단자의복段子衣服: 우리나라 고유의 비단 의복을 말한다.
2. 성복상成服床: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3. 파빈破殯: 발인할 때 관을 집 밖으로 내가기 위해 빈소(관을 놓아두는 곳)를 여는 것.
4. 조전제祖奠祭: 발인 전에 영결을 고하는 제사의식.
5. 견전제遣奠祭: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6. 노제路祭: 발인할 때 노상路上에서 지내는 제사.

시 기울고 파인 데가 없는 곳이 무방할 것이다.

20일 뒤에는 아침과 저녁에 상식을 올리지 말 것이며, 올릴 때에는 제철 과일이 아니면 꼭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제기는 다만 한두 가지의 종류만 사용할 것이며, 가끔 술잔은 바꿔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식을 할 때는 다만 생존 시와 같이 대략 진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상 끝자락을 과실 상(줄)으로 사용하는데 많으면 결코 깨끗하지 않고 낭비일 뿐 흠향하는 데도 유익됨이 없으니 모름지기 간략하게 한 접시만 진설을 하되 높이는 7, 8촌²에 불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줄 제수의 높이는 4, 5촌²으로 할 것이며, 청밀(꿀)은 흑시라도 많으면 깨끗하지 않다. 흑탕黑湯은 깨끗이 제조하여야 할 것이니, 제조하여 사용할 때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성복상成服床²에는 과실 세 접시만 진설할 것이다.

장례식 전에는 초하룻날과 보름날 과실 한 접시만 진설하되 높이는 4, 5촌²을 넘어가지 않은 것이 옳다.

파빈破殯³ 시에는 과실 세 접시만 사용할 것이다.

조전제祖奠祭⁴에는 과실 네 접시를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세속의 관례를 확실히 면하지 못한 것이다.

견전제遣奠祭⁵에는 과실은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장소도 집 문 쪽과 뜰방 좁은 곳은 사용하지 말고, 마땅한 앞 냇가에 진설하여 행사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안장할 장소가 가까우면 노제路祭⁶ 행사는 없어야 한다.

임광전臨壙奠¹에는 과실은 세 접시를 사용할 것이며, 사당 뒤 쪽 흙을 옮겨 올 때도 역시 과실 세 접시를 사용하되 제사에 해당되지 않은 신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꼭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정성껏 거행하여야 한다.

우제虞祭²에는 매번 한 접시를 사용하고, 졸곡卒哭³에는 세 접시를 사용한다.

장례 전에 혹 자식들이 제사를 드린다면 과실 접시는 역시 이와 같이 하라.

대소상大小祥⁴에는 모두 다 세 접시를 사용하고, 담제禫祭⁵에도 세 접시를 사용한다.

상제喪祭에 만일 상화床花⁶를 사용하려면 꿀을 묻혀 제조하지 말고 종이만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아침저녁 상식을 하되 생존 시에 의거하여 밥과 국만 간소하게 진설을 하고, 초하룻날은 혹은 떡을 사용하며 혹은 면을 사용하되 과실은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보름날은 초하룻날에 비교하여 더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여름은 더울 때이니 아침에만 상식을 하되 서늘해진 가을을 한계로 하여 멈추었던 저녁에도 상식을 하여야 한다.

장례를 마친 뒤 제주題主가 끝나면 곧바로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夫人 신주와 하나의 독櫥에 함께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데, 밥과 국은 두 그릇을 쓰고 국수와 떡은 하나의 탁자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장례 뒤 봄과 가을(음 2월, 8월)에 시사時祀⁷를 거행할 때 평상시 제사에 비교하여 간략하게 진설하여야 한다.

시묘막 생활은 하지 말고 오직 초하루 보름 제사를 모신 뒤

1. 임광전臨壙奠: 하관을 마치고 모시는 제사.

2. 우제虞祭: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초우는 장사를 지낸 후 첫 번째 지내는 제사. 즉 혼령을 위안하기 위한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재우는 장사를 지낸 후 두 번째 지내는 제사. 초우제를 지낸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삼우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3. 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4. 대소상大小祥: 대상大祥과 소상小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5. 담제禫祭: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다음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부자가 생존한 어머니상이나 아내상의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낸다.

6. 상화床花: 잔칫상이나 전물상에 꽂는 조화.

7. 시사時祀: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가묘에 지내는 제사.

1. 재암齋庵: 자손들이 모여 재계하던 건물.
2. 제사齋舍: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나 사묘祠廟 옆에 지은 집.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자손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곳이라 하여 재숙소齋宿所라고도 한다.
3. 명기明器: 무덤에 부장副葬하기 위하여 만든 토기나 자기 등의 기물器物.

혹시라도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때에는 조부까지 두 분의 봉분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옳다.

재암齋庵¹은 산골짜기에 있는데 네 번이나 관리인의 집이 단절되었다.

나성군羅城君께서 돌아가신 지 3년 안에 또한 도적들의 방화를 만났고, 그 뒤 누차 환란을 겪었으니 앞뒤 모두 계산을 하면 제사齋舍²가 세 번이나 화재를 만난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음이 임박하자 어머니의 사후死後 일처리는 말씀을 하셨고, 아들로 하여금 거주하면서 분묘를 수호하라는 당부는 하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이 받들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

부인夫人께서 죽자 장지를 구하지 못하고 조부모님 묘소 뒤쪽에 안장을 하였는데, 비록 뒤쪽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미안하다는 마음이 깊어 묘 앞에 석물을 놓고 크게 세우지 말고 간략하게 낮고 조그맣게 하여야 한다.

장례 때 명기明器³ 등은 대략 그 수효를 구비할 것이고, 소주·곡주·포·제찬·곡물 등과 약밥은 여러 번에 걸쳐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 나무로 깎은 노비와 말, 교자 등을 조그마한 형체로 만들고 항상 착용한 망건 하나와 신발 등을 내관內棺과 외곽外槨 사이에 넣어 둔 것이 옳다. 부인의 장례 때 많은 것을 빠트린 것이 항상 아쉬웠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한 것이다.

[原文]

念余薄劣無才無德而官職踰分年亦至此豈可自比平人從禮文從厚爲之乎顧惟子孫諸姪之類議論不齊恐因循於習不能從儉約故爲遺書手自寫成以示丁寧不可違之意

身後喪事皆從儉約務爲省略

治棺與槨勿求厚美寧薄劣無妨棺中勿用段子衣服惟襲時表衣次衣用平時所着者雖段子無妨其餘勿多用華美之衣可也又自所居家至墳山不遠衣服勿用填塞充滿纔令勿空虛而已可矣

山路不遠必無傾側空虛無妨兩旬之後勿爲朝夕奠奠時非適實果之節則不須備器只用一二種或只改酒盞可也

朝夕上食只依生時畧設爲可○以末爲果床多則必不潔費以無益於亨須畧設一牒高者不過七八寸次者只四五寸清蜜或多不潔精造黑湯而造用凡常時祭用亦如是焉可也成服床果三坐○葬前朔望只一坐高不得過四五寸可也○破殯只三坐○祖奠四坐 此亦未能免俗○遣奠則勿用果牒家門庭擇宜於前川邊設行似可○葬所近無路奠○臨壙奠果三坐祠后土亦三坐勿以祀外神而褻慢須擇可當人虔誠行之○虞祭每一坐○卒哭三坐○葬前或子息等致奠則果牒亦如此○大小祥皆三坐○禫祭三坐○喪祭若用床花勿蠟造只可用紙造爲之○葬後則朝夕上食依生時畧設飯羹朔日或用餅或用麵勿用果牒望日比朔日加從畧夏熱時只朝上食而限秋涼停夕上食○葬後題主畢行卽返魂于家與夫人神主同一櫝而祭之飯羹

用兩麵餅兼一卓可也○葬後則春秋仲月行時祀比常時略設爲之○勿廬墓惟朔望祭後或時往省山所仍環審祖父兩墳可也齋庵在山谷四絕人家羅城君三年內亦遭賊火其後屢經患前後計齋舍三遭焚蕩先大夫臨終告先妣身後勿令子息居守墳云云爾等當奉而行之○夫人之歿不得葬地葬于祖父母墓後雖云後矣而亦深末安墓前石物勿令高大略用低小可也○葬時明器之屬略具其數如燒酒粘酒脯饌穀物等及藥飯備數爲之可也又如木婢木奴木馬木轎僅成形體造作爲之常着網巾一件與屨等入于內外棺之間可也常恨夫人之葬多闕焉故言之

2. 불사佛事¹를 하지 마라

내가 감히 스스로 이단異端²을 억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를 언급한 것은, 일찍이 신라 사람 정규가 죽을 시간이 임박하자 자손들에게 경계하는 글을 남겼다. 그 글에 이르기를, “천당과 지옥의 다른 것과 선善과 악惡의 응보에 있어 과연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냐. 기필코 사심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나의 일평생 해온 바가 저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는데, 어찌 너희들이 재물 따위를 따라 그들의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그 이치가 분명하고 말씀이 간절한 것에 매우 감복한 것이다. 너희들의 식견이 비록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못하니 당분간 나의 이 말을 따르고, 나의 훈계하는 설명을 이어 받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불사佛事: 스님을 불려와 염불하는 일.

2. 이단異端: 공자公子의 학설과 다른 학설을 이룸.

[原文]

勿作佛事

余非敢自擬於抑異端之人而爲是言也嘗見新羅人鄭規臨卒戒子孫書曰堂獄之殊善惡之報果有主者必無私心矧予平日之所爲不悅於彼豈汝一時之追賄得行其間乎予甚服其理明而語切汝等見識雖未及此姑從斯言承予訓說可也

3. 무당을 불러와 제사 등을 하지 마라

무릇 제사를 모시는 도리道理는 정결하고 조용한데 있는 것인데, 무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떠돌고 혼잡하며 비루한 짓이 극極에 달한다. 이래서야 어찌 올바른 영혼께서 흠향을 하시겠는가?

더구나 외람되게 생을 탐하는 것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인데도 불쌍하게 죽었다는 말을 하여 죽은 영혼을 모셔야 한다는 뜻으로, 무사巫祀를 한다는 소문이 어리석은 부류의 시청자들에게 전파되고, 그 소문이 대장부의 마음까지도 흔들려 오염되게 하여 선령님에게까지도 부끄럽고 욕되게 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내가 남긴 소원을 지켜 아들 딸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사는 하지 말도록 하면 다행이겠다.

[原文]

勿作巫祀

凡祭祀之道在於潔淨精專而巫覡之徒喧囂冗雜鄙褻極矣此豈正鬼之所爲歆者乎況猥爲悲嗟貪生愍死之語而侍亡靈之意播聞於蚩蚩觀聽之類其爲慢瀆丈夫之心以羞辱於先靈至矣爾等守予遺願幸勿令兒女輩爲此設也

4. 풍수지리설에 따라 묘지를 선택하지 마라

풍수지리설에 따라 묘지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선현先賢들의 말씀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지리地理의 설명에 유혹되어 혹은 오래된 묘소를 옮겨야 한다고 과묘를 하여 다른 묘역으로 옮겨가기까지 한다. 이는 이익된 것이 없고, 도리어 재화를 받은 경우가 많아 매우 불가하니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原文]

風水擇地之說先賢言之備矣世俗惑於地理之說或至遷發久遠之塋移就他兆無所補益反致禍患者多矣甚不可也宜戒之

5. 나라에 시호諡號를 신청하거나 묘비를 세우지 마라

1. 시호諡號: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나라에서 붙인 이름.

나는 일평생 가히 기록할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마땅히 시호¹를 주청하지 말고, 묘비와 묘갈도 세우지 말 것이며, 간략하게 준례에 따라 표석이나 세우면 충분하다.

그 표석에 쓰기를 “송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 판의금부사 춘추관사 금양군 오 모某(겸謙)의 묘(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 知經筵 判義禁府事 春秋館事 錦陽君 吳某之墓)라고 기록하는 것도 역시 크게 분수에 넘치리라.

[原文]

余於平生無一可記者宜勿請諡勿設碑碣略依例立標石足矣題云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判義禁府事春秋館事錦陽君吳某之墓云亦大踰分矣

6. 제례祭禮에 관한 유기

내가 향리의 풍속을 보건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정성껏 목욕재계를 한 후 선조님께 제사를 모시는 일에 뜻이 없다.

젊은이들이 향촌에 살면서 보는 것이 이와 같다면, 마침내 이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편안히 여기며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깊이 통탄할 만한 것이니 모름지기 제례에 따라 재계하고 깨끗이 하여 정성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제물은 비록 제사를 모시고 남은 것이라도 또한 신중히 간직하고, 제사 전에 어린애들과 고양이나 개 등에게 먼저 먹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며, 밥과 국은 요리법에 따라 불로 익히고 짭맛과 담담한 맛이 알맞게 하여 먼저 맛을 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 이를 어겨 선령님께서 흠향하시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마을 풍속은 조부와 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오면 통지문을 보내어 손님을 초청하고, 술이며 음식과 두부를 절집에서 준비하여 진설을 하고, 먼저 부처에게 제사를 올리고 다음엔 스님들이 밥을 먹고, 그 다음 부처 탁상 아래서 기제사를 거행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본받지 말지어다.

항시 선조님의 제사를 받들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장차 시제時祭를 모실 일이 다가오

먼 제사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 쏟아야 하며, 기제忌祭를 모실 때는 제사 하루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 쏟아 다음날 새벽에 제수를 익혀 동이 틀 무렵 진설을 하여 제사를 거행하는데 태만하고 말이나 행동이 가볍고 소홀이 하면 아니 된다.

자손들은 마땅히 참제를 하여야 하는데 혹시라도 목욕재계를 하지 않은 사람과 늦게 도착하는 사람을 제사가 늦어지더라도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 또한 당연하므로, 문 밖에서 머물러 있다가 제사를 마치고 철상撤床한 뒤 남아 있는 제물로써 참제했던 분들과 함께 술잔을 돌려 마시되 취해 주정하도록 마시지 말고, 그때까지도 선조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하여야 한다.

발인 하루 전에 호남 고을 풍속은 관을 방 밖에 모시고 반드시 제상에 과실을 높이 진설하여 신위 앞에 올린다.

또 조문객을 접대할 음식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찾아온 조문객에게 대접하는 것은 철야를 하기 위함이다.

손님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면 주인의 자제들은 손님을 접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손님들과 더불어 절제하는 마음 없이 마시다가 취하여 흉상凶喪 집에 어긋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혹 가난한 사람은 이로 인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어 장사지낼 시기를 천연하여 만 2년이 되는 무렵까지 장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대단히 옳지 않다.

만일 마을에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은 형세에 맞추어 간소하게 밥과 국을 준비하여 접대하는 것으로 멈추어야지 어찌 지나치게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어야만 잘 대접한 것이

라고 할 것인가? 이는 마땅히 입법을 하여 금지하고 근절할 일
이니, 풍속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부당할 때도 있다.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 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마땅
히 병을 고쳐야 할 것이니, 간소하게 제사를 모시고 남은 술과
음식으로 추위도 방어하고 질병도 치료하는 것이 옳다.

조전祖奠 제상이라고 하여 높고 크게 하여 남들로 하여금 아
름답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이전과 같이 진설하여야 한다. 담
제禫祭를 모신 뒤 그 달이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역시 손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原文]

余見鄉俗無學之人無意致齋享先之事子弟輩居鄉村所
見如此遂以爲常恬不爲恠深可痛恨須依禮齋潔致誠凡
祭物雖祭餘殘亦謹慎蓋藏祭前切不可使兒輩猫犬之屬
先啗食之飯羹依法炊熟醢淡之宜勿令先嘗之有妨先靈
之歆享可也鄉俗於祖禩忌諱日回文請客備酒食與泡於
僧寺設行先亨佛次飯僧次乃行忌祭于佛卓之下大不可
也切勿效之常於奉先祭祀致意致誠不敢少忽當將祭時
事先期三日致齋忌祭先一日致齋翌曉熟設平明設行祭
不可怠忽子孫宜當叅祭者或不齋戒之人及晚到者不可
俟以致晚亦當姑留于外撤祭後以餽退之物共叅時祭則
以酒巡行勿令至醉酺以餘敬之猶存也

發柩前一日南鄉之俗出柩于外必爲高大果床以奠神位
前又多設餉客之具以餉來客謂之徹夜賓客聚飲主人子
弟以待之相與恣飲醉非徒有乖於凶喪或有貧乏之人因
此不能措辦而遷延葬期以迄再葬有未葬者大不可也若
鄉中遠來之客勢當略設飯羹以饋之而已豈宜恣爲酒醪
酣飲醉飽爲乎此宜立法禁絕之事不當因循俗習而行之
者若冬寒之節羸病之人要當調病者略以奠餘酒饌以禦
寒調病則可矣祖奠祭床勿用高大以觀美于人已陳於前
矣禪祭後盡其月亦勿特請客宴飲以樂之爲可矣

7. 제사를 모시는 몇몇한 의식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대부大夫에게 전답이 있으면 제사를 모시고, 전답이 없으면 간소한 제물만 올린다”고 하였다.

전답이 없다는 것은 관록이 없다는 것이니 일반 사람들은 봄에는 부추를 올리고, 여름에는 보리쌀을 올리며, 가을에는 기장을 올리고, 겨울에는 벼쌀을 올린다.

일반 사람이란 관록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보씨輔氏가 말씀하기를, “이것은 옛 제왕들이 정한 제도이니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 능히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어찌 할 수 없어 제사를 받들지 못한 처지에 이른다면, 사람들은 역시 그를 위해 위로한다고 하였으니 옛 분들은 제사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았다.

또 말씀하기를, “아들이 선비(士)라면 선비 처지에서 제사를 받들어야 하니, 선비는 역시 관록이 없다는 호칭이다. 아들이 대부大夫가 되었다면 대부의 처지에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일찍이 대부가 되었고 지금은 늙어 고향에 돌아왔다.

우리 고을(당시 나주)은 비록 바닷가라고 말하지만 나의 집에서는 거리가 멀어 여름철에는 싱싱한 해물을 얻기가 어렵다. 더구나 너희들은 나의 시대와 비교를 한다면 기필코 생선을 구

1. 중월 仲月 : 봄·여름·가을·겨울에서 가운데 달들을 두루 이르는 말, 곧 음력 2월·5월·8월·11월 등. 중삭 仲朔.

* 금양군 선조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전답은 나성군 선조님이 나라에서 받은 공신전功臣田은 제외한 것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조님의 제사를 이어 받아 물려주신 사유재산私有財産을 우리 형제들이 나누었을 당시 논은 10두락 뿐이고 밭 역시 6두락 뿐이었다. 물려 받은 사유재산이 전무全無한 조부모님 때와 비교한다면 그나마 차이가 엄청난다. 내가 1품의 녹봉을 받는데 어찌 더 늘어나 풍요롭기를 바라겠는가?

너희들은 기필코 제물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4계절 중 월仲月¹의 제사에는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물건으로 억지로 제찬을 채운다면 더욱 온당하지 않다. 이 상황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한탄스런 마음이었기에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 제사 법식에 이르기를, 5월에는 새 보리로 밥을 짓고 술을 빙어 예주醴酒를 만들 것이며, 그 때 익은 앵두와 은행과 새 채소, 어물 등으로 제상에 올릴 것이다. 8월에는 새 쌀로 밥을 짓고 떡을 찌며 술을 빙는데, 술은 역시 백미를 사용한 것이 좋다. 수박과 대추·밤 등과 어린 꿩과 닭고기로 탕과 전을 만들어 올리는데 모두 다 꼭 깨끗하게 정성을 쏟아 올려야 하고, 많이 준비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은 많으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겨울 동짓달과 봄 2월에는 해물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도 구입할 것이고, 건어포와 젓갈·국수·떡(밀가루떡) 등을 갖추어 시사時祀를 거행할 것이다.

제사를 마친 뒤 제사에 참여한 친척들과 모여 음복飲福을 하는데, 다만 남아 있는 음식을 사용할 뿐 더 많은 술과 고기를 준비하려고 낭비하지 말지어다.

오직 마땅히 제사를 정결하게 모시는데 마음을 다 쏟을 것이요, 그 밖에 술과 음식을 풍부하게 차리는데 힘쓰지 말고 선조

님 제사를 받드는데 오로지 정성을 쏟을 것이고, 또한 음악을 올리며 취하여 주정을 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을 오히려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5월에는 보리쌀 음식을 올리고, 계절이 8월이 되면 쌀 음식과 그 때 생산된 새 제물을 올리는데, 만일 혹시라도 구하려다 얻지 못한 것이 많다면 역시 한두 가지만 올리면 된다. 비록 골고루 갖추지 못하고 소박하더라도 또한 제사에 올려 써야 하며, 준비한 것이 하위下位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여 폐기하고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는 하늘의 기후 조건으로 말미암은 관계로 그리 되는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찌 할 것인가?

또 초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를 때 운아雲亞¹와 방상씨方相氏² 등은 예문에도 기재되어 있건만 지방 풍속에서는 의미 없이 사용을 한다. 친절한 벗과 친족들이 혹은 애도사·만사挽詞를 지어 보내오면 발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옳다. 시골 보통 사람들이 만사가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여겨 구차하게 이를 조작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초상이 난 지 3년 동안은 계절마다 생산된 물건으로 새 것을 제상에 올리는 것이 좋고, 어육魚肉 또한 진설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구차하게 억지로 구득求得하여 진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 제의祭儀에서는 기제엔 소찬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 까닭에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다.

또 장사할 때에는 황토와 세사細沙로 견고히 쌓아야 할 것이며, 석회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지만, 만일 장지에 습기가 없다면 숯으로 간격을 매우는 것 역시 하지 않는 것

1.운아雲亞:부채.

2.방상씨方相氏:악귀를 쫓는 탈.

1. 정릉靖陵: 조선 11대 중종中宗의 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선릉宣陵의 동쪽에 있어 같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 유우柳藕: 김굉필金宏弼에게 사사하여 열심히 학문을 닦았으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스승 김굉필이 극형을 받은 뒤, 모친이 병석에 눕게 되자 의술을 연구하여 손수 약을 지어 공양하였다. 서화書畵는 물론 천문·음률·복서卜筮·의술에 뛰어났고, 특히 주역에 통달하여 이름이 났으며, 벼슬 길에는 나가지 않고, 오직 후진 양성에 힘써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3. 이극배李克培: 조선 전기의 문신. 세조가 즉위 후 좌익공신 3등으로 광릉군에 봉해졌다. 성종 때 영의정에 올라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해졌다. 기로소耆老所에 들었고 제장을 하사받았다.

4. 이극감李克堪: 조선 전기의 문신. 세조 즉위 후 좌익공신 3등으로 광성군에 봉해졌다. 신숙주申叔舟 등과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수찬하고, 이듬해 좌승지로 있을 때 『치평요람治平要覽』과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수교 간행했다. 1461년 왕명을 받아 신숙주와 함께 『북정록北征錄』을 찬진했다.

이 옳다.

이슬 기운이 쌓여 습지가 되었다는 폐단으로 정릉靖陵¹을 옮겨야 하는 날을 알았다는 신기申起의 말처럼, 외곽外郭 아래 대나무를 사용하여 물을 인도하는 수통을 만들고, 그 아래쪽을 말(斗) 모양 같은 구덩이를 뚫어 물 기운을 인도한다면 좋을 것 같다.

상제喪制를 지키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질병이 있다면 마땅히 병세가 더 깊어가고 위중해진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때 모름지기 먼저 계획을 논의하여 임시 방법을 따를 것이요, 고집을 부려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치료가 어려워지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우리 집이 있는 마을에 유우柳藕²라는 어른은 도학이 있는 분이다. 어머니 초상에 상주를 하다가 질병을 얻어 스스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시방편의 생활을 하여 병세가 나아져 다시 소식素食을 하면서 상제喪制 기간을 마쳤다.

또 일찍이 정승 이극배李克培³는 나이 60세에 아버지 상을 만났는데, 병세가 있자 곧바로 노비가 사는 마을 집으로 내려와 육식을 하고 병이 나은 뒤 시묘막으로 돌아왔다. 그 아우 극감⁴은 나이가 젊다는 것을 믿고 계속 소식을 하다가 병세가 위독해져 결국 3년상을 마치지 못하고 삶을 마쳤다.

대체적으로 인간이란 50세 뒤에는 혈기가 쇠퇴하는 것이고, 나이 아직 어려 성장하지 못했을 때 소식을 하다가 몸이 수척해져 마침내 치료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이는 결코 아버지께 효도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나의 집안 종통을 이어갈 사람들은 한두 세대 이어오

다가 사손(嗣孫)이 끊어지는데, 이에 이르지 않게 된다면 다행이겠다. 더더욱 마땅히 이러한 사례들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이 뜻에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原文]

祭祀恒式

禮記曰大夫有田則祭無田則薦無田云者無官祿庶人春薦韭夏薦麥秋薦黍冬薦稻庶人指無官祿者云輔氏曰此先王之制也必如是然後能自盡其心至於不得奉祭祀則人亦以爲吊焉古人重祭祀也如此又曰子爲士則祭以士亦無官祿之稱爲大夫則祭以大夫云吾則曾爲大夫矣而今老還鄉吾州雖云海邊與家相遠夏月則海物得鮮爲難況汝等比吾時必不能及父母承重衿吾兄弟分衿時畚只十斗田亦六斗比祖父母時全無衿則差勝而吾時受一品祿豈可求益乎汝等必難備四仲月之祭以腐朽臭惡之物苟充祭饌則尤爲不當恒念此等心常爲歎用是爲說爾等爲祭祀規式云五月則以新麥飯釀新麥爲醴其時新熟櫻桃杏等新產蘇魚真魚等以薦之八月則以新稻米餅食釀酒酒則亦用陳白米好西苳棗栗等兒雉軟鷄爲湯炙薦之皆須潔誠致意爲薦不要務多不精也至於冬仲月春仲月則雖貿諸海所場市猶可得新鮮魚肉方可備脯醢麵餅以行時事祭後與叅祭之戚屬爲飲福之會只用餽餘而已亦勿費煩酒肉而惟當專心致潔於祭祀而勿爲外務豐腆酒

食以專心奉先祭祀之誠亦勿作樂醉酗以餘敬之猶存也
凡於五月薦麥時及八月薦稻時新物如或得之不能多則
亦可薦於一二位雖未能遍及下位亦用薦於祭時不可以
未及下位而止不薦也此由天候所關而非人力所及何又
如喪葬時若髮扇及方相氏等禮文所載而鄉俗無意爲之
若親朋與族親或爲哀挽詞以送則可用之於發引可矣鄉
中常庶之人苟爲造作若不可闕甚不可者喪三年內節物
可薦新者雖魚肉亦可設之無妨但勿苟爲求覓以設之可
也本朝儀忌祭用素饌云故特言之耳又如葬時只以黃土
細沙堅築葬之如石灰不用無妨若葬地無濕氣則炭隔亦
不用可也露氣積而爲濕之弊遷靖陵日知之若如申起所
言槨下以竹爲導水筒下穿容斗坎以引水氣則似可矣
守喪之人不幸有病則當於未至深重時須先討議從權不
當固執以至難治也難治則不及救矣京家洞閨柳丈藕有
道人也居母喪得病乃自行權病愈復素乃得終制嘗李政
丞克培六十遭喪有病則輒下奴家村舍進肉病愈後還廬
所其弟克堪公恃年壯仍行素病劇不得終喪而卒蓋五十
後血氣向衰之人及幼稚未及成壯者因仍行素以致毀傷
終不及救療而死者多矣殆非所以孝親也況余家嗣續之
人只以一二相續其不至絕嗣者幸矣尤當以此爲戒不當
有所忽於斯焉

8. 아들과 조카들에게 남긴 훈계訓戒

나는 범질范質¹의 조카들을 경계하는, 즉 계질시戒姪詩를 읽었다.

그 내용에 이르기를 “너희들을 경계하노니, 너희들이 학업을 닦아 출세하려거든 먼저 효도와 공경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화열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른을 받드는 일에 감히 교만하여 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자朱子는 이 말을 『소학小學』에 기록하여 뒷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도록 하였다. 내 일찍이 이 말 전편을 써서 벽면에 붙여두고 자손들에게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건만 조카들은 배우지 않는 자가 많았으며, 연관彦寬 역시 나이가 어리니 그 누가 확실하게 나 죽은 뒤의 바람을 마음속에 새겨두겠는가.

너희들은 모름지기 나의 회포를 체득하여 모든 존장尊丈을 받들면서 감히 교만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이며, 마을에서 일체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비록 한두 살이 많더라도 그들 모두에게 당연히 공손하고 사양하여 감히 우선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 비록 한미한 사람일지라도 길을 양보하고 앉기를 사양하며 아래 자리에 앉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실이 될 것이다.

1. 범질范質: 오대五代 말기 북송시대 사람으로 관직은 시중 등 재상에 오르고, 『남교주례도南郊周禮圖』를 만들어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다. 평생을 청렴하고 당당한 자세로 살아 궤증饋贈은 일체 받지 않았다. 조카들에게 남긴 계질시戒姪詩가 『소학小學』에 실려 있어 후세에 더욱 유명해졌다.

[原文]

余讀范公質戒姪詩云戒爾學立身莫若先孝悌怡怡奉親
長不敢生驕易朱子錄之于小學書以爲後人矜式余嘗書
全篇付壁以勸子孫而諸姪多不學彥寬亦年稚誰肯留心
吾身後望子輩須體念余懷凡奉尊丈不敢驕易於鄉黨一
切以齒長尊敬雖長一二年皆當遜讓不敢先雖微微之人
讓路讓坐勿憚坐下坐爲可

【제3장】

부록
附錄



1. 종손 도암 희길 소기從孫韜庵希吉所記

공公의 이름은 겸謙이고, 자字는 경부敬夫요, 호는 국재菊齋이며, 벼슬은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춘추관사 세자빈객 겸 판의금부사 도총부 도총관 금양군이다. 융경 신미년(1571) 여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시호 정간공은 선조님 사후 166년이 지난 영조 24년 1748년에 주어졌다).

공께서 경오庚午(1570)년 가을에 질병을 빙자하여 휴가를 얻어 나주에 돌아와 다시 벼슬에 뜻이 있지 않았던 까닭에 취임하지 않으셨다.

이 때 사헌부司憲府에서 공을 방해하려는 자가 있어 탄핵을 아뢰는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공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께서 다시 정권을 잡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공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청소년 시절에 책을 읽던 어느 날 어두운 밤에 홀연히 ‘인간이라면 반드시 책을 읽고 문장력이 능숙해진 뒤에야 인간답게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그 때의 내 나이를 계산하니 14세이다. 그 때 그 밤에 읽었던 책을 생각해보니 『사략史略』 두 권 뿐이었다. 부끄럽고 후회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읽었던 두 권의 책을 열람해보니, 예전에 읽었던 글은 모두 다 잊어

버렸었다.

그리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첫 권부터 제 3권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각각 3회를 읽은 결과 상당 부분 문리文理가 해석되었다. 제 4권부터는 비록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아 읽었지만, 하루에 4~5쪽 혹은 8~9쪽 설명을 주시기도 하였는데,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곧바로 환하게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과거 급제를 목표로 삼고,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 이르러서는 다만 원문原文 머리글과 각장 머리글의 각 구절을 차례로 첩책帖冊 위쪽에 줄잡아 써서 그 첩책을 가지고 읽으며 익혔다. 남평현감으로 근무할 때 동당東堂 초시에 합격을 하고 바야흐로 강경講經¹ 공부를 하는데, 때마침 영광군에 살인범을 함께 추국推鞠하기 위해 경차관敬差官²을 만나고자 오고가도 할 때 매번 말(馬)에 올라앉은 즉시 『중용』과 『대학』을 외우다가 잊은 구절이 있으면 수첩을 꺼내어 참고를 하였다. 만일 도중에 벼슬 만나 외우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말을 길에 세워놓고 외우기를 마친 뒤 관아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용』과 『대학』 두 책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외워 강경講經에 응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께서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동당중장東堂中場³을 준비하는 공부를 할 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부東賦를 읽고 식사 후에는 부賦 한 편씩 짓기를 정월 초부터 3월 그믐에 이르러서야 멈추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쉽지 않았는데 글솜씨가 숙달되는 경지에 이른 뒤에는 편지 한 장 끝낸 것과 같았다”고 하셨다.

1. 강경講經: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외우는 것.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는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말하며, 삼경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을 이른다.

2. 경차관敬差官: 사건 처리를 위해 지방에 임시로 보낸 관원.

3. 동당중장東堂中場: 두 번째 치른 과거시험장.

* 도암공館庵公: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휘는 희길希吉, 자는 길지吉之, 호는 도암館庵이다. 금양군 오겸吳謙의 아우인 서윤공庶尹公 오원吳諤의 손자이다. 김인후金麟厚·기효간奇孝謙의 문하에서 수학.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 경기전慶基殿 참봉으로 태조의 영정影幀과 역대 의 실록을 내장산에 옮겨 봉안한 공적으로 위성공신衛聖功臣에 녹훈되었다. 전란으로 다른 사고史庫의 실록은 모두 없어졌으나 전주사고의 것이 보존됨으로써 재간할 수 있게 한 공로가 크다. 사근도찰방을 거쳐 태인현감에 이르렀다. 저서에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 『명대의明大義』 등이 있다. 고창 금암사에 봉향.

1. 한퇴지韓退之: 중국 당나라 때의 학자, 사상가, 정치인으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본명은 한유韓愈이다.

2. 소동파蘇東坡: 중국 송나라 때 대시인으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 정치가, 행정가로 「적벽부赤壁賦」가 유명하며, 본명은 소식蘇軾이다.

공께서 책을 읽으실 때 주로 한퇴지韓退之¹ 글과 소동파蘇東坡² 글을 읽은 뒤에 급제에 올랐다는 말씀이다.

나이 19세에 아버지 상을 만났는데 상중喪中에 책을 읽다가 비위가 좋지 않은 병을 얻어 비로소 기운을 건강하게 보충하는 방도를 알았다. 양생養生하는 책에서 많은 것을 열람하여 중요한 것만 뽑아내어 하나의 책으로 저술하고, 이름 하여 『이생집頤生集』이라 하였다.

한강寒江 정구鄭逑가 일찍이 빌려갔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만나 그 본책을 잃어버렸다. 한강 집에 등사한 책이 있다가에 불초 희길希吉이 그 책을 돌려받아 공의 아들 언관에게 주었는데, 언관이 또 정세미에게 빌려주어 찾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잃어버렸다.

공께서 어렸을 때 서봉西峰 유우柳藕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때 유 선생이 말씀하기를, “오 모某(謙)는 도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어숙권의 『패관잡기稗官雜記』에서 “오(겸) 정승이 백노파白老坡처럼 금성錦城으로 물러가셨다”고 하였으니, 오 는 곧 금양군이고, 백은 곧 백지사白知事 인걸仁傑이다.

[原文]

公諱謙字敬夫行崇政大夫左贊成兼知 經筵春秋館事 世子賓客兼判義禁府事都摠府都摠管錦陽君 隆慶辛未夏拜右議政不爲行公(贈諡貞簡公)

公庚午秋已謝病乞暇歸羅州無復有仕宦意故不就而時憲府有欲害公者至有彈奏不知公心恐復秉政也

公嘗曰吾少時讀書一日暗夜忽然思之人必讀書能文然後可以爲人而今計吾年則十四歲也思其所讀則乃史略二卷也不勝慚悔翌朝卽閱所讀二卷舊書則盡忘之矣於是改心惕慮自初卷至第三卷循環讀之各得三巡則頗解文理自四卷雖受讀於師而日授四五板或八九板一番口授便自曉然矣云

又曰吾自少以科第爲志至如庸學只將大文書頭及各章書頭節節列書上于帖冊持讀習矣宰南平時中東堂初試方爲講經工夫時適爲靈光殺人同推逢差往來時每騰馬卽誦庸學如有忘則出帖而考之道中若逢友未畢則立誦畢入官故庸學不一日坐誦而應講矣又曰嘗爲東堂中場工夫每日早起讀東賦自食後作一首賦自正月初至三月晦乃止當初作之不易至手熟後如寫簡了矣公讀書主讀韓文及東坡文後登第云

年十九遭外艱喪中讀書得脾胃證始知頤養慎氣之道多閱養生之書仍抄著一篇名曰頤生集鄭寒江述嘗借去適遭壬辰兵禍失其本冊寒江家有抄謄冊不肖希吉推給公子彦寬彦寬又借於鄭世美不推回以永失公少受學於柳西峰藕柳言吳某有道之人也魚叔權稗官雜記曰吳退錦城如白老坡吳卽錦陽君白卽白知事仁傑也(出於從孫 希吉手記)

2. 문회연文會宴

1. 문회연文會宴: 이문회우
以文會友라는 뜻으로,
문사文士들과 모여 벌이
는 잔치.

2. 유몽인柳夢寅: 조선 중
기 문신. 호는 어우당於
于堂. 시문詩文과 『어우
야담於于野談』이 있다.

3. 이청련李靑蓮: 이후백李
後白(1520~1578)의 호.
조선 중기의 문신. 자 계
진季眞. 시호 문청文淸.
16세 때 향시鄉試에 장
원, 1546년(명종 1) 사마
시를 거쳐 1555년 식년
문과에 급제. 대사간, 이
조판서, 호조판서 등에
이르렀다. 인성왕후 복
상문제 때 만 2년상을 주
장, 실행하게 했다. 청백
리에 녹선,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2등, 연
양군에 추봉되었다. 저
서 『청련집』이 있다.

문회연文會宴¹에서 거행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유몽인柳夢寅²
의 야화野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상신故相臣 오겸께서 광주목사가 되었을 때에 고봉高峯 기
대승奇大升과 청련靑蓮³ 이후백李後白은 두 분 모두 호남에서 거
주하고 있는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졌다.

오겸께서 기특한 모임에 선비들을 초청하고자 하여 미리 고
을 아전들에게 지시하였다. 기녀들의 색동옷과 화려한 단장을
한결같이 새롭게 하여 성대하게 베푼 잔치는 훌륭한 볼거리를
갖추었고, 초청을 받은 기고봉과 이청련 두 분께서 동시에 도
착하였으며, 술이 반쯤 취하자 오겸께서 술잔을 잡고 말씀하기
를, “오늘 두 그대들을 초청한 것은 한자리에서 한가로이 담화
하고 쌓인 정을 풀며 술을 누가 더 잘 마시는가를 비교하는 것
에 멈추려는 것이 아니므로 바라건대 그대들은 사양함이 없었
으면 한다”고 하셨다.

기고봉이 즉석에서 어린 기생에게 명하여 먹을 갈고 화선
지를 펴라 하더니, 칠언사율七言四律 여덟 줄을 붓으로 써내려
가면서 점 하나 더 찍지 않고 흔들여 간 붓끝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청련 또한 화선지를 겹겹이 쌓아 놓고 어깨를 펴고 붓을 힘차게 휘둘러 교방敎坊에 있는 기생 80여 명에게 장편長篇과 단편短篇, 율시律詩와 고시古詩 등에 뜻을 담아 써서 그들에게 주어 각기 모두가 기쁨을 만끽하고 연회를 끝냈다.

또 그 다음날 오점은 화선지 등 모든 도구를 치우게 하시고 별도의 건물에 간단한 술자리를 준비해 놓고, 또 두 선비를 초청하여 약간 술기가 취한 듯하자 말씀하시기를, “어제 두 그대들을 시새움하듯 한시 솜씨를 상쾌히 보았네. 오늘은 천만년 역사 속에 각자 지금까지 보고 기억난 것들을 상세히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고 하셨다.

이청련은 강목綱目¹ 내용에 가장 익숙하여 표나게 드러난 구절들은 제외하고, 그 밖에 150책 가운데 미세한 글귀에 이르기까지 입으로 설명하며 외우지 못한 것이 없었다.

기고봉 또한 강목 가운데 이청련이 어렵게 설명한 것에 대해 그 본전本傳의 유래까지 들어 언급하고, 여러 학자들의 크고 작은 해설까지도 두루 통달하여 어려운 것까지도 온전히 외우는데, 혹은 전편을 혹은 수십항 문자를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목전目前에 벌려 놓은 듯하니, 오점께서 자리를 떠나실 때 말씀하시기를, “어제 논쟁에서는 계진季眞²이 명언明彦³을 확실히 이겼고, 오늘의 논쟁에서는 명언이 계진을 확실히 이겼다”고 하셨으니, 이번 2일간의 모임은 참으로 선비들의 더할 수 없는 성대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 비록 진나라 동정호洞庭湖⁴에서 있었던 균천광악鈞天廣樂⁵이라는 음악과 월전月殿⁶에서 들려온 예상우의霓裳羽衣⁷라는 노래 곡조도 광주의 이날 잔치보다 아름다운 의미가 더 많지 않았으리라.

1. 강목綱目: 송나라 주희 朱熹가 쓴 중국의 역사서이다.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의 별칭. 강목과 목目으로 나누는 서술방식인 강목체綱目體는 성리학적인 도덕적 평가를 서술의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후 우리 나라의 역사 서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계진季眞: 청련 이후백의 자.

3. 명언明彦: 고봉 기대승의 자.

4. 동정호洞庭湖: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호수.

5. 균천광악鈞天廣樂: 중국의 궁중 음악을 뜻하는 말로, 진짚의 조간자趙簡子が 꿈에 하늘에 올라 들었다는 아주 미묘한 천상天上의 음악을 말한다.

6. 월전月殿: 달라나 궁전.

7. 예상우의霓裳羽衣: 선인 仙人을 노래한 무곡舞曲. 8월 보름에 나공원 羅公遠이 당 현종唐玄宗과 함께 월궁月宮에 이르니, 선녀 10여 명이 흰 비단 무지개 치마를 입고 광한청허부廣寒清虛府의 넓은 뜰에서 춤추고 있어 그 곡 이름을 물으니, ‘예상우의霓裳羽衣’(무지개로 만든 치마와 깃털로 만든 옷옷이라는 뜻으로서, 여자들의 화려한 차림새를 비유하는 말)라 해서 나공원이 그 음조를 기억하고 돌아와 악공을 불러 그대로 지었다 함. 또는 현종이 지었다고도 함.

[原文]

文會宴柳夢寅野話故相臣吳謙爲光州牧使奇高峰大升李青蓮後白皆在南中文章俱冠當世謙欲邀爲士林奇會豫勅州吏一新妓女彩衣華粧盛陳宴具于大觀而請之奇李兩公一時偕至酒半謙執酌而言曰今日之請兩君非作一場閒話叙情素較盃觴而止耳願兩君無讓奇公卽席命小妓磨墨張箋走筆七言四韻八篇字不加點運翰如飛李公又積華箋齊肩恣毫揮灑教坊八十餘妓各所贈長篇短篇律詩古詩隨意而就各盡歡而罷又於翌日謙畫去華箋之具就別齋略設盃盤酒微醺又請曰昨日快觀兩君詩戰今日細論千古各罄平生觀記李公最熟於綱目除表表著顯者外至於百五十冊中微章小句無不應口而誦奇公又取綱目中李公所論難者舉其本傳所從來旁通諸家大小說觸處成誦或全篇或數十行文字無不貫穿羅列目前謙離席而曰昨日之戰季真能克明彥今日之戰明彥能克季真今兩日之會真詞林絕代之勝事也雖陳洞庭之鈞天廣樂月殿之霓裳羽衣不多於光州之宴矣（見光州邑誌）

3. 금양군 부인夫人 안씨安氏를 애도하는 기고봉¹ 만장奇高峯挽章

훌륭한 가문에서 좋은 자질로 태어나시어

鉅門鍾麗質
거문종려질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음이 아름다우셨다네

幼教茂徽儀
유교무휘의

출가하기 전에는 수모²의 슬픔을 만났고

不出收髦慟
불출수모통

우귀³한 뒤에는 전계⁴를 생각하였다오

于歸剪髻思
우귀전계사

행장을 챙기시니 그 의상도 선명하였고

理裝昭楚楚
이장소초초

벼슬의 품계도 층층으로 받으셨다네

膺爵襲累累
옹작습누루

아들 셋을 낳았지만 모두 다 기르기 어려웠고

熊卜三難保
웅복삼난보

딸 다섯이 저절로 뒤를 따랐다네

蛇符五自隨
사부오자수

길쌈과 바느질하는 일은 옛 예법에서 분명히 익혔고

紵紃明古禮
임순명고례

제사 모실 제수는 주시周詩에 쓰인 대로 갖추셨지

蘋藻展周詩
빈조전주시

덕화에 힘써 온공이 갖추어졌으니

懋德溫恭備
무덕온공비

아름다운 복록 받으심은 마땅했다오

迎休福祿宜
영휴복록의

병이 생겨 정신이 갑자기 희미하시더니

中痾神忽爽
중아신홀상

1. 기고봉: 본명은 기대승 奇大升(1527~1572).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자는 명언 明彦이고, 호는 고봉, 시호는 문헌 文獻. 1549년(명종 4) 사마시를 거쳐, 1558년 식년 문과에 급제 후 이조정랑·동부승지·대사성·공조참의를 역임했으며, 선조 때 대사간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병을 얻어 귀향하다가 고부古阜에서 객사하였다. 김인후·이항·이황에게서 배웠지만 스스로 발분하여 자독하는 면이 많았다. 저서로 『논사록』, 『왕복서往復書』, 『이기왕복서』, 『주자문록朱子文錄』, 『고봉집』 등이 있다.

2. 수모收髦: 부모를 여의었다는 말.

3. 우귀于歸: 전통 혼례에서, 대례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4. 전계剪髻: 집안이 가난하여 머리털을 잘라서 손님을 대접하였다는 말.

1. 물동이 두드리니: 아내의 상을 당함을 말한다. 장자莊子의 아내가 죽어 혜자惠子が 문상하러 갔더니 장자는 다리를 뻗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에 그 까닭을 물으니 “본래는 삶이란 것도 형체란 것도 없었는데, 이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다. 『장자莊子』 「지락至樂」

학질로 기운 너무 쇠퇴하셨다네

淹瘡氣全衰
엄 학기 전 쇠

신명神明님께 빌어도 어찌 할 수 없으니

無奈精禋鬼
무내 정 연 귀

두루두루 의원을 찾은 것도 헛수고였다고

空勞徧謁醫
공로 편 알 의

거울에는 먼지가 끼어 뽕양고

寶奩塵蝕彩
보 렴 진 식 채

비파 줄에도 거미줄만 얹혔다네

錦瑟網粘絲
금슬 망 점 사

화려한 집안에는 찬바람만 가득하고

華屋涵風滿
화 옥 함 풍 만

텅 빈 안방에는 밤 시간만 길다오

虛帷佇夜遲
허유 저 야 지

물동이 두드리니¹ 애정은 끝이 없고

鼓盆情罔極
고분 정 망 극

부처를 그리니 생각이 슬프기만 하네

圖佛計還悲
도 불 계 환 비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막내가 남았고

擇對留嗟季
택 대 류 차 계

일찍 잃은 아들도 애통해 하셨다오

爲尸天惜兒
위 시 요 석 아

만인이 한마음으로 전송하여 보내니

萬人共祖送
만 인 공 조 송

두 분의 봉분도 나란히 만들었다네

雙鶴啓塋基
쌍 학 계 영 기

장례식도 넉넉히 예법을 따랐고

藏事優從制
장 사 우 종 제

혼령도 편안히 모셨으니 복록이 모여들 것이오

潛靈妥集祺
잠 령 타 집 기

애도하고 화려함은 뉘가 다시 부족하다 할 것인가

哀榮誰復憾
애 영 수 부 감

상례와 제례에 예법과 정성을 진실로 잘하였다네

終遠儘能追
종 원 진 능 추

막내까지 계통은 족보에 올랐으며

선용¹은 다행히도 사정을 입었다오

반씨²의 훈계를 싣것 들었으며

노군³의 법규도 자주 받으셨다네

소나무와 잣나무는 바라볼수록 더 무성하고

지초와 난초는 이미 불어났으리라 생각했다오

어찌해서 쓸쓸히 떨어짐을 만나셨소

어지러이 떨어지는 눈물 견딜 수 없네

만사를 지어 남긴 업적 분명히 못 밝혔으니

뛰어난 시문^{詩文}이 되지 못한 게 부끄럽소이다

末系猶通譜
말 계 유 통 보

先容幸獲私
선 용 행 획 사

飽聞班氏誠
포 문 반 씨 계

頻炙老君規
빈 자 로 군 규

松栢瞻愈盛
송 백 첨 유 성

芝蘭想既滋
지 란 상 기 자

如何值搖落
여 하 치 요 락

可耐泣離披
가 내 읍 리 피

題挽冥遺蹟
제 만 명 유蹟

慙非絕妙辭
참 비 절 묘 사

1.선용先容:남을 좋게 소개하여 등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2.반씨班氏:부인의 행실이 훌륭하였다는 말. 반씨는 후한後漢의 반소班昭를 가리킨다.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으로, 여자의 행실에 대해 논한『여계女誡』를 지었다.

3.노군老君: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1. 의가宜家: 의기가실宜其家室의 약칭. 『시경』 주남周南 도요桃夭에 “도지요요桃之夭夭 유분기실有賁其實 지자우귀之子字歸 의기가실宜其家室”이라 하였음. 즉 “작고 어린 복숭아 그 열매 무성하게 열렸네. 시집가는 아가씨여 그 집안을 화평하게 하리라.”

2. 팔명八命: 주나라 시대관직官秩의 등급. 『주례』 춘관대종백春官大宗伯에 “이구의지명정방국지위以九儀之命正邦國之位 일명수직壹命受職 재검수복再命受服 삼명수위三命受位 사명수기四命受器 오명장측五命賜則 육명장관六命賜官 칠명장국七命賜國 팔명작목八命作牧 구명작백九命作伯”하였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상三相은 구명九命에 해당하고, 좌·우찬성은 팔명에 해당함.

3. 삼도三刀: 『진서晉書』 「왕준전王濬傳」에 “준濬의 야몽夜夢에 삼도三刀가 누웠는 집 들보 위에 매달리고, 또 일도一刀가 옆에 더 달렸으므로 놀라 깨어 기분이 몹시 사나웠다.” 주부主簿이의李毅는 하례하며 말하기를, “삼도는 주자州字가 되는데 일도一刀를 더했으니 명부明府는 아마도 익주益州를 다스리게 될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준濬은 과연 익주자사益州刺史가 되었다”라 하였음.

4. 모의母儀: 인모人母의 의칙儀則이 될 만하다는 뜻.

4. 금양군 부인 안씨를 애도하는 김하서 만장 挽錦陽君吳謙夫人安氏〈金河西〉

일찌감치 부모 여원 종천終天의 슬픔

早訣終天痛
조결종천통

천생 자질 고요하고 아름다웠소

生資自靜嘉
생자자정가

의가宜家¹하여 복숭아 열매가 있고

宜家桃有實
의가도유실

덕의 짝이라 옥은 티가 없구려

配德玉無瑕
배덕옥무하

팔명八命²이라 군君을 봉한 덕이라면은

八命封君宅
팔명봉군택

삼도三刀³라 자사刺史의 아문衙門이로세

三刀刺史衙
삼도자사아

온 경내가 모의母儀⁴를 그리워하여

母儀懷闔境
모의회합경

길을 막고 상여 앞에 곡을 하누나

攔道哭靈車
란도곡령거

*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조선 중기 문신. 자 후지厚之. 호 하서·담재澹齋. 시호 문정文正.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 이황李滉과 함께 학문을 닦았다. 문과 급제 후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를 역임하여 세자였던 인종을 가르쳤다. 인종이 즉위하여 9개월 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 장성으로 돌아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였다.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전직, 공조정랑, 홍문관교리, 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문집에 『하서전집』, 저서에 『서명사천도西銘四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5.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주고받은 시詩

공公께서 광주목사로 재임하실 때 기 고봉과 주고받은 시율詩律이 많이 있었지만, 원운原韻(공께서 지은 시)이 누락되어 전하여 온 것이 없다. 때문에 고봉께서 지은 시율을 써서 훗날 고증자료로 삼는다(公宰光州時與奇高峰多有唱酬之詩而原韻逸而無傳只書高峰詩以憑後攷).

1. 문옹文翁: 서한西漢 경제景帝 때의 인물로, 촉蜀의 군수가 되어 교화를 펼치고 학교를 일으켜 문풍文風을 크게 떨쳤다. 이를 계기로 무제武帝 때에 와서 온 천하에 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목사 오겸의 시에 차운하다

次吳牧使韻

차 오 목 사 운

〈제1수〉

스스로 문옹文翁¹의 문화교육을 기뻐하셨으니

自喜文翁化
자 희 문 옹 화

돌이켜 생각하니 의탁하는 이웃이 되셨구려

還應托有鄰
환 응 탁 유 린

웃으며 얘기하니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헤아릴손가

笑談蠡測海
소 담 라 측 해

시구를 주고받으니 그루터기에 봄기운 나는 듯했다오

酬唱枿生春
수 창 열 생 춘

1. 바람과 구름: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남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법을 따르듯 성인이 나타나시니 만물이 우러러본다” 하였다.

2. 성광聖·狂: 성광은 성인과 미치광이란 말로 『서경』 「주서周書」 다방多方에 “오직 성인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 하였다.

3. 마귀와 사람의 관문: 스스로를 속이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람과 귀신이 구분된다고 하여 ‘성의誠意’를 인귀관人鬼關이라 한다. 『심경성의장心經誠意章』.

밝은 덕은 호남지방에 빛이 나고

曜德輝南極
요 덕 휘 남극

매달린 심정은 북쪽 대궐을 끼고 있었다오

懸情拱北辰
현 정 공 북신

요 다음날 바람과 구름¹으로 모이면

風雲他日會
풍 운 타 일 회

넓은 도량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진정시키겠소

洪量鎮甘辛
홍 량 진 감 신

〈제2수〉

개인 날 향 피우고 하늘에 계신 임금을 섬기니

鑪熏晴晝事天君
노 훈 청 주 사 천 군

맑고 차가운 하늘에 구름 깨끗이 쓸었구려

淡淡寒空淨掃雲
담 담 한 공 정 소 운

한 생각에 성인과 광인²됨을 정밀하게 살펴야 하니

一念聖狂須密察
일 념 성 광 수 밀 찰

마귀와 사람의 관문³이 처음 갈라지기 때문이오

鬼人關外路初分
귀 인 관 외 로 초 분

목사 오겸의 「단선가」에 차운하다次吳牧使短扇歌韻

차 오 목 사 단 선 가 운

오동나무에 달 지자 까마귀는 잎을 펼럭이고

疎桐月墮鴉翻葉
소 동 월 타 아 번 엽

대밭에 반딧불이 나니 비는 숲을 흔드네

密竹螢流雨撼林
밀 죽 형 류 우 감 림

무엇보다 밤 깊어지고 술도 깨었을 때

最是夜深殘酒醒
최 시 야 심 잔 주 성

등잔불은 책상을 밝혀 잡스러운 마음이 없어라

寒燈明案自無淫
한 등 명 안 자 무 음

뜬 세상 영욕을 스스로 알겠는데

浮世榮枯只自知
부 세 영 고 지 자 지

사람의 일 번쩍하면 어긋나니 어이 견디나

不堪人事轉頭非
부 감 인 사 전 두 비

강호에서 생애가 풍부함 크게 깨닫노니

江湖斗覺生涯富
강 호 두 각 생 애 부

꽃은 오솔길에 가득 술은 잔에 가득하구나

花滿幽蹊酒滿卮
화 만 유 혜 주 만 치

물결 밟는 비단 버선¹ 걸음도 가볍고

凌波羅襪步輕盈
능 파 라 말 보 경 영

비가 양대²에 흠어지자 달도 개었네

雨散陽臺月欲晴
우 산 양 대 월 욕 청

남쪽 갯벌에 노래 그치고 사람 떠나니

南浦曲終人去遠
남 포 곡 종 인 거 원

하늘가 운수³가 참으로 정을 머금었네

倚天雲樹正含情
의 천 운 수 정 함 정

1. 물결 밟는 비단 버선: 능파선자凌波仙子라는 물의 여신女神이 땅 위를 가듯 물 위를 사뿐히 걸어가는 것을 형용한 말로, 전하여 미인의 사뿐한 몸매와 고운 자태를 비유한다.

2. 양대陽臺: 무산巫山에 있는 누대의 이름으로, 춘추시대 초나라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 노닐다가 꿈속에 신녀神女를 만나 동침을 하였는데, 신녀가 떠나면서 “첩은 무산 남쪽 높은 봉우리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매일 아침저녁 양대 아래에 있습니다.” 하였다 한다. 『문선 송옥 고당부文選 宋玉 高唐賦』.

3. 운수雲樹: 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두보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의 “위수 북쪽 봄날의 나무 한 그루, 장강 동쪽 해질녘 구름 이로다”에서 유래한다.

* 시 「목사 오겸의 단선가에 차운하다」는 국제유집에는 누락되었으나 방후손 형근榮根·종문鍾文이 기대승의 『고봉집高峯集』 제1권에서 발췌해 수록했다.

기고봉이 소동파蘇東坡의 시운에 따라 지어 보내온 시詩

1. 오목백吳牧伯：광주목사 오겸 선조님을 지칭.

2. 웅장熊掌：『맹자』「고자告子」상편에 나오는 말로,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했다는 말이다. “고기도 먹고 싶고 곰 발바닥도 먹고 싶지만 모두 먹을 수 없다면 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할 것이며, 생명도 보전하고 싶고 의리도 취하고 싶지만 두 가지를 겸할 수 없을 경우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겠다.”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소동파의 시를 적어 보면 “동이 사이에 필탁畢卓은 술 흠치기 만만치 않고, 벽 뒤에 광형匡衡은 등불 켜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韻을 나눠 시 14수를 지어 오 목백吳牧伯¹님께 받들어 드리노니 수정해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4수에서 11수는 잃어버려 전하여 온 것이 없고, 아래와 같이 3수의 시詩만 남아 있다(用東坡詩甕間畢卓防偷酒 壁後匡衡不點燈之句分韻成十四首奉呈吳牧伯案下仍祈郢斤而十一逸無傳).

〈제1수〉

선생께서는 순수하고 고아한 바탕으로

先生醇古姿
선생순고자

인격과 기상은 당대의 기둥이었소

材氣鬱時棟
재기울시둥

어명을 받아 금성 고을에 부임하셨으니

分憂宅錦州
분우택금주

은혜와 위엄으로 모두를 휘어 잡으셨구려

恩威撫師空
은위무사공

깨끗한 명예는 곰 발바닥熊掌²을 선택하셨고

清名取熊掌
청명취웅장

닭갈비는 웅산¹을 비웃었다고

속세를 벗어난 초연한 마음으로

희황²의 꿈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제2수〉

도학이 지극히 높고도 넓으시니

가슴은 일만 칸의 큰 집 같으시오

벼슬살이 시끄러움 받지 않으시고

물과 나무 속에서 한가함 즐기시네

봉래산은 해와 달이 아스라한데

호랑이 같은 무관들은 아홉 관문 지키도다

어찌하면 구름과 무지개 타고서

고리를 두드리며 구슬 돌아온다³고 아뢰까

鷄肋笑筭
계 록 소 산 웅

蕭然世外心
소 연 세 외 심

已了羲皇夢
이 료 희 황 몽

道高極恢恢
도 고 극 회 회

胸次廈萬間
흉 차 하 만 간

不受朱墨鬧
부 수 주 묵 요

水木娛清閑
수 목 오 청 한

蓬萊日月迥
봉 래 일 월 형

虎豹守九關
호 표 수 구 관

何當乘雲霓
하 당 승 운 예

叩鐶奏珠還
고 환 주 주 환

1. 웅산¹ : 웅기장사의 허무한 꿈. 웅산은 혼자 멋대로 생각을 치달리며 망상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항아리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밤에도 끌어안고서 자곤하였는데, 어느 날 저녁 항아리 하나를 밀친 삼아 부자가 되는 생각에 젖은 나머지 기쁨에 겨워 춤을 추다가 그 항아리를 밟아 깨뜨려 버렸다는 '웅산의 고사'가 전한다.

2. 희황² : 상고시대 복희씨를 이른다.

3. 구슬 돌아온다 : 후한^{後漢} 때 맹상^{孟嘗}의 고사. 후한 때 합포^{合浦}군^郡은 곡물은 나지 않고 바다에서 나는 진주가 가장 중요한 물산이었는데, 수령들이 탐학하여 진주를 마구 끌어 모으자 진주가 마침내 인접한 교지^{交趾}군^郡으로 가버려 더 이상 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맹상이 수령으로 부임하여 예전의 폐단을 혁파하자 1년도 못 되어 진주가 다시 돌아왔다.

〈제3수〉

새벽에 일어나 세수와 양치질하고서

清晨起盥漱
청신기관수

보내온 수필에 놀라고 기뻐하였네

驚喜枉手筆
경희왕수필

구슬처럼 맑고 따듯하기만 하여

天球粹而溫
천구수이온

그윽한 빛은 돋는 해보다 더 솟구치네

幽光干旭日
유광간옥일

눈에 들어오자 깜짝 놀라 당혹하며

入眼駭然惑
입안해연혹

자신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뿐이라오

撫己反自失
무기반자실

있는 것 다 털어 갖고자 하노니

傾困欲往報
경곤욕왕보

만에 하나라도 될려나 하나이다

庶幾萬分一
서기만분일

6. 기로소耆老所

가정嘉靖 갑자甲子(1564)년에 국가는 무사태평하여 지금의 조정에는 늙은 대신들이 많았다.

오래 전 정승을 지낸 윤영평尹鈴平 공公께서 덕망과 관작이 화려하였으며, 나이가 70이 넘었기에 모든 관원들이 기로소에 서 기로연을 베풀고 화공을 시켜 그 장면을 그리도록 하여 시축詩軸¹을 만들고 이어서 윤 정승을 위해 나에게 부탁하기를, “그대의 한 말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하였다.

아! 하늘 아래 이 땅에 현달한 존장尊丈이라면 도덕과 관작과 장수, 이 세 가지를 겸비하여야 하는데 간혹 하나를 얻고 두 가지를 잃어버리기도 하여 능숙하게 겸비한 분은 적다.

진실로 능히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춘 분과 한 세상을 함께 산다면, 어찌 그 분과 교제하면서 만년을 즐기며 잊히지 않을 추억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옛날 문정공文正公 이방李昉이 장호문 등과 백전白傳의 옛 법규를 계승하려다가 촉구蜀寇의 환란으로 인하여 약속을 과감히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일평생 아쉬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다행히 잘 풀려 조정에 들어가서는 강후康侯를 세 번이나 접견하는 총애를 받았고, 정계를 빠져 나와서는 만년을 편안히 보내는 즐거움이 있어 태평한 기상이 한 폭의 그림 속

1. 시축詩軸: 시화축詩畫軸의 준말로, 시를 적은 두루말이.

1. 홍섬洪暹: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는 인재忍齋,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관직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2. 사마온공司馬溫公: 중국 송나라 때의 큰 학자.

에 분명히 담겼으니 어찌면 후손들에게는 영광을 느끼는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시험 삼아 화폭을 펴보자고 하기에 보았더니 여원 낮빛에 백발이 성성하니 연세가 높아 존경할 만하며, 금빛 반짝이는 무소 뿔로 만든 허리띠를 두른 것은 관작이 높은 귀한 분임을 표출하였다고 하겠지만 화공이 그릴 수 없는 것은 심덕이다.

심덕은 자신에게 있고 관작과 수명은 하늘의 명을 들어야 한다.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하늘의 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하늘이 주어야 하는 것이니 그 즐거움을 되새겨 보면 많지 않으리라!

노래와 춤과 현악기 등은 이 날의 즐거움을 특별히 보여준 현실일 뿐이다. 그러나 비록 완전히 우리들의 눈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 현장을 그리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이 현장을 오래도록 전수하는 것은 시문詩文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만일 이도履道와 서락西洛 등 여러분들이 읊조리며 주고받은 것이 없었다면 어디를 근거하여 선현들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느끼며 존모할 것이며, 당시의 그림도 전하여 온 것이 없이 오랜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홍섬洪暹¹처럼 능숙하지 못한 문장력으로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일찍이 들으니 사마온공司馬溫公²은 70살에 네 살이 모자란 나이로, 나이 많고 문장력이 풍부한 분들이 모인 기영耆英이라는 모임에 참여하여 그 회會의 서문을 지었다.

나는 저 사마씨司馬氏의 도덕과 문장력은 감히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어쩌다가 하늘에게 나이를 빌려 얻어 진솔한 이 모임의 끝자리에 참석할 것을 허락받았으니, 반드시 이 글을 지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을축乙丑(1565년) 늦봄 16일에 홍섬洪暹 삼가 기록하다.

- 추성정난推誠定難 위사공신衛社功臣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영평부원군鈴平府院君 겸 영경연사領經筵事, 성명은 윤개, 자字는 여옥汝沃, 호는 서파西坡이며 갑인甲寅(1494년) 5월 4일생이고, 아들 비隹는 생원生員이다.

- 추성정난 위사공신 승록대부 판돈녕부군判敦寧府君 겸 지경연사知經筵事 광평군光平君 김명윤金明胤의 자는 회백晦伯, 호는 소암素庵이며 계축癸丑(1493년) 6월 모일생이고, 아들 기서는 군수郡守, 홍서는 경력經歷이다.

- 승정대부 창녕군昌寧君 조광원曹光遠의 자는 회보晦甫, 호는 용헌慵軒이고, 임자壬子(1492년) 11월 8일생이며, 아들 대건大乾은 군수, 대곤大坤 역시 군수이다.

- 승정대부 행행 이조판서吏曹判書 겸 지경연사 오겸吳謙의 자는 경부敬夫, 호는 국재菊齋이며, 병진丙辰(1496년) 9월 1일생이고, 아들 언후彦厚는 판관判官이고, 언관彦寬은 통사랑通仕郎이다.

-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심광원沈光遠의 자는 언지彦之요, 호는 우암憂庵이며, 경술庚戌(1490년) 11월 12일생이고, 아들 현鉉은 참봉參奉, 진鎭은 진사, 금錦은 찰방察訪이다.

• 자헌대부 공조판서工曹判書 채세영蔡世榮의 자는 영지英之, 호는 보광헌葆光軒이며, 임자壬子(1492년) 생이고, 아들은 계흥繼興이다.

[原文]

嘉靖甲子年間國家無虞今朝多耆德舊相鈴平尹公與德爵俱邁年踰七十諸公設耆老會乎耆老所倩工圖畫爲軸因以屬余曰子可無一言嗚呼天下之達尊德爵壽三者或得一而遺二能兼之者盖寡苟能全斯三者而并生一世則安得不結爲君子交娛晚景以圖不朽乎昔李文正公昉與張好問等欲踵白傳舊規 因蜀寇爲患約不果諧爲終身之恨今幸克就入承康候三接之寵出有桑榆自逸之樂昇平氣像森然于一幅豈不爲後來之榮觀也試展畫而觀之則蒼顏白髮壽可尊也犀金橫帶貴可敬也而所不可畫者德也德在乎我爵與齒聽乎天在我者旣爲我有而聽乎天者又爲天之所付與其爲樂顧不多哉歌舞絲管特形容此樂而已雖然宛然在目者莫良於繪事壽乎其傳者莫過乎詩文若無履道西洛諸公和唱之什則何處歆艷先賢盛美而當時圖畫泯焉無傳久矣然則其如遲之不能文何嘗聞司馬溫公年未及七十者四歲而得齒文富耆英之會爲作序文彼司馬道德之文非所敢擬而倘得天假之年許登眞率會席之末則未必非此文爲贊焉
乙丑暮春旣望 洪遲謹識

- 推誠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鈴平府院君兼領經筵事 尹漑 汝沃 西坡 甲寅五月四日生子 棐生員
- 推誠定難衛社功臣崇祿大夫判敦寧府君兼知經筵事 光平君 金明胤 晦伯 素庵 癸丑六月 日生 子基瑞郡守 興瑞經歷
- 崇政大夫昌寧君曹光遠 晦甫 慵軒 壬子十一月八日生 子大乾郡守 大坤郡守
-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知 經筵事 吳謙 敬夫 菊齋 丙辰九月一日生 子彥厚判官 彥寬通仕郎
- 資憲大夫知中樞府事沈光遠 彥之 憂庵 庚戌十一月十二日生 子 鉉參奉 鎮進士 鍊縣令 錦察訪
- 資憲大夫工曹判書蔡世英 英之 葆光軒 壬子 月 日生 子 繼興

7. 모친 신씨 봉양母親申氏奉養 등

공께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직外職으로 나갈 기회를 얻어 남평현감, 남원부사와 담양부사, 전주부윤을 거쳐 광주목사로 부임하셨다. 이 때 모친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신씨申氏의 나이 80여 세였다.

부인께서는 아들을 따라 고을을 다니면서 봉양을 받았는데 한두 명 여자 종을 데리고 다녔으며, 오직 길쌈의 일만 하시고 일찍이 털끝 하나도 옳지 않은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며, 정신과 뜻하는 생각만은 젊은 시절과 다름이 없었다.

어머니 신 부인께서는 일찍이 공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관직 생활의 처신이 너의 아버지와 같지 않구나”라고 하셨다. 공의 관직 생활은 본래 청렴 간소하며, 삼가 간신배들을 찾아내는 것이 귀신과 같다고 칭송을 들었는데, 어머니 신申 부인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아버지인 나원군의 벼슬살이 때 처신하신 일은 어머니의 이 말씀에서 가히 알만하다.

나원군께서 아들 겸에게 준 편지에서 말씀하기를, “부임 처음부터 이 고을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각각 처리할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지금은 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무지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 지 어찌 물의를 빚을까 두려워서이겠느냐. 못 사람들의 물의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자는 만에 하나라도 복직을 하고자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다. 만일 사직서를 낸 뒤에 감사가 나의 사직서에 화를 내어 그 직첩을 모두 다 박탈한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결정한 뜻이 금석金石과 같이 견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原文]

公爲養乞外歷任南平南原潭陽全州以至光州時貞敬夫人申氏年八十餘夫人從養五邑以一二女僕自隨惟事紡績未嘗有一毫非義之念精神志慮無間少壯

申夫人嘗謂公曰汝之居官不若汝父公居官素稱清簡謹慎撥奸如神而母夫人猶曰云云則羅原君居官莅事茲可知矣

羅原君與子謙書曰自初此郡於我不合事每每說道而今病不堪事亦如此故不歸歟豈畏物議乎畏物議者欲復職於萬一者也我不如是也萬一呈辭後監司發怒書狀俾奪盡其職帖吾不動心也呈辭定意堅如金石

8. 좌찬성左贊成 사직서

신평은 이 달 17일에 승정원 동부승지의 서류를 받아 엮드려 두세 번 읽어보니, 임금님의 말씀이 친절하고 그 사연의 뜻이 간절하기만 하여 감격하는 서글픔과 연모의 지극함을 이겨내지 못하겠나이다.

신은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친척은 모두 도성 아랫넌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꾸지람과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네 분(중종, 인종, 명종, 선조) 임금님을 차례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 깊고도 두터웠습니다.

노쇠한 나이라서 비록 사직을 하고 은퇴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신체적 건강은 아직까지도 힘을 쓸 만하다고 하시는데 어찌 현명하신 전하의 조정을 멀리 떠나 질병을 빙자하여 궁벽한 시골 적막한 물가에 엮드려 있고 싶어서이겠습니까.

그런데 근세에 질병을 얻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직을 아뢰 지 한 해가 경과됐고, 공직 업무에서 손을 뗀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때마침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그믐 때부터 오래된 질병이 조금씩 나아진 듯하옵니다. 그러나 만일 요행을 바라며, 몸이 고목처럼 되어 가는 노쇠함은 생각하지 않고 구차히 치료하려고 한들 완쾌를 기대하겠습니까.

탕욕湯浴의 효험은 시험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오래된 증상은 먼저 한속이 들고 그 뒤에 삭신이 묵직하기만 하니 북쪽으로 한양을 바라볼 때마다 대궐 생각이 그림기만 합니다.

병상 솜 이불 속에 묻혀 있어 조정에 돌아갈 기약을 정하지도 못하고, 먼 지방 촌락에서 고질병으로 폐인이 되어 정부의 중책을 짊어지고만 있으니, 마음과 정신이 황송하기만 하여 뉘이 떨어져 나갈 듯해서 하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속히 교체해 주시어 노쇠한 여생을 조금이나마 보존하도록 해주소서.

이조吏曹의 좋은 계문啓文이 있었기에 승정원은 어명을 받아 전달하기를 좌찬성 오겸의 관직을 체임하라는 안건을 이조에 내렸다.

[原文]

左贊成辭職書狀

臣於今月十七日承政院同副承旨書狀伏讀再三天語丁寧辭旨勤諭不勝感激悲慕之至臣生長京師骨肉親屬皆在都下叱分不喻歷事四朝受恩深厚年衰雖合辭退身健尚可陳力爲白去等豈欲遠違聖明之朝而病伏窮鄉寂寞之濱蓋自近歲得病以來在告經年曠廢職事爲白如可適幸去二月晦時宿疾小愈僥倖萬一不思枯朽已甚苟圖治療差痊爲白如乎湯浴既未試效舊證先寒後重瞻望北極徒切戀闕之思沈綿床褥未有還朝之期痼廢遠方村落仍帶政府重御心神惶悚隕越不敢一日安寧爲白良速賜遞免庶幾保存衰朽殘生爲白只爲詮次以善啓 傳左贊成吳謙乙量本職遞差事下吏曹

9. 사직 관련 참고사항

1. 차자箭子: 조선시대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2. 미시未時: 오후 한 시 반부터 두 시 반.

(1) 선조대왕 3년 경오庚午(1570년) 8월 3일 유희춘이 옥당玉堂에 나아가 직제학 이산해, 응교 이중호, 교리 이해수, 송응개, 부수찬 유도일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첫 번째 차자箭子¹는 윤탁연이 보내 온 상소문을 쓰기로 하고, 두 번째 차자는 여러 동료들이 구술하여 작성하였고, 미시未時²에 회의를 끝내고 나왔다.

듣는 바에 의하면, 오겸 이상二相께서 곧장 호남으로 돌아가 노년기를 마친다기에 호현방好賢坊(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집으로 찾아가 뵈었다.

8월 14일, 좌찬성 오겸 님께서 귀향하다가 무장에서 목욕하실 것을 요청하셨다. 도승지 이후백은 함양 땅에 있는 선산을 성묘할 것을 요청하기에 두 분께 말을 지급하였다.

8월 18일, 경령을 보내어 오겸 이상께서 오늘 출발하여 호남으로 가시는 길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10월 3일, 좌찬성 오겸 님께서 나주에 도착하여 질병을 기록한 서류를 승정원에 접수하면서 관직과 겸직까지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주청하였는데, 임금께서는 겸관 사표만 받아 주시고, 이어 교서를 보내어 오겸으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불렀다.

11월 5일, 이상二相 오겸은 사직서를 제출, 수리해 줄 것을 주

청하였다.

12월 6일, 관리를 보내 오 이상(겸)과 기명언(대승) 두 곳에
고서 전달하다.

* 출처 : 『미암일기眉巖日記』¹ 2권

(2) 정사丁巳(1557년) 대사헌이 되었을 때 동료 가운데 사림
士林을 배척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께서 이 동료를 잘 억누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청백하다는 명망이 조금 감소되어 정승으
로 임명을 할 때 탄핵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공의 인품
을 잘 아는 자가 이르기를, “공의 마음 속에는 다른 의도가 없
었다는 것을 반드시 변명할 자가 있으리라”고 하였다.

(3) 공께서 가정에 계실 때는 정신을 수양하며 대문을 닫고
조용히 책을 읽으셨다. 이런 생활로부터 질병도 많아졌기에 의
서를 두루 살펴보셨으며, 고요한 삶을 스스로 즐거워하셨으니
식사와 기거 등 일상생활이 모두 절차에 맞게 하시면서 깨끗하
고 한가로운 복을 누리신 것이 13년간이었다.

* 출처 :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²

[原文]

宣祖三年庚午八月初三日柳希春詣玉堂與直提學李山
海應教李仲虎校理李海壽宋應灝副修撰柳濤一會初筭
用尹卓然所送之疏再筭衆僚共口占而成未罷出聞吳二
相謙將歸湖南終老往謁于好賢坊十四日左贊成吳公謙

1. 미암일기眉巖日記: 유희
춘柳希春(1513~1577)
이 지은 책. 조선 전기
의 문신으로 자는 인중
仁仲, 호는 미암眉巖, 시
호는 문절文節이다. 외
할아버지 최부崔溥의 학
통을 계승해 이항李恒·
김인후金麟厚 등과 함께
호남 지방의 학풍 조성
에 기여하였다.

2.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해동명신록은 신라 때부
터 조선 전기까지 명신
名臣의 행적을 모아 기
록한 책으로, 편찬자는
16~17세기 문신 김육金
瑬(1580년~1658년)이
다. 이 책의 구성은 9권
9책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행적이 기록되어 있
는 인물은 총 296명에
이른다. 『잡곡연보潛谷
年譜』에 ‘1651년(효종 2
년)에 『해동명신록』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있
으며, 우리나라의 관리
들에 관한 정확한 행적
기록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請歸沐浴于茂長都承旨李後白請掃墳于咸陽地皆給由馬

十八日遣景濂往送吳二相謙今日發歸湖南也

十月初三日左贊成吳公謙到羅州呈病狀于政院乞遞職及兼帶上命只遞兼官仍以有書狀召使上來

十一月初五日吳二相謙辭職請遞

十二月初六日遣倅致書于吳二相(謙)奇明彥(大升)二處
(以上俱見柳眉岩日記草卷)

丁巳爲都憲時同僚有排擠士林者公不克抑以此清望少減至於卜相被劾知公者謂公心事無他必有能辨之者家食頤神閉戶看書自以多疾博涉醫方常以簡靜自樂飲食起居皆中節宣享清閒之福者十有三年(見海東名臣錄)

1. 우의정 금양군 휘 겸 묘지명 右議政 錦陽君 諱 謙 墓誌銘

만력萬曆 임오년(1582) 3월 9일 정묘에 좌찬성 금양군錦陽君 오공吳公이 나주羅州 광산廣山(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의 집에서 별세하셨다. 부음이 전해지자, 나라에서는 조회를 거두고 조제弔祭의 부의賻儀를 내리셨다. 3개월이 지나 5월 15일 용진산湧珍山 선영 곁에 예장하니, 그 언덕은 간좌艮坐에 곤향坤向이다.

장례에 앞서 공의 사위인 예조참의禮曹參議 신희남愼喜男이 행장을 가지고 와서 덕수德水(본관) 이이李珥에게 보이면서 묘지명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아주 어렵게 여기고 승낙하지 아니 하자 이르기를, “그대는 문형文衡을 맡았으니 직책상 사양할 수 없네” 하더니, 날짜를 정하고서 독촉하기를, “묘지명을 갖추지 못하면 장례를 모실 수가 없네” 하므로 이이李珥는 행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공의 휘는 겸謙, 자는 경부敬夫로 나주오씨다. 원조遠祖 계진季眞은 고려 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냈다. 진사로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과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금성군錦城君에 추증된 휘 신중愼中은 공의 증조부이고, 정충출기적개공신精忠出氣敵愾功臣(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신)과 가선대부 병조참판兵曹參

1. 유우柳藕(1473년~ 1537년): 조선 중기 학자. 자는 양정養淸, 호는 서봉西峯. 김굉필金宏弼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스승 김굉필이 갑자사화로 극형을 받은 뒤, 모친이 병석에 눕게 되자 의술을 연구하여 손수 약을 지어 공양하였다. 서화書畵는 물론 천문·음률·복서卜筮에 뛰어났고, 특히 주역에 통달하여 이름이 났다.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고, 오직 후진 양성에 힘써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判 나성군羅城君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와 양평공襄平公에 추증된 휘 자치自治는 공의 조부이며,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좌찬성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와 나원군羅原君에 추증된 휘 세훈世勳은 공의 아버지이다.

평산신씨平山申氏로 황해도관찰사 휘 자준自準의 손녀이며, 종친부宗親府 전첨典籤으로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추증追贈된 휘 말평末平의 딸인 증 정경부인貞敬夫人은 곧 공의 어머니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직은 공의 영귀榮貴 때문이었다.

나원군의 전취前娶인 김씨 또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은 홍치弘治 병진년(1496, 연산군 2년) 9월 1일 서울 호현방好賢坊(현 회현동)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재기材氣가 숙성하였고, 유군柳君 우藕¹에게 수업하였는데, 우는 사문斯文에서 장자長者로 추대되고, 공의 외숙인 판서 신상申鎰은 공의 재질을 매우 칭찬하고 인정하였다.

공의 나이 19세 갑술년(1514)에 부친상을 당하고, 27세 때 가정嘉靖 임오년(1522)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위장병으로 성균관에 기거할 수 없었다. 외숙 신상申鎰 공이 대과에 오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곧 을유년(1525)에 천거로 와서별제瓦署別提에 임명시켰는데, 몇 년 만에 관례에 따라 동부주부東部主簿로 승진되었다가 곧 사헌부 감찰로 옮겼다.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나갔을 때는 일에 임하여 명백하고 과단성 있게 하였으므로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은 따랐다.

임진년(1532) 겨울에 문과에서 제 2등으로 뽑혔으나 그대로

남평 고을을 다스리다가 3년이 지나서는 신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직하였다. 이듬해에는 의령현감宜寧縣監에 임명되었는데, 고을의 폐단이 심하였으나 공의 경획經畫에 힘입어 다시 소생되었다. 오래된 사건이 법에 저촉되어 파직되었다.

경자년(1540)에는 예조좌랑에 임명되고, 다시 형조정랑으로 승진되었다가 얼마 후에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비로소 종신從臣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시강원의 문학·필선과 사헌부의 지평·장령, 홍문관의 교리·부응교 등을 거쳐 여러 차례 청백한 직급으로 드날렸다.

임인년(1542)에는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으로 있다가 가족을 이끌고 나주로 돌아와 모부인母夫人을 봉양하였다. 이듬해에는 남원부사南原府使로 임명되었는데, 갑진년(1544)에 전라감사 송인수宋麟壽가 공의 치적을 최상으로 올려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되었다.

병오년(1546)에는 내직으로 들어와 병조참지에 임명되고, 정미년(1547)에는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는데, 이 해에는 중삭공신연仲朔功臣宴에 참여하여 은례恩例로써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고 금양군錦陽君에 봉해졌으나, 모부인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항시 외직에 보임되기를 빌어 담양부사潭陽府使와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역임하였다.

갑인년(1554)에는 모친상을 당했는데, 병진년(1556)에 복제服制가 끝나자 호조참판으로 부름을 받았고, 병조참판에 이어 대사헌으로 전직되었다가 얼마 후에는 병조참판으로 돌아와서 동지춘추관사를 겸하였으며, 무오년(1558)에는 영남관찰사로 나갔다가 겨울에는 병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1. 융경隆慶: 명나라 제 12대 황제 목종穆宗 융경제隆慶帝 주재후朱載堧의 연호로 1567~1572의 6년간 사용되었다.

2. 윤원형尹元衡(?~1565): 조선시대에 권력을 전횡한 대표적인 권신의 한 사람이다.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손위 누이다. 명종이 즉위한 때부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20년 동안 권력과 재력을 독점했다. 1563년 영의정에 올라 영화를 누리다가 실각해 관직을 삭탈당하고 전리田里로 방귀되었으며, 강음江陰에 은거하다가 죽었다.

기미년(1559)에는 자헌대부 예조판서禮曹判書에 특진되고, 대사헌, 호조戶曹·형조刑曹·병조兵曹·이조吏曹 등 4조의 판서判書 겸 세자빈객世子賓客·지경연사知經筵事·도총부도총관都摠府都摠管을 역임하였다.

신유년(1561)에는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어 좌참찬에 임명되고, 갑자년(1564)에는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승진되었다가 뒤에 병조·이조 판서에 두 번 임명되고, 좌찬성·판의금부사에 세 번 임명되었으며, 융경隆慶¹ 경오년(1570) 가을에는 좌찬성으로서 병을 핑계 삼아 휴가를 얻어 남쪽 고향에 돌아와 구업을 이어 끝내 다시 조정에 돌아가지 않았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아름다워서 일을 처리하는데 자상하고 신중하였다. 내직과 외직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사임하다가 보직되는 일이 많았다. 관리의 재질이 뛰어나 분석과 처결함이 물 흐르듯 하였다. 평생 남의 잘못 들추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거리낌 없이 입바른 소리를 밖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안으로는 지키는 바가 있었다.

크게 윤원형尹元衡²의 꺼려하는 바가 되어 여러 번 중상하려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니, 그 권귀에 아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정사년(1557)에 대사헌으로 있을 때, 동료 중에 사림을 무함하는 자가 있었으나, 공이 억누르지 못하여 이 때문에 청망淸望이 조금 감소되었다. 정승을 뽑는데 이르러서도 탄핵을 당했으나, 그러나 공을 아는 이는 “공은 탄 마음이 없다. 반드시 능히 가릴만한 이가 있으리라”고 하였다.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정신을 수양하며 문을 닫고 글만 읽었으므로 손님이 찾아와도 만나보지 못한 때가 많았으며, 자연

병이 많았던 까닭으로 의서醫書를 널리 섭렵하여 섭생攝生의 요령을 깊이 깨달았다. 항시 간편하고 고요함을 스스로 즐겨서 음식과 거처가 모두 절도에 맞았다.

시골에 있을 적에는 남과 더불어 거슬림이 없었고, 마을에서는 옷깃을 여미었으므로 흠잡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여러 차례 본도의 감사에게 노재상老宰相을 우대하는 물자를 내리라고 명하여 청한淸閑의 복을 누린 지가 13년이나 되었다. 수명이 87세로 정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니, 관에서 장례의 도구를 갖추어 주었다. 종시終始 생전의 슬픔과 영화나 죽고 삶에 유감이 없었다.

공은 죽산안씨竹山安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안씨의 아버지는 조槀로, 목사牧使 자성自誠의 아들이자, 참판參判 초묘의 손자이다. 부인은 공과 동갑이나 공보다 29년 먼저 별세했고, 재취 부인은 고흥유씨高興柳氏이고, 아버지는 진사 담潭이다.

지금 공의 무덤은 부인의 무덤 서쪽에 봉안되었다. 2남 6녀를 두었는데, 장남 언후彦厚는 음보蔭補로 벼슬이 직산稷山·임피臨陂의 현령縣令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 차남 언관彦寬은 벼슬이 통덕랑通德郎이며, 만사위 신희남愼喜男은 참의參議이고, 다음 사위는 정사윤鄭師尹인데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이며, 다음 사위 권대훈權大勳은 진위현령振威縣令이고, 다음 사위는 윤영尹甕이며, 다음 사위 유형진柳亨進은 전옥서봉사典獄署奉事이고, 다음은 종실 봉림령鳳林令 린麟에게 시집갔다.

장남 언후彦厚는 설씨偈氏에게 장가들어 1녀를 두었는데, 사인士人¹ 이활李活에게 시집갔다. 재취 덕수이씨德水李氏는 5남 5

1. 사인士人: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너를 두어 아들은 수琇, 감臧, 헌獻, 연璉, 진璉이요, 딸은 정귀생鄭貴生, 윤섭尹涉,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박형진朴珩眞, 나덕창羅德昌에게 출가하였다.

차남 언관彦寬은 2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선신善臣, 준신俊臣이고, 딸은 김시헌金時獻, 이양렬李揚烈, 박응길朴應吉에게 출가하였다.

신희남 참의는 4남 1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여경餘慶은 지금 진안현감鎭安縣監이고. 다음 언경彦慶은 문과에 올라 황해도사이며, 그 다음 중경重慶과 개경介慶은 다 같이 학문에 종사하고, 딸은 사인 현덕형玄德亨에게 시집갔다.

정사윤 별제別提는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 섬暹은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이고, 딸은 사인 정찬鄭瓚에게 시집갔다.

권대훈 현령은 1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곤鶡이고, 딸은 김광욱金光戩, 신응구申應渠, 민각閔恪에게 시집갔는데 모두 선비이다. 신응구는 진사로서 1녀를 낳았는데 어리고, 윤영尹羹의 부처는 모두 요절夭折하여 후사後嗣가 없으며, 유형진柳亨進은 칠남매를 두었는데, 맏이는 영瑛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한 선비 벼슬에 올라

士有登仕
사유 등사

관청을 가정처럼 다스렸네

式官爲家
식관 위가

머리가 희도록 벼슬에 있었으나

白首執板
백수 집판

누구의 은거가 이보다 아름답겠는가

孰遯是嘉
숙돈 시가

공은 이상貳相(좌찬성)에까지 올랐으나

나아가고 물러섬에 몸가짐을 삼갔도다

나이를 핑계로 용기 있게 물러나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네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욕심 없는 마음으로 곧게 살았도다

고을에서는 어른으로 모셨고

멀리 조정에서까지 예의로 공경하였네

수레도 마다하고 겸손하였으나

임금을 그리는 마음 그지없었네

북방의 사람들이

공에 대한 시비를 따졌으나

공이야 어찌 성내거나 민망히 여겼겠는가

단연코 자신을 믿었도다

무덤에 명銘을 새기어

숨은 자취 드러내리라

公躋貳公
공 제 이 공

來去重輕
내 거 중 경

引年勇退
인 년 용 퇴

弊履簪纓
폐 이 잠 영

優遊桑梓
우 유 상 자

抱澹肥貞
포 담 비 정

鄉推達尊
향 추 달 존

朝遠令儀
조 원 영 의

舍車趾賁
사 거 지 비

戀主心違
연 주 심 위

北方之人
북 방 지 인

議公是非
의 공 시 비

公豈慍悶
공 기 온 민

斷乎自謙
단 호 자 심

玄室有刻
현 실 유 각

用昭厥潛
용 조 궐 잠

1. 이이李珥(1536~1584):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 자는 숙헌叔獻
이고 호는 율곡栗谷이
며 시호는 문성文成. 어
머니는 사임당 신씨
로 13세 때 진사초시에
합격. 이후 대사간, 대
사헌, 호조판서, 대제학,
이조판서, 우찬성, 병조
판서 등을 역임했다. 조
선 성리학의 뛰어난 유
학자 중 하나로, 애민·애
국의 입장에서 여러 건
실적인 정책을 제기하였
다. 특히 왜구의 침입을
예견하고 상비군 10만의
양성책, 해방책海防策을
주장했다. 저서로 『율곡
전서栗谷全書』, 주자학
의 핵심을 간추린 『성학
집요聖學輯要』, 아동교
육서인 『격몽요결擊蒙
要訣』, 기자 행적을 정리
한 『기자실기箕子實記』,
민생을 위한 『동호문답
東湖問答』 등 많은 저
서를 편찬했다. 사망 후
1682년(숙종 8)에는 문
묘文廟에 모셔졌다.

홍문관 대제학 율곡 이이¹ 찬弘文館大提學栗谷李珥撰

[原文]

墓誌銘

萬曆壬午三月九日丁卯左贊成錦陽君吳公卒于羅州廣山之第訃聞輟朝致吊祭賻越三月仲夏十五日壬申禮葬于聳珎山先塋之側其原坐艮面坤先葬公之外甥禮曹參議愼公喜男以行狀示德水李珥求幽堂之銘珥重之不敢諾則曰子典文衡職不可辭卜得日促曰誌不具無以掩珥乃因狀而叙曰公諱謙字敬夫系出羅州遠祖季真是高麗中郎將進士贈純忠積德補祚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錦城君諱愼中是公曾王考精忠出氣敵愾功臣嘉善大夫兵曹參判羅城君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襄平公諱自治是公王考富平都護府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羅原君諱世勳是公考平山申氏黃海道觀察使諱自準之孫宗親府典籤贈議政府左參贊諱末平之女 贈貞敬夫人是公妣考妣之 贈以公貴也羅原君前娶金氏亦 贈貞敬夫人公於弘治丙辰九月甲辰生于京都好賢坊第幼而穎悟材氣夙成受業於柳君藕藕於斯文推爲長者公舅申判書錦公之才質亟稱詡焉公年十九甲戌丁外憂二十七中嘉靖壬午進士以胃疾不能居泮申公懼不第乃於乙酉薦授瓦署別提數年例陞東部主簿卽遷司憲府監察出監南平縣莅事明果剛畏弱懷壬辰冬擢文科第二名仍治南平越三年辭疾解綬明年授宜寧縣監邑甚弊賴公經畫得復蘇久之坐法罷庚子拜禮曹佐郎旋陞刑曹正郎俄拜司諫院獻納始參從臣之列自是歷侍講院文學弼善司憲府持平掌令弘文館校理副

應敎累揚清秩壬寅以內瞻寺僉正絜眷歸養母夫人于羅州明年授南原府使甲辰監司宋公麟壽上其治行之最陞通政丙午入拜兵曹參知丁未尹全州府是歲參仲朔功臣宴以恩例陞嘉善封君以親老常乞補外歷潭陽府使光州牧使甲寅丁內憂服闋以戶曹參判被召補兵曹參判大司憲俄還兵亞兼同知春秋館事戊午出按嶺南冬引疾歸鄉己未特陞資憲判禮曹歷大司憲戶刑兵吏四曹判書兼世子賓客知經筵事都摠府都摠管辛酉加正憲拜左參贊甲子陞崇政判中樞府事厥後再判兵吏三拜贊成兼判義禁府事隆慶庚午秋以左贊成謝病乞暇南歸舊業遂不復還朝公天資溫雅處事詳慎中外所歷多舉職長於吏才剖決如流平生不喜發人過失謬雖不外形內有所守大被尹元衡所忌累欲中而不售則其不阿權貴可見第於丁巳作都憲也同僚有誣擠士林者公不克抑以此清望小減至於卜相被劾然知公者謂公心事無他必有能卞之者家食頤神閉戶看書客至多不得見自以多疾博涉醫方頓悟攝生之要常以簡靜自樂食飲起處皆中節宣鄉居與物無忤閭里斂衽無間然者主上累令本道監司賜以優老之資享清閒之福者十有三年壽八十七考終于正寢官庀葬具終始哀榮死生無憾焉公娶竹山安氏安氏之考慥是牧使子誠之子參判迢之孫也夫人與公同年生先公二十九年而歿贈貞敬夫人再娶高興柳氏父進士潭今公之墓占夫人墓西公二男六女男彥厚以蔭補官歷典稷山臨陂今以南平縣監遭艱次男彥寬通德郎壻長卽慎參議次鄭師尹歸厚署別提曰權大勳振威縣令曰尹震曰柳亨進典獄署奉事

曰適宗室鳳林令璘曰彦厚縣監娶偁氏而生一女適士人
李活再娶德水李氏生五男五女男曰琇城璫璉璵女適鄭
貴生尹涉鰲城李恒福朴珩眞羅德昌彦寬生二男三女男
善臣俊臣女適金時獻李揚烈朴應吉愼參議生四子一女
長男餘慶今宰鎮安懸次彦慶文科黃海道都事次重慶介
慶俱業文女適士人玄德亨鄭別提生一男一女男暹漢城
府參軍女適士人鄭瓚權縣令生一男四女男曰鵬女適金
光彧申應渠閔恪皆士人而應渠是上舍生一女幼尹囊夫
妻皆夭無後柳亨進男女七人男長瑛餘幼 銘曰士有登仕
式官爲家 白首執板 孰遯是嘉 公躋貳公 來去重輕 引年
勇退 弊屣簪纓 優遊桑梓 抱澹肥貞 鄉推達尊 朝遠令儀
舍車趾賁 戀主心違 北方之人 議公是非 公豈慍悶 斷乎
自諶 玄室有刻 用昭厥潛
弘文館大提學栗谷李珥撰

2. 우의정 정간공 휘 겸 시장

右議政 貞簡公 諱 謙 諡 狀

공公의 휘는 겸謙이요, 자字는 경부敬夫이고, 호는 국재菊齋 또는 지족암知足菴이다. 오씨의 선조는 나주인羅州人으로서 비조鼻祖는 고려 중기의 진사進士 휘 숙규淑珪이다. 그 후 중랑장中郎將 휘 계진季眞이 있어 휘 영달穎達을 낳았고, 조선 왕조에 들어서면서 지식산군사知益山郡事를 지냈다. 그 아들 휘 신중愼中은 진사로 증贈 이조참판吏曹參判 금성군錦城君에 봉했다.

휘 자치自治를 낳아 세조 때 적개공신敵愾功臣에 녹훈錄勳되고 나성군羅城君에 봉했으며, 별세 후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양평襄平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그 아들 휘 세훈世勳은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로서 별세 후 좌찬성左贊成에 추서追叙되고 나원군羅原君에 봉해졌는데, 이 분들은 공의 고조高祖와 증조曾祖와 할아버지 및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이니, 좌의정左議政 문희공文僖公 휘 개槩의 증손이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휘 자준自準의 손녀로 종친부宗親府 전첨典籤 증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휘 말평末平의 따님이다.

공은 연산 2년(1496) 9월 한성 호현방好賢坊의 저택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재능과 기량器量이 숙성夙成하였다. 저명한 유학자인 서봉西峯 유우柳藕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

하게 되었는데, 서봉이 늘 칭찬하여 그 재능을 인정하였다.

외숙 문절공文節公 신상申鎬이 공의 사람됨을 아끼어 적극 격려하면서 심히 중하게 여기더니, 중종中宗 17년(1522) 성균진사시成均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부친 나원군의 상喪을 당하여 상중喪中에 위병胃病을 얻어 겨우 위기를 넘겼던 탓으로 성균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신공申公이 대과大科에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중종 20년(1525)에 와서별제瓦署別提로 천거薦擧하였다.

임기가 끝나자 예에 따라 동부주부東部主簿로 승진, 다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옮겼다가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나아갔다. 맑고 결단성 있는 정사政事로 관리들은 두려워하였지만 백성은 모두 사모思慕하게 되었다.

중종 27년(1532) 겨울 문과별시文科別試에 제2인으로 급제하여 남평현감에 재임명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자마자 신병으로 체직遞職하고 말았다. 이듬해 의령현감宜寧縣監을 제수받아 다시 외직外職으로 나아갔다. 의령은 원래 피폐한 고을이었으나 공에 힘입어 얼마동안에 소생蘇生하게 되었다. 그 후 한때 연좌連坐되어 파직당하였다가 중종 35년 경자庚子(1540)에 이르러 예조좌랑禮曹佐郎을 발령받고 이내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승진되더니, 갑자기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을 제수하였다.

이로부터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필선弼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장령掌令,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부응교副應教 등을 역임하고, 동 37년 임인壬寅(1542)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으로 임명되자 가족을 이끌고 나주로 귀향, 모부인母夫人의 봉양에 힘썼다.

중종 38년 계묘癸卯(1543) 남원부사를 제수 받고 다음 해 관

찰사觀察使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가 지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 보고 중 으뜸이라고 장계狀啓함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고, 인종仁宗 원년元年 병오丙午(1546) 내직內職으로 들어가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었다.

다음 해 다시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나아갔다가 중삭仲朔 공신연功臣宴에 배석陪席하니 은례恩例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계陞階함과 아울러 금양군錦陽君에 봉해졌다.

이 때 또한 모부인의 연로함을 들어 외직을 자청, 연이어 담양부사潭陽府使와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다.

명종明宗 9년 갑인甲寅(1554) 모부인의 상을 당하자 애통함을 이기지 못한 가운데서도 제반 절차에 소홀함이 없었다.

복服을 마치자 명종 11년 병진丙辰(1556)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부름을 받고 상경하여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취임, 다시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겼다가 재차 병조참판 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명종 13년 무오戊午(1558) 경상감사慶尙監司를 발령받고 외직으로 나아갔으나 그 해 겨울 신병을 얻어 또 다시 귀향하고 말았다.

다음 해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특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발령받고, 그 뒤 대사헌大司憲 및 호조戶曹·형조刑曹·병조兵曹·이조吏曹 등 4조 판서判書를 역임한 한편 세자빈객世子賓客 지경연사知經筵事 도총관都摠管 등을 겸하였다.

명종 16년 신유辛酉(1561)에는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계陞階하여 좌참찬左參贊에 오르고, 동 19년 갑자甲子(1564)에 또한 승정대부崇政大夫로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1. 윤원형 尹元衡 : 조선 중기의 문신. 소윤의 영수이며,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 文定王后의 동생. 명종 원년(1546년)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때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 大尹의 윤임 尹任 등을 사사하고,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을 계기로 대윤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였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삭직되고 강음에 귀양 가서 죽었다.

이로부터 수년 사이에 또 다시 이조, 병조판서를 지내고 세 번 찬성 贊成 겸 판의금부사 判義禁府事가 되었는데, 선조 宣祖 3년 경오 庚午(1570) 가을에는 좌찬성 左贊成에 제수되었으나 신병 치료를 들어 병가를 얻고 귀향한 후 다시 조정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듬 해 조정에서는 3공이 모두 결원 상태여서 대소신료 大小臣僚들이 논의한 끝에 삼공三公의 자리에는 그 덕망으로 미루어 오모 吳某와 같은 분이 또 없다고 하여 우의정 右議政에 발령하니, 당시 사정으로 모두 이를 만족스럽게 여겼으나 한 위언자 爲言者(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고집으로 반전되고 말았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였을 뿐 아니라 매사에 자상하고 신중하여 특히 관리로서의 재능이 뛰어나 정사 政事의 처결은 마치 물 흐르는 것과 같았다.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실로 괄목할만한 치적을 많이 남긴 바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이조·병조 판서 때에는 조정에 요행이나 잔피로 법을 어지럽힌 자 없었고, 비록 억지로 꾸며 이름 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안으로 굳게 지키는 바 있어 일찍이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굽힌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세도가 윤원형 尹元衡¹으로부터 크게 미움과 시기함을 받아 여러 번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었지만, 끝내 흑백 黑白을 가려냈던 엄연한 자세로 미루어 그 기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소인배가 공을 가리켜 지조가 없다느니 하여 함부로 어림잡아 혈뜬은 결과 마침내 상공 相公의 직職을 그만두는데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나 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탄식하여 원망하였다. 이처럼 세상이 스스로 공평한 판단을 내리니 또한 어찌 공의 인품에 손상된 바 있으랴.

공은 원래 신병이 잦았기 때문에 많은 의서를 읽어 섭양攝養의 요要를 알았고, 특히 정부자程夫子의 생사관生死觀에 대한 가르침에 심취하여 여기서 소용될 만한 것을 뽑아내어 한 책을 만들고 이름하여 『이생집頤生集』이라 하였다.

저택에 있을 때는 항상 대문을 잠그고 독서에 집중하곤 하였는데, 그저 간결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일상 기거와 음식은 모두 계절에 맞추어 알맞게 하였고, 고을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는 공손하고 검소·정직하여 그 꾸밈새 없는 태도가 스스로 존귀함을 잇은 듯 느긋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믿고 따랐다.

83세 때에 처신하는 법 및 조상 받드는 법과 선묘先墓 수호하는 법 등 수십조數+條를 수서手書하여 자손들에게 남겼다. 또한 관혼상제 때는 반드시 예법에 따라 실행하니 원근 사람들이 서로 찾아와 이를 본받아 갔다.

선조 임금의 수차 도백道伯에게 명하여 연로한 분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오곤 하였는데, 이렇듯 깨끗하고 고요한 복을 누리 기 실로 십삼年+三年 마침내 수壽 87세로, 선조 15년 임오壬午(1582) 3월 9일 광산 저택 정침正寢에서 서거하였다.

부음이 조정에 이르자 조정을 폐하고 제수 등을 하사하여 조문하고 치제致祭하니, 5월 5일에 용진산湧珍山 원당元堂 선영 곁 뒷등 간좌원艮坐原에 예장하였다.

이 때 또한 관청에서 상구喪具를 보조함에 그 생사와 영애榮

哀에 어찌 여한이 있었으랴. 율곡栗谷 이이李珣 선생이 공의 묘지명으로 “한 선비 벼슬에 올라 관청을 가정처럼 다스렸네. 머리가 희도록 벼슬에 있었으니 누구의 은거가 이보다 아름답겠는가. 공은 이상貳相(좌찬성)에까지 올랐으나 진퇴를 삼갔도다. 나이 핑계 선선히 물러나 벼슬을 헌신짝처럼 여겼도다.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담박하고 곧게 살았도다. 고을에서는 어른으로 모셨고 조정에선 멀리까지 예의로 공경하였네. 수레도 마다하고 겸손하였으나 임금 그리는 마음 그지없었네. 북방 사람들이 공에 대한 시비를 따졌으나 공이야 어찌 성내거나 민망히 여겼겠는가. 단연코 자신을 믿었도다. 무덤에 명銘을 새기어 숨은 자취 드러내려네.” 라고 읊었다.

잠곡潛谷 김육金堉 문정공文貞公이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을 편찬할 때에 공의 사적을 수록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부인 죽산안씨竹山安氏는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공의 묘소와 같은 자리에 있다. 그 선친은 처사處士 조槌요, 할아버지는 목사牧使 자성子誠이며, 증조曾祖는 참판參判 초迢이다. 재취 부인은 고흥유씨高興柳氏이고, 아버지는 진사 담潭이다.

공은 2남 6녀를 두어 장남은 언후彦厚인데 음관蔭官으로 임피현령臨陂縣令이며, 차남은 언관彦寬인데 통덕랑通德郎이다. 장녀는 감사監司 신희남愼喜男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 정사윤鄭師尹과 진위현령振威縣令 권대훈權大勳, 윤영尹甕, 현감縣監 유형진柳亨進에게 각각 시집을 갖고, 막내 따님은 종실宗室 봉림군鳳林君 린璘에게 출가했다.

장남 언후는 5남 6녀를 두어 아들은 주부主簿 수琇, 참봉參奉 감臧, 헌獻, 연璉, 진璉이요, 딸은 이활李活, 정귀생鄭貴生, 윤섭尹

涉,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박형진朴珩眞, 나덕창羅德昌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지금 공의 제사祭祀를 받들고 있는 것은 언관의 증손曾孫 경석慶錫이다.

차남 언관彦寬은 2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선신善臣, 준신俊臣이고, 딸은 김시헌金時獻, 이양렬李揚烈, 박응길朴應吉에게 시집갔다.

신희남 감사監司는 4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여경餘慶은 현감이며, 차남 언경彦慶은 사간司諫이다. 다음으로 중경重慶, 개경介慶이 있고, 딸은 현덕형玄德亨에게 출가했다.

정사윤 별제別提는 1남 1녀를 두어 아들 섬遲은 한성부참군漢城府參軍이며, 딸은 정찬권鄭攢權에게 시집갔다.

권대훈 현령懸鈴은 1남 4녀를 두어 아들 곤鵬은 동추총관同樞摠管이며, 장녀는 김광욱金光彧, 차녀는 승지承旨 신응구申應渠, 다음은 민각閔恪, 막내는 증 판서判書 김인백金仁伯에게 출가하니, 이 분이 곧 나의 고조高祖가 되신다.

윤영尹震의 부처夫妻는 함께 일찍 세상을 떠서 뒤를 잇지 못했다.

유형진 현감縣監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영璜은 진사進士로서 효성이 뛰어나 정려旌閭가 내려졌고, 다음은 현玆, 린璘, 선瑄이 있다. 장녀는 정랑正郎 오익창吳益昌에게, 차녀는 참봉參奉 신응순辛應純에게 출가하였다.

증손曾孫 이하는 일일이 여기 모두 수록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 현감의 손으로 부제학副提學 천익天翊과 좌랑佐郎 해익海翊은 문학과 청명淸名으로 그 이름이 높으며, 현덕형玄德亨의 외손으로서 판서判書 남이성南二星과 영의정領議政

1. 김재로 金在魯(1682~1759)
: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중례 仲禮, 호는 청사 淸沙·허주자 虛舟子이고, 시호는 충정 忠靖. 1702년(숙종 28) 진사시 합격, 1710년 춘당대문과 春塘臺文科 을과 급제 후 호조·이조의 참의, 부제학, 좌부승지, 대사간 등을 지냈다. 유배와 파면을 당한 후 1740년(영조 16) 영의정에 오른 후 관직을 물러날 때까지 영의정을 4차례나 지낸 정치가이다. 노론 선봉자로 활약했고, 1746년에 김종서 金宗瑞·황보인 皇甫仁의 복관을 건의하여 신원케 했으며, 지춘추관사로 실록도청당상 實錄都廳堂上을 겸직해 『경종실록 景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저서로 『친의소감언해 聞義昭鑑諺解』, 『난여爛餘』가 있다. 50여 년을 관직에 있으면서 결백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박식하며 예학에 깊었고, 상하가 신망하는 재상으로서의 풍모를 지냈다. 벼슬을 그만둔 뒤 집에 있으면서도 국사를 잊지 않았다.

에 오른 남구만 南九萬이 있고, 최규서 崔奎瑞와 응교 應敎 박태보 朴泰輔, 신 申 승지 承旨 및 여서 女壻에 이시발 李時發이 판서 判書로 있는데, 이 누 판서와 나의 고조 高祖와 두 집안의 내외 內外 자손 子孫이 가장 번성하여 공경 公卿과 재상 宰相의 명망에 오른 인물을 모두 여기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호라! 공이 세상을 뜨신 지 올해로 166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라의 시호 諡號를 받는 특전을 입지 못하고 있다. 공의 계제 季弟 한성서윤 漢城庶尹 원 諱의 5대손인 현 이산현감 兪尼山縣監 대경 大經이 공의 훌륭한 행적이 자칫 빠뜨려지므로써 그 명덕 名德이 묻혀버릴까 크게 염려한 나머지 상세한 기록을 갖추어 이를 조정에 보내어 공의 시호를 청하고자 부족한 재로 在魯(찬자)에게 글을 부탁하니, 내가 외람되게도 공의 외손이요 본시 양모 仰慕했었을 뿐 아니라 이산현감의 성의에 감동하여 감히 불문함을 내세워 사양치 못하였다.

다만 공후 公後 한 때 자손이 쇠잔한 데다 누차의 병화로 가적이 흩어져 공이 남긴 글과 행적이 하나도 전해진 바 없음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여기 율곡이 지은 묘문이 남아 있으니 비록 문체가 간략하여 혹 기술에 있어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 백세 百世에 걸쳐 사실을 징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삼가 이 글을 근거삼아 거기에 전해 내려온 사실 한두 가지를 덧붙여 약간 윤색한 끝에 변변치 못하나마 시장 諡狀을 이루니, 이로써 증시 贈諡를 맡아보는 봉상시 奉常寺의 의결에 대비해 두고자 한다.

의정부 영의정 김재로¹ 근장 議政府領議政 金在魯 謹狀

[原文]

諡狀

公諱謙字敬夫吳氏其先羅州人鼻祖麗朝進士淑珪其後有中郎將季真生諱穎達入我朝知益山郡事生諱愼中進士 贈吏曹參判錦城君生 諱自治策 世祖朝敵愾功臣兵曹參判羅城君 贈吏曹判書襄平公生諱世勳富平都護府使 贈左贊成羅原君寔公之高曾祖禰也妣贈貞敬夫人平山申氏左議政文僖公諱槩之曾孫黃海道觀察使諱自準之孫宗親府典籤 贈議政府左參贊諱末平之女以弘治丙辰九月生公于京都好賢坊之第幼穎悟材氣夙成受學於斯文柳西峰藕西峰亟稱許之內舅申文節公錫愛公之才期勉甚重嘉靖壬午成均進士以前遭羅原君喪喪中得胃疾幾危故不能居泮申公懼不第乃於乙酉薦授瓦署別提仕滿例陞東部主簿遷司憲府監察出南平縣監爲治明果吏懾民懷嘉靖壬辰我 中廟二十七年冬擢別試文科第二名仍任南平越三年病遞明年授宜寧縣監宜素弊邑而賴公得蘇久之坐事罷庚子拜禮曹佐郎移刑曹正郎俄薦司諫院獻納自是遍歷侍講院文學弼善司憲府持平掌令弘文館校理副應教壬寅以內膳僉正挈眷歸養母夫人于羅州癸卯授南原府使甲辰觀察使宋圭庵麟壽上治行第一陞通政丙午入爲兵曹參知丁未復出爲全州府尹參仲朔功臣宴以恩例陞嘉善封錦陽君又以親老乞外連除潭陽府使光州牧使甲寅遭艱哀毀盡禮丙辰憂吉以戶曹參判召轉兵曹移大司憲還兵亞兼同知春秋戊午出按嶺南冬引疾還鄉己未特陞資憲判禮曹歷大憲戶刑兵吏四書兼

世子賓客知 經筵都摠管辛酉加正憲拜左參贊甲子陞崇政判中樞數年間再判吏兵曹三拜贊成兼判義禁隆慶庚午我 宣廟三年秋以左贊成謝病乞暇南歸遂不復還朝辛未夏三公缺員僉曰宿德重望無如吳某遂擢議政府右議政物情允愜而爲言者所持旋免公天資溫雅處事詳慎尤長於吏才剖決如流歷職中外隨有著績屢長兩銓官無倖路雖不喜皎厲爲名而內守甚確未嘗撓屈以此大被尹元衡所忌嫉累欲中傷則涇渭之嚴可見而後生輩謂公少持操妄加訾訾至論遞相職知公者莫不爲之嗟惋而世自有公評竟亦何損於公哉公自以多病博涉醫方頗知攝養之要深有味乎程夫子忘生徇欲之戒嘗抄著一篇書名曰頤生集家居閉戶看書惟以簡靜自樂飲啖起居皆中節宣與鄉人處恭儉真率由由然忘其尊貴而人自欽悅而信服焉八十三歲時嘗手書行己之方奉先之儀守護先墓之規凡數十條以貽後昆冠昏喪祭必以禮法遠近皆來取則 宣廟累命道臣致養老需享清閒之福十有三年壽八十七而以壬午三月九日考終于廣山居第之正寢訃聞輟朝致吊祭賻五月五日禮葬于聳珞山元堂先塋側負艮之原官庀喪具其生死榮哀無餘憾矣栗谷李先生銘公墓曰 士有登仕式官爲家 白首執板孰遯是嘉 公躋貳公 來去重輕 引年勇退樊履簪纓 優遊桑梓 抱澹肥貞 鄉推達尊 朝遠令儀舍車趾賁 戀主心違 北方之人 議公是非 公豈慍悶斷乎自謙 玄室有刻 用昭厥潛 潛谷金文貞公纂東國名臣錄收編公事蹟刊行于世內子竹山安氏先公歿與公同墓考曰處士慥祖曰牧使子誠曾祖曰參判迢再娶高興柳氏考

曰進士潭公二男六女男彥厚蔭官臨陂縣令次男彥寬通
德郎女長適監司愼喜男次歸厚署別提鄭師尹次振威縣
令權大勳次尹霽次縣監柳亨進次宗室鳳林君璘長男彥
厚五男六女男長主簿琇次參奉瑊次璫璉璵女適李活鄭
貴生尹涉領相鰲城李恒福朴珩眞羅德昌今承公祀者彥
寬之曾孫慶錫也次男彥寬二男三女男曰善臣俊臣女適
金時獻李揚烈朴應吉愼監司男餘慶縣監次彥慶司諫次
重慶介慶女適玄德亨鄭別提男暹漢城參軍女適鄭瓚權
縣令男鷗同樞摠管女適金光彧次承旨申應渠次閔恪次
贈判書金仁伯卽我高祖尹霽夫妻俱歿無后柳縣監男瑛
進士以孝旌閭次玪璘瑄女適正郎吳益昌次參奉辛應純
曾孫以下不書而其顯者則愼縣監孫副提學天翊佐郎海
翊俱以文學清名著聞玄德亨外孫判書南二星領議政南
九萬崔奎瑞應教朴泰輔申承旨女婿判書李時發李判書
暨我高祖內外子孫最盛公卿相望而不能盡錄嗚乎今距
公之下世百六十有六年而迄未舉易名之典公之季弟漢
城庶尹諶之五代孫今尼山縣監大經大懼彝章終闕名德
浸湮謀欲其狀請于朝猥以文字托在魯在魯忝在彌甥慕
仰有素且感尼山君誠意不敢以不文辭第恨公後承殘微
重以累經兵燹家籍蕩佚遺文遺行之記述者無一之傳焉
而獨栗谷所撰墓文在耳雖文主於簡事或疎闕而亦足以
徵信百世謹就其文參以一二傳聞略加潤色粗成狀體而
歸之以備太常之採節焉 議政府領議政 金在魯謹狀

3. 광산사 정향축문

명망이 높아서 이상에 오르고

望重貳公
망 중 이 공

천수와 존귀함을 모두 갖추었네

壽兼達尊
수 겸 달 존

고향에 은거하여 아름답게 살았고

梓鄉嘉遯
자 향 가 둔

백성에게 끼친 사랑 영원토록 잊지 않네

遺愛永存
유 애 영 존

[原文]

廣山祠丁享祝文

望重貳公 壽兼達尊 梓鄉嘉遯 遺愛永存

승정대부 우의정 금양군(휘 겸) 관보

연월일	이력사항	자료출처
1496년 9월 1일 (연산군 2년)	한성漢城 호현방好賢坊(현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출생 고종 부평도호부사 나원군 오세훈, 비妣 평산신씨 서봉西峰 류우柳藕 문하에서 수학	묘지명墓誌銘 시장謚狀
1522년 (중종 17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묘지명, 시장
1525년 (중종 20년)	외숙 문절공文節公 신상申鎰의 천거로 와서별제瓦署別提에 임용	묘지명, 시장
1528년 5월 3일 (중종 23년)	특채된 관원들의 평가시험 (題：言行君子之樞機)에서 수석	중종실록 31책 61권
1529~1532년 (중종 24~27년)	동부주부東部主簿에 승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전보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발령	묘지명, 시장
1532년 (중종 27년)	문과文科 제2등으로 급제 남평현감에 그대로 유임	국조방목國朝榜目 묘지명
1537년 (중종 32년)	의령현감宜寧縣監에 발령	묘지명, 시장
1540년 (중종 35년)	예조좌랑禮曹佐郎에 발령 형조정랑刑曹正郎에 승진	묘지명, 시장
1540년 5월 12일 (중종 35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승진 전보	중종실록 47책 93권 묘지명, 시장
1541년 3월 16일 (중종 36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전보	중종실록 48책 94권 묘지명, 시장
1541년 3월 20일 (중종 36년)	시강원侍講院 문학文學, 필선弼善 등을 겸임	묘지명, 시장

1541년 5월 28일 (중종 36년)	조강에 나가 가뭄과 농사에 대한 대책을 논하다	중종실록 48책 95권
1541년 11월 8일 (중종 36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승진	중종실록 49책 96권 시장
1541년 11월 28일 (중종 36년)	대사헌 송인수와 함께 사헌부장령으로 재앙과 변고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관리들이 민생을 소홀히 하고 인재 등용을 잘못된 때문이라는 상소를 올리다	중종실록 49책 96권 시장
1542년 1월 9일 (중종 37년)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전보 부응교副應教 역임	중종실록 49책 97권 묘지명, 시장
1542년 (중종 37년)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에 전보 —노모 봉양을 위해 가족과 함께 나주 삼가리 (현 광산구 삼도동)로 낙향	묘지명, 시장
1542년 4월 23일 (중종 37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발령	중종실록 50책 98권
1542년 12월 1일 (중종 37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승진	중종실록 50책 99권
1543년 (중종 38년)	남원부사南原府使에 발령	묘지명, 시장
1544년 2월 27일 (중종 39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자陞資 —전라도관찰사 송인수가 관내 수령 중 남원부사 오겸의 치 적을 최상으로 평가하여 조정에 올림	중종실록 52책 102권 묘지명, 시장
1545년 (인종 1년)	병조참지兵曹參知에 보임	묘지명, 시장
1547년 3월 6일 (명종 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발령(미취임)	명종실록 5책 5권
1547년 7월 21일 (명종 2년)	순천도호부사順天都護府使에 발령(미취임)	명종실록 5책 6권
1547년 8월 13일 (명종 2년)	전주부윤全州府尹에 발령	명종실록 5책 6권 묘지명, 시장
1547년 9월 16일 (명종 2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자陞資	명종실록 5책 6권 묘지명, 시장

1550년 2월 11일 (명종 5년)	금양군錦陽君에 봉함 (김해부사金海府使에 발령 후 미취임)	명종실록 8책 10권 묘지명, 시장
1550년 2월 28일 (명종 5년)	담양부사潭陽府使에 발령 — 송순宋純의 면앙정旼仰亭 중건을 지원	명종실록 8책 10권 묘지명, 시장
1553년 6월 16일 (명종 8년)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영전	명종실록 10책 14권 묘지명, 시장
1554년 5월 19일 (명종 9년)	모친(정경부인 평산신씨)상을 당함 — 하서 문정공 김인후에게 묘지명을 찬撰 받음	묘지명, 시장
1556년 10월 14일 (명종 11년)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승진 발령	명종실록 14책 21권 묘지명, 시장
1557년 3월 8일 (명종 12년)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전보	명종실록 14책 22권 묘지명, 시장
1557년 3월 9일 (명종 12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발령	명종실록 14책 22권 묘지명, 시장
1557년 7월 24일 (명종 12년)	병조참판으로 전보	명종실록 15책 23권 묘지명, 시장
1557년 12월 15일 (명종 12년)	춘추관동지사春秋館同知事 겸임	명종실록 15책 23권 묘지명, 시장
1558년 1월 9일 (명종 13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발령 — 詩集『동주집東洲集』 발간(퇴계 이황 발문)	명종실록 15책 24권 묘지명, 시장
1559년 3월 21일 (명종 14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임명	명종실록 16책 25권 묘지명, 시장
1559년 8월 10일 (명종 14년)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임명	명종실록 16책 25권 묘지명, 시장
1560년 9월 24일 (명종 15년)	사헌부대사헌에 재임명 — 지방 수령들의 선정비善政碑 건립 폐단을 임금에게 보고	명종실록 16책 26권 묘지명, 시장
1560년 12월 21일 (명종 15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임명	명종실록 16책 26권 묘지명, 시장
1561년 6월 12일 (명종 16년)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	명종실록 17책 27권 묘지명, 시장

1562년 6월 14일 (명종 17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명	명종실록 17책 28권 묘지명, 시장
1562년 7월 14일 (명종 17년)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재임명	명종실록 17책 28권 묘지명, 시장
1562년 9월 5일 (명종 17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보임	명종실록 17책 28권 묘지명, 시장
1562년 9월 9일 (명종 17년)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승자陞資	명종실록 17책 28권 묘지명, 시장
1562년 9월 10일 (명종 17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보임	명종실록 17책 28권 묘지명, 시장
1563년 2월 10일 (명종 18년)	호조판서에 재임명	명종실록 18책 29권 묘지명, 시장
1563년 8월 7일 (명종 18년)	지경연사知經筵事 겸직 —간리와 호족들이 농간을 부려 조세 면탈, 가난한 백성들만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므로 적절한 방책을 세울 것을 건 의	명종실록 18책 29권 묘지명, 시장
1564년 1월 22일 (명종 19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겸직	명종실록 18책 30권 묘지명, 시장
1564년 2월 17일 (명종 19년)	의정부 우찬성右贊成에 승진	명종실록 18책 30권 묘지명, 시장
1564년 7월 2일 (명종 19년)	병조판서에 재임명	명종실록 18책 30권 묘지명, 시장
1565년 1월 21일 (명종 20년)	연로(70세)함을 이유로 임금에게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허하 고 궤장几杖을 하사 받았음	명종실록 19책 31권 묘지명, 시장
1565년 2월 30일 (명종 20년)	이조판서에 재임명 (고봉 기대승을 이조정랑에 보임)	명종실록 19책 31권 묘지명, 시장
1566년 1월 18일 (명종 21년)	송정대부崇政大夫에 승자陞資 의정부 우찬성에 재보임	명종실록 20책 32권 묘지명, 시장
1567년 (선조 즉위년)	원상院相에 임명되어 국가 기무機務를 참결	선조수정실록 1책 4권
1568년 5월 11일 (선조 1년)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에 승진	선조실록 1책 2권 묘지명, 시장

1568년 8월 12일 (선조 1년)	도청당상都廳堂上으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	선조실록 1책 2권
1570년 12월 1일 (선조 3년)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나주 삼가리(현 광산구 송산동)로 내려 감	선조수정실록 1책 4권 묘지명, 시장
1571년 5월 1일 (선조 4년)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됨	선조수정실록 1책 5권 국조대신년표, 시장
1574년 3월 11일 (선조 7년)	재상을 지낸 오겸에게 음식을 내려 예우하도록 어명	선조실록 5책 8권
1580년 4월 28일 (선조 13년)	재상을 지낸 오겸에게 식료품을 내리도록 또다시 어명	선조실록 8책 14권
1582년 3월 9일 (선조 15년)	별세別世, 향년 87세 — 조정에 부음이 전해지자 조회를 폐하고 장례 지원을 하다 — 당시 대제학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묘지명墓誌銘을 지음	선조실록, 묘지명
1748년 10월 3일 (영조 24년)	나라에서 시호諡號 정간貞簡을 내림	영조실록 51책 68권 시장

* [주]: 자료 출처

1.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을 기준으로 하였음.
2. 묘지명墓誌銘: 홍문관 대제학 율곡 이이 찬.
3. 시장諡狀: 의정부 영의정 김재로 찬.

□ 남행 관원들의 시험에서 별좌 오겸이 수석을 차지했는데 서책 1건을 내리다

—중종실록 61권, 중종 23년 5월 3일 계유 2번째 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이 날 ‘언행은 군자의 추기[言行君子之樞機]’라는 제목으로 부賦를 짓는 것으로 남행南行 관원들에게 시험을 보이도록 하였다. 별좌別坐 오겸吳謙이 수석을 차지했는데 서책 1건을 내리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25장 B면 【국편영인본】 16책 660면

□ 조강에 나아가 가뭄과 농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5월 28일 계축 1번째 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오겸吳謙이 아뢰기를,
“지난해에는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이 굶는 고통이 매우 심한데, 밀보리가 거의 다 그르쳐졌다가 마침 비가 내려서 조금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실한 것은 3분의 1로 6월을 넘지 못하여 먹을 것이 모자랄 것입니다. 농사는 본디 올벼로 밀보리를 이어 가는데, 올해에는 올벼를 그르쳤고 밀보리도 먼저 떨어졌으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이래서 급합니다. 듣건대 각 고을의 곡식은 초봄에 많이 주었으므로 창고에 남은 것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끝내 농사를 그르치면 진구賑救를 이어 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7~8월은 올벼를 아직 거

뒤들이지 못할 때이므로 굶어 죽는 백성이 많을 것이니, 반드시 백성의 힘을 쉬게 하여 스스로 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면 조금 저축이 있는 자까지도 다 관창¹의 곡식을 바라니, 수령을 시켜 궁벽한 마을까지 드나들며 있고 없는 것을 분간하여 고르게 진구²하게 하고, 긴요하지 않은 공부³ 같은 것도 감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제언사⁴가 물을 저장하려고 각 고을의 제언이 있는 모든 곳에 사표⁵를 바꾸어 나무를 심고서 침점⁶을 막고 제언안을 파게 하는데, 그 절목⁷에 ‘가을에 관원을 보내어 적간⁸하여 내치고 색리⁹는 전가사변¹⁰한다.’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침점하는 자가 어찌 없겠으며, 이미 씨를 뿌렸는데 침점이라 하여 이제 바로 잡는다면 이미 뿌린 곡식도 죄다 버리게 되어 일이 매우 온편하지 못할 것이니, 가을걷이가 끝나거든 경차관¹¹을 보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진구하는 일이 긴급할 때에 미치지 못한다면, 백성이 굶어서 괴로울 것이다. 제언의 일은 해야 하나, 농사철에 폐단이 있고 이미 심은 곡식도 버릴 수 없으니, 가을걷이 뒤에 분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이하 생략)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31장 B면 【국편영인본】 18책 467면

1. 관창^{官倉}: 관가의 창고.
2. 진구^{賑救}: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함.
3. 사표^{四標}: 사망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이를테면 동은 어느 산등성이, 남은 어느 냇물, 서는 어느 길, 북은 어느 골짜기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4. 침점^{侵占}: 침노하여 빼앗아 차지함.
5. 적간^{摘奸}: 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핌.
6. 색리^{色吏}: 그 일을 담당한 아전.
7. 전가사변^{全家徙邊}: 『대명률^{大明律}』의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로, 죄인의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는 것인데, 대개 변방을 충실하게 할 목적을 겸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 지방으로 보낸다.
8. 경차관^{敬差官}: 특별한 일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임금이 차출하여 지방에 보내는 당하관^{堂下官}.

□ 재앙 변고가 나타나는 것은 민생 폐단 인재를 잘 선택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송인수 등의 상고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28일 경술 1번째 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1. 말사末事: 중요하지 않은 일.

사헌부 대사헌 송인수宋麟壽의 뜻을 받아 장령 오겸이 소疏를 지어 상고하였다.

“하늘이 재변을 보여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인사人事가 더욱 닳여지고, 임금이 자신을 반성하여 하늘의 뜻에 부응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의 잘잘못을 상고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뜻을 살피고 재변을 그치게 하려면 반드시 인사人事를 미루어 생각하는 것이니,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응답하는 것이 분명하여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근년 이후 하늘의 재앙과 계절의 변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에 더욱 심하여,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며 전염병이 겹쳐 백성과 가축이 함께 죽어갑니다. 하늘의 경계가 이처럼 절박하니, 참으로 아픔을 느끼고 깊은 물가에 이른 듯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며, 자신을 반성하여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다하고 근본을 튼튼히 하고 실천을 힘써야 하늘의 위엄에 답하는 것이 될 것인데, 형식적인 말사末事¹에만 얽매이고 잔단 법령에만 힘쓰므로, 자신을 반성하고 근본을 추구하며 삼가하는 몸가짐으로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재앙이 그치지 않고 경고가 계속됩니다. … (중략) …

하늘의 꾸짖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설사 국가에 잘못된 정사와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미에 밝은 군자

라면 멀리 염려하여 현재를 살핍으로써 점점 잘못되어 가는 기미를 막아 오히려 숨어 있는 재앙이 생각지 못한 때 발생할까를 염려하는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조정의 잘못과 백성의 많은 원망이 모두 하늘의 재앙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한두 가지만 간추려 본다면, 궁궐 안이 정돈되지 않아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道가 엄숙하지 못하고, 여알女謁¹이 성행하여 공도公道가 막히고, 사치가 날로 더하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날로 심해져서 습속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탐오貪汚²하는 것이 풍조가 됨으로써 벼슬길이 청렴하지 못하여,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士氣가 떨어져 민생의 고통이 지금보다 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습에 안주하고 예사로 보아 넘기는 데 익숙하여, 즉시 두려워하고 마음을 돌려 도道로 향하지 않음으로써 하늘의 인애仁愛³하는 마음이 변하여 망망茫茫⁴하게 하고, 걱정하고 보살피 주는 뜻이 변하여 막막漠漠하게 하니, 신들은 국가의 위태로움이 조석朝夕 간에 발생하여도 구제할 수 없을까 하여 깊이 걱정합니다. 몸을 닦아 근본을 세우고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여 성실하기에 힘쓰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실로 근본이 확립되고 성실한 뜻이 돈독해지면, 정사政事의 법령과 응접應接하는 도리에 있어서 자연 순서대로 되어 각각 당연한 이치에 맞게 될 것이므로 하늘이 사람에게 감응하는 이치는 기약하지 않아도 감응하게 되기 마련이니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시종侍從⁵이 이런 뜻으로 아뢰고 대간이 이것을 고집하여 아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전하께서도 익히 들어 항상 걱정하는 빛을 보이셨습니

1. 여알女謁: 대궐 안에서 정사政事를 어지럽게 하는 여자.
2. 탐오貪汚: 욕심이 많고 하는 것이 더러움.
3. 인애仁愛: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4. 망망茫茫: 넓고 멀어 아득한 모양, 어둡고 아득함.
5. 시종侍從: 임금을 모시고 있던 시종원侍從院의 한 벼슬.

1. 풍화風化: 교육과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시킴.

2. 좌전左傳: 『춘추春秋』를 해석하여 지은 것으로, 노나라의 좌구명左丘明으로 전해진다. 30권의 약 20만 자로, 노의 은공隱公 원년(기원전 722)~애공哀公 27년(기원전 468)에 이르는 254년 동안의 춘추열국春秋列國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인물의 활동과 사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역사적인 동향을 지적하고 작자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전설을 취하여 작자 자신의 느낌과 상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3. 산택山澤: 산림천택山林川澤, 즉 산과 숲과 내와 못.

다. 그러나 안으로 경계하여 고치려는 뜻이 없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였다는 명분만 있을 뿐 끝내 간언을 받아들이는 실상이 없으니, 말하는 자가 언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라고 여겨서 그다지 유념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평한 세상이 오래 계속되어 사람들의 습속이 자연 나쁜 데로 흘러 사람의 노력으로는 갑자기 고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예사로 보아 넘겨서인지, 아니면 고치려 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 (중략) …

대체로 풍화風化¹의 근본이란 자신을 단속하여 가정을 바르게 하는데 있고,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귀한 신분과 근친近親으로부터 술선해야 하는 것인데, 요즘 왕자王子나 부마駙馬의 가정에 올바른 방도로 훈계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고, 극도로 사치만을 숭상하여 혼인에는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기 만을 힘쓰고, 집을 짓는 데는 웅장하고 크게 하는 데 힘쓰며, 수레나 의복·가재도구의 수효는 날로 불리고 키우며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은 이웃 마을에까지 잇대어 걸치니, 밖으로는 백성의 재력이 고갈되고 안으로는 국가의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도 주상께서 걱정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랑에만 치우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좌전左傳²』에 ‘궁실宮室이 사치를 힘쓰면 백성의 재력이 고갈되어 원망과 비방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백성들이 능히 목숨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끼는 것이 바로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귀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치를 숭상함이 너무 심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산택山澤³을 다투어 점령하고 전원田園가

꾸기를 힘쓰며 갖고 싶은 것만 구하려 할 뿐 그 밖의 것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받는 총애를 믿고 시정市井의 무리와 어울려 번번이 법을 어기고 진소陳訴¹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이윤利潤을 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데도, 전하께서 사랑에 치우쳐 때로는 잘못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름으로써 사사로운 뜻을 이루게 해주어 이익을 좇고 탐욕을 부리는 곳으로 계도啓導하니, 이런 식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백성을 훈도하면 백성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탐욕의 풍조가 크게 번지고 사치하는 것이 날로 심하여 위로는 궁궐에서 아래로는 시골 구석에서까지 혼인이나 건물·의복·음식 등을 분수에 넘치고 법도에 지나치게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사치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니 기강이 없어지고, 허비가 많아져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여 백방으로 노력해도 겨두어들일 재주가 없으며, 백성은 기근으로 떠돌아다니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처지에 위로는 미리 공물을 징수하는 데 시달리고 아래로는 혹독한 수색需索²에 곤욕을 치루고 있어 죽음에서 구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것을 보전하겠습니까. … (중략) …

이리하여 결국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다스리지 않고, 그저 법령이나 금제禁制³ 등의 소소한 일에는 언제나 부지런하며, 자질구레한 관청의 사무에도 신재宸裁⁴가 번거로우니 이는 지존至尊의 위엄을 굽혀 유사有司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큰 근본이 확립되지 못하니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고, 질서가 어긋나니 힘만 들고 도움됨이 없습니다. 규찰하고 검칙檢勅하는 소임은 이목지관耳目之官⁵에게만 맡기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는 중책은 겨우 탄핵하는 것에만 의지하니

1. 진소陳訴: 사정을 말하여 하소연함.
2. 수색需索: (재물을) 요구하다. 토색질이 그치지 않다.
3. 금제禁制: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함. 또는 그런 법규.
4. 신재宸裁: 임금의 결재.
5. 이목지관耳目之官: 감찰을 맡은 벼슬.

1. 인주人主: 임금.
2. 차자箴子: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실만을 간략히 적어 올리던 상소문.
3. 청선淸選: 적당한 물건이나 인물을 바르게 고를. 또는 초빙하여 맡기던 벼슬.
4.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를 아울러 이르던 말.
5. 훈유薰蕕: 향기가 나는 풀과 악취가 나는 풀. 전하여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의 뜻으로 쓰임.
6. 민옥珉玉: 민은 옥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가리키고, 옥은 진짜 옥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현인賢人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7. 출척黜陟: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이러고도 다스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까마득한 일이 아닙니다. 후설喉舌의 직책에 있는 자는 임금의 말을 출입出入할 뿐만 아니라 아뢰거나 명을 받들 적에 일에 따라서는 바른 말을 아뢰어 인주人主¹의 비벽非僻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간이 올린 차자箴子²의 뜻으로 하문할 때에 공론이 지적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아첨하고 순종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까이 모시는 청선淸選³된 사람도 오히려 이러하니 사기士氣가 쇠퇴한 정도를 알 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도公道가 시행되지 못하고 사사로운 문벌만 크게 성하였고 사로仕路가 막지 못하여 어진 자와 어질지 못한 자가 뒤섞였습니다. 전조銓曹⁴의 인선人選은 공정해야 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는데도, 벼슬에 나가는 길은 반드시 세도가의 문벌에서 이루어집니다. 빈 자리가 하나 있으면 청탁하는 편지가 운집하므로 전조에서도 취사取捨하기가 어려워 청탁한 자의 직위 고하高下만을 보고 주의注擬의 높낮이를 정하려 합니다. 세족世族이라고 해서 꼭 다 쓸만한 것은 아닌 데도 배우지 못한 어린 사람이 문득 천거되어 발탁되는 반열에 있고, 한미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해서 꼭 다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경서에 통달한 백수白首의 선비는 끝내 스스로 발탁될 길이 없어,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가리지 못하니 정正과 사邪를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훈유薰蕕⁵가 섞여 벼슬에 나가고 민옥珉玉⁶이 함께 벼슬에 올라, 오래 되기만 하면 점점 품계와 자급이 오르고 정도正道를 지키고 공도公道를 만드는 자를 발탁하는 특별한 포상이 없으니 출척黜陟⁷이 엄정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뒤섞이기도 하여 전殿에 해당되는 데도

최最로 하고 최로 해야 하는데도 전으로 하니, 모두가 사사로
운 청탁에 따른 것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에 연유한 것입니
다. … (중략) …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스스로 힘써 실천하고 분발하
여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
게 함으로써 백관百官을 바르게 한다면, 감응되어 변화해 가는
속도는 말로는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
게 하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걱정하고 근면할지라도 역시 대체
大體¹에는 도움됨이 없어 결국은 습속이 해이해지고 말 것입니
다. 성상의 말씀이 정녕스럽지만 감동됨은 일시일 뿐 오래도
록 유지되는 유익함이 없어, 모든 관료는 소심하고 세무細務에
만 부지런하여 서류 정리나 잘하고 기한을 지키는 데 급급하여
책임이나 면하려는 데 불과할 뿐이며, 이목耳目의 욕심에 끌리
고 현혹되어 개인적인 일이나 할 뿐이니, 어떻게 자기가 맡은
직책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국가의 재앙이나 변고
는 언제나 민심이 떠나고 원망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니, 민
심이 떠나거나 함하는 기미는, 그 단서는 매우 미미하지만 그
재앙은 매우 참혹합니다. 지금 백성은 곤궁하고 재정은 고갈되
어 나라가 텅 비어 국세國勢가 극도로 약해졌으니, 재앙이 겹치
는 것이 괴이할 게 없습니다. 옛날 송경공宋景公이 임금다운 말
을 하자 형혹성熒惑星이 물러갔다² 하니 하늘의 들음이 비록 높
다고 하지만 감동이 되면 통하는 것입니다. … (중략) …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은 궁궐 안에서 지기志氣가 청
명淸明할 때,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하여 자신을 돌이켜
고요히 살펴보고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분기점을 살펴서, 천리

1. 대체大體: 사물事物의 전체全體에서 요령要領만 따낸 줄거리. 대강의 요점要點만 따서 말하자면.

2. 송경공宋景公이 임금다운 말을 하자 형혹성熒惑星이 물러갔다: 춘추시대 송경공 때에 살별인 형혹성이 심성心星을 범하였으므로, 경공이 사성관司星官 자위子韋를 불러 묻자, 자위가 “재앙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상에게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였다. 경공이 “재상은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다.”자 자위가 “그렇다면 백성에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하니 경공이 “백성이 죽어버리면 내가 누구를 데리고 임금 노릇을 하겠는가.” 하므로 자위가 “그렇다면 해[歲]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흉년이 들면 백성이 다 굶어 죽을 것이니, 임금으로서 자기 백성을 죽인다면 누가 나를 임금으로 섬기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자위가 “상께서 매우 덕 있는 말씀을 세 마디 하셨으니, 틀림없이 하늘이 상을 가상하게 여김으로써 저 형혹성이 삼사三舍(세 별자리)까지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되어 재앙이 없었다고 한다.

1. 일욕逸欲: 제멋대로 즐기며 놀.

2. 경적經籍: 경서經書,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 놓은 책.

를 확충擴充하고 인욕을 막는 공력을 들이신다면, 의리가 확실히 되고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확립되고 일욕逸欲¹이 경계될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일을 처리하고 다스리며 사람을 등용하고 백성을 다스리면, 가진 것은 간단하고 요약된 것이지만 파급되는 효과는 광범위할 것이니, 위로는 천심天心이 돌아오지 않겠으며 아래로는 인심이 감동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몸을 닦는 진실함은 자연 곡진하게 되고 가정을 바르게 하는 도는 자연 지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치하는 폐습은 돈후하고 순박해질 것이고 청탁하는 일들은 자연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며, 바르지 못하던 인심과 습속, 진작되지 못하던 기강과 사기士氣도 각각 정도正道를 얻게 되어 성상께서 깊이 염려하실 것이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재변이 있던 날 전하께서 다스리는 도를 강구하시고 경적經籍²의 본원에 뜻을 두시어 『소학小學』의 격언格言을 경연에서 강론하여 다스리는 근원을 연구하려 하셨는데, 이는 성상의 학문하시는 공력이 삼가 수기修己하시는 데 나타난 것이니,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종사의 끝없는 아름다움이며 백성의 영원한 복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에 시종일관 유념하여 살피소서.”

… (이하 생략)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67장 B면 【국편영인본】 18책 525면

□ 사헌부 대사헌 오겸 등이 천재와 물괴에 응하여 삼갈 것을 청하다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5월 4일 병진 2번째 기사 1557년 명 가정嘉靖 36년

사헌부 대사헌 오겸吳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하께서 하고자 하는 바가 열이면 열이 다 시행되고 신하들이 중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열이면 열이 다 억제되었습니다. 양종兩宗¹은 선왕들께서 혁파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회복시키려 하시니 이는 이미 나라의 공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동은 임금으로서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행하고 싶으면 간관諫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사武事를 위해 친열親閱²할 적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명목을 앞세워 절도없이 행하였으니 이미 공功과 학學을 폐하는 조짐이 되었으며, 거승위전居僧位田³의 세稅는 능침陵寢⁴을 지킨다는 명목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비호하시니 정치의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천재天災와 물괴物怪⁵가 나타나면 전하께서는 널리 상고하라고만 할 따름이고 지진과 해일이 있으면 전하께서는 내 마음도 망극하다고만 할 따름일 뿐, 하늘을 공경하는 실상과 재변을 두려워하는 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척연히 두려워하여 언로言路를 열음으로써 오랫동안 쌓여 온 답답함을 풀어주고 정도正道를 높임으로써 간사한 문을 막지 아니하십니까? 하늘의 경계를 잘 삼가서 오래도록 간단없이 하신다면 전일엔 귀에 거슬렸던 말이 족히 오늘의 약석藥石이 될 것은 물론 오늘의 괴이한 변이를 다른 날의 상서祥瑞로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1. 양종兩宗: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2. 친열親閱: 임금이 몸소 군대를 사열하던 일.
3. 거승위전居僧位田: 불도가 높은 이름난 승려에게 주는 토지.
4. 능침陵寢: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5. 물괴物怪: “물괴신간物怪神姦”의 의미이다. 물괴는 괴이한 사물, 신간神姦·神奸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귀신을 일컫는다.

1.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부덕한 몸으로 큰 왕업을 이어받았으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해 온 지가 10여 년이나 되었건만, 처사가 중도를 잃고 잘못된 정치가 자못 많아 하늘의 견책을 받아 변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니, 반성하여 봄에 조심스럽고 두렵기 그지없어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 차자의 내용을 보니 끝은 말이어서 매우 기쁘다. 내가 비록 불민하나 어찌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거승위전의 세는 지급해주지 않을 수 없고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에서 정지할 수 없다는 나의 뜻을 이미 다 말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여기고 간하는 말을 막으려는 것이겠는가.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61장 A면 【국편영인본】 20책 408면

□ 경상도관찰사 오겸이 박전이 모자 네 사람을 죽인 사건을 장계로 올리다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12월 13일 을묘 3번째 기사 1558년 명 가정(嘉靖) 37년

경상도관찰사 오겸(吳謙)이 장계¹하기를,

“박전(朴全)이 딴 사람의 노비인 모자(母子) 네 사람을 받아들여 숨겨 두었다가 장차 도망하여 본주인에게 돌아가려 하자, 숨겨 놓았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흔적을 없애려 하여 모자

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현령縣令 이희인李希仁이 어부漁夫의 신고를 받고서, 처음에는 박전의 소위인 것을 모르고, 내금위內禁衛 김한문金漢文을 의심스럽게 여겨 잡아 가두고 장차 관찰사에게 보고하려 하자, 박전이 연루될까 이희인에게 청탁하여 놓아 주게 하고는 박전은 온 가족을 데리고 도피했습니다. 뒤를 밟아 잡아다가 금부에 내리어 추국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영덕현령盈德縣令 이희인과 전 정랑正郎 박전 및 사건事干¹을 잡아다가 추국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80장 B면 【국편영인본】 20책 494면

1. 사건事干: 사건에 관련됨. 또는 범죄 사건에 관련된 중범從犯.
2. 정릉靖陵: 조선 제11대 왕(재위 1506~1544) 중종의 능임. 연산군 시대의 폐정을 개혁하였으며,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士類를 중용, 왕도정치를 시도하였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혁방법이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신진사류를 숙청하였다. 이후 신사무옥辛巳誣獄, 삼포왜란 등으로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3. 자성慈聖: 임금의 어머니를 이르던 말.
4. 천릉遷陵: 산릉(국장國葬)을 하기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새 능을 옮겨 모심)

□ 빈청에 정릉을 천릉할 뜻을 전교하다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4월 23일 갑자 2번째 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빈청賓廳에 (영의정 상진, 좌의정 안현, 우의정 이준경, 영부사 윤원형, 예조판서 오겸吳謙, 참판 이몽량李夢亮, 참의 심전沈銓이 함께 명을 받고 빈청에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분묘를 구함에는 일반 백성들도 그 땅을 신중히 가려서 장사 지내고 만일 불길함이 있으면 곧바로 장지를 옮기는데, 더구나 나라의 왕릉이겠는가. 정릉靖陵²은 처음부터 불길하다는 의논이 분분하였으므로 자성慈聖³께서 미안하게 생각하여 곧 다시 천릉遷陵⁴을 심의審議하려 하였으나, 당시 심의하여 정할

1. 임자년: 1552 명종 7년.
2. 을묘년: 1495 연산군 1년.
3. 선릉宣陵: 조선 제9대 왕 (재위 1469 ~ 1494) 성종의 능.
4. 장순왕후章順王后: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비.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1461년 원손元孫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은 뒤 병으로 인하여 녹사錄事 안기安耆의 집에서 요절. 능호는 공릉恭陵으로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있다.

때에 결점이 없는 자리라는 말이 있었고 또 국사의 어려웠던 일이 겨우 안정되었기에 감히 천릉의 일을 가벼이 발설하지 못하였다. 또 임자년¹에 옛 일기日記 (곧 연산 을묘년²에 선릉宣陵³을 심정審定할 때의 일기이다.) 를 보니 불길하다는 말이 과연 옳았다. 근래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잠자코 있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옳기지 않을 수가 없다. 좋은 날짜를 가려 천릉할 일을 결정하라. 여러 능의 능실陵室 안에 길지吉地를 자세히 가려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세조대왕이 직접 이 산을 와서 보고는 ‘좋은 땅이 아니므로 쓸 수가 없다.’ (옛 일기에 “세조가 장순왕후章順王后⁴가 홍薨했을 적에 직접 이 산에 왔다.” 하였는데, 장순왕후는 곧 예종의 왕후이니, 그것이 잘못 전하여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였기에 이와 같은 전교가 있었던 것이니, 기타 중론衆論 (옛 일기에 임원준任元濬 등이 불길하다는 말로 의논할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 상진 등에게 보여주면서 이 전교가 있었다.) 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경들은 알고 있으라.” 하니,

상진 등이 아뢰기를,

“풍수설은 후세에 나왔으므로 그 길흉을 논한 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데다가 근래의 지리술地理術을 하는 자들이 서로 배척하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께서 이미 미안하게 여긴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감히 그 사이에 여러 말이 있을 수 없으나 천릉하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다시 생각을 더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예로부터 천릉한 일이 없지 않고, 고양高陽의 능자리 (곧 정

릉이다.)는 조종조로부터 여러 차례 의논되었는 데도 쓰지 않았으니, 어찌 뜻이 없었겠는가. 사대부들도 부모를 장사 지내는 땅은 반드시 지극히 좋은 곳을 가려 쓰고자 하는 것인데, 더구나 황고¹의 능이겠는가. 조금이라도 불길하다는 의논이 있으면, 어찌 감히 태연히 옹기지 않고 있다가 평생의 한이 되게 하겠는가. 옹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풍수설을 믿기 어렵다 하여 길흉을 가리지 않을 수는 없다.”

사신은 논한다. 풍수설은 허망하고 근거가 없으니 삼대² 이전에는 지리술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소목³을 따라 부장⁴하였고 산형⁵과 수세⁶가 어떤가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삼대의 임금은 수명을 누리고 자손이 번성하였으며 역수⁷의 영장⁸을 이루지 않은 이가 없었다. 명나라도 대대로 모두 만수산⁹에 장사 지냈으나, 국운¹⁰의 막히고 형통함과 왕업을 누린 햇수의 길고 짧음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만이 세상을 미혹시키는 말을 믿어 산릉¹¹의 넓이가 지나치게 커서 남의 무덤을 캐내고 백성의 농토를 없애버렸으니, 이미 성덕¹²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자전은 중종이 장경왕후¹³ (인종¹⁴의 모비¹⁵)와 같은 원침¹⁶에 있는 것을 꺼리어 급히 옹기도록 하고, 죽은 후에 같은 무덤에 묻힐 계획을 한 것이다. 요승¹⁷ 보우¹⁸는 밖에서 인도하고, 적신¹⁹ 윤원형²⁰은 안에서 도와 15년 동안 편안히 모신 선왕의 능을 가벼이 옹기려 한다. 하늘에 계신 선왕의 명령이 섭섭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현궁²¹을 깨뜨릴 즈음에 반드시 매우 놀라운 걱정이 있을 것이다. 또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 희릉²² (곧 장경왕후의 능이다. 처음 헌릉²³ 근처

1. 황고¹ : 선고²先考를 높여 이르는 말.
2. 삼대³ : 하⁴·은⁵·주⁶.
3. 소목⁷ : 사당⁸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천자⁹는 7묘¹⁰로 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4세·6세는 왼편에 모셔 소昭라 하고, 3세·5세·7세는 오른편에 모셔 목穆이라 하여 3소·3목이 된다. 제후는 5묘로 2소·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1목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항상 배配가 된다. 『문헌통고¹¹文獻通考』 종묘고¹²宗廟考.
4. 역수¹³ : 제왕이 국가를 향유하는 운수.
5. 현궁¹⁴ : 임금의 관棺을 묻던 광중¹⁵中(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
6. 헌릉¹⁶ : 조선 제3대 왕 태종(재위 1400~1418)과 비 원경왕후¹⁷元敬王后 민씨¹⁸閔氏의 능이다.

1. 재궁梓宮: 왕, 왕대비, 왕비, 왕세자 등의 시신을 넣던 관.
2. 철조輟朝: 폐조廢朝, 임금의 조회를 폐함.
3. 오례의五禮儀: 국조오례의. 조선시대에 세종의 명으로 허조許稠 등이 편찬에 착수하고, 세조 때 강희맹 등을 거쳐 신숙주, 정척 등이 완성한 예서.

에 장사지냈었는데, 간신 김안로金安老가 정권을 마음대로 할 때, 고양高陽에 있는 정릉靖陵의 같은 산 안으로 옮겼다.) 을 이장移葬할 적에 재궁梓宮¹을 바꾸고 염습을 다시 하였는데, 그때의 차마 볼 수 없는 참절慘切한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의복이 옥체에 이리저리 달라붙어 대꼬챙이를 사용하였어도 헤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기에 지금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정릉에 모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뜻밖에 이러한 변고가 없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 (이하 생략)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32장 B면 【국편영인본】 20책 511면

□ 왕비모의 죽음에 철조하는 일을 의논하다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9월 11일 기묘 1번째기사 1559년 명 가정嘉靖 38년

삼공과 영부사, 정부政府·예조·병조·비변사備邊司의 당상들이 의정부에 모여 왕비모王妃母의 죽음에 철조輟朝²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왜선倭船이 나타났을 때 자세히 가려 포획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다.

상진·안현·이준경·이명李堃·조광원曹光遠·심광언沈光彦·유진동柳辰叟·유지선柳智善·성세장成世章·이영현李英賢·이정李楨·어계선魚季瑄이 의논드리기를,

“대왕비 부모의 상에 철조하느냐의 여부는, 『오례의五禮儀³』

와 『대전大典¹』을 참고하여 보면 서로가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례의』의 왕비 부모를 위한 거애舉哀²의 의주儀註³에 ‘외조부모를 위해 거애하는 예와 같고 오직 최복衰服⁴을 사흘 동안 입었다가 벗는다.’ 하였습니다. 최복을 사흘 동안 입는다면 최복으로 조정에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철조입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예입니다. 때문에 『대전』 상장조喪葬條에는 거애를 해야 하는데도 복服이 없는 종친과 대신만을 거론하여 계문하여 철조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개 왕비 부모의 상은 응당 철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의 철조조輟朝條에 애초부터 별도로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논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왕비 부모를 위한 철조는 『대전』에 없는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나 예로 말하더라도 거애는 중한 것이고 철조는 가벼운 것인데, 어떻게 중한 예를 거행하면서 가벼운 것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사람들은 또 ‘왕비 아버지의 죽음에는 『대전』에 의하여 이틀 동안 철조하면서, 어찌 유독 내상內喪에는 『대전』에 없는 예를 시행하려 하는가?’ 합니다. 이는 바로 한때의 예관禮官이 예문禮文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전』에만 의거하여 그대로 따라 행한 잘못이지, 의주儀註와 『대전』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신들이 한결 같이 선왕이 이미 정해놓은 예를 따르면 되지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홍섬洪暹·윤춘년尹春年·오겸吳謙·정유길鄭惟吉·신희복愼希復·박충원朴忠元이 의논드리기를,

“『오례의』의 거애 의주에 외조부모, 왕비 부모, 왕자 및 부

1. 대전大典: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년)에 완성하고, 16년(1485년)에 펴냄.

2. 거애舉哀: 발상發喪,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림.

3. 의주儀註: 나라 전례典禮의 절차를 주해註解하여 기록한 책.

4. 최복衰服: 아들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중에 입는 상복.

1. 향시巷市: 시장市場을 철폐한다는 뜻. 『예기禮記』 단궁檀弓 하下到 “친자가 죽으면 7일간 향시하고 제후가 죽으면 3일간 향시한다.” 하였고, 그 주註에, 친자나 제후의 죽음에 있어서 서민들은 시장을 열지 못하고 부득이한 필수품의 거래를 마을 안에서 한다고 하였다.

인·공주·옹주, 내명부內命婦, 종척宗戚, 귀신貴臣을 위해서 거애하는 예가 있는데, 『대전』 철조조에는 외조부모와 왕비 부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모와 왕비 부모의 상에 이미 닛새나 사흘 동안 최복을 입었고, 백관을 거느리고 소복素服 차림으로 궐정에서 거성擧聲까지 하였다면, 부득이 철조와 향시巷市¹를 해야 할 듯하나, 『대전』 철조조에 종친의 기친期親이나 왕자, 대공大功 및 정·종1품, 소공小功 및 정2품, 문무관의 정2품에 이르기까지 철조한다는 글이 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대전』에 공주와 옹주 이외에는 부인을 위해 철조하는 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조外祖 및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의 예로 논하여 철조하시는 것이 마땅하나 외조모와 왕비의 어머니는 부인이니, 공주와 옹주 같은 기친 부인의 예로 철조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이 밖의 부인에게는, 비록 내명부로서 선왕先王의 후궁인 빈嬪이나 귀인貴人의 반열일지라도 거애만 하고 철조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서하부부인西河府夫人은 성종成宗에게 외조모가 되기에 특별히 명하여 철조시킨 것입니다. 만일 후세에서 이 예를 끌어다가 왕비 어머니의 경우에도 이 예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한때의 특명으로 철조시하고 말 수는 있겠으나, 드러내어 법으로 삼는다면 『대전』의 본 뜻과는 다름이 있고 반드시 후세에 이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삼공의 의논을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67장 B면 【국편영인본】 20책 529면

□ 호조판서 오겸이 양주의 금년 세금만 면제할 것을 건의하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3월 26일 임진 3번째 기사 1560년 명 가정嘉靖 39년

호조판서 오겸吳謙 등이 아뢰기를,

“교량橋梁은 경기京畿의 각 고을에서 배설하였으니, 세금을 모두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양주楊州는 선왕先王의 능침이 있는 곳이니, 양주의 금년 세금만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14장 B면 【국편영인본】 20책 546면

□ 상진·윤원형 등이 재궁의 물기를 없애는 방법을 의논하다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8월 23일 을해 2번째 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상진이 의논드리기를,

“재궁¹은 오랫동안 지하에 있으므로 어느 능이고 다 습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궁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였다. 윤원형의 의논도 상진과 같았다.

이준경李浚慶·심통원沈通源·홍섬洪暹·정응두丁應斗·권철權輶·오겸吳謙·정유길鄭惟吉·신희복愼希復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상의 전교를 받고서 일을 알 만한 여러 공장工匠들에게 물어보니 ‘전에 칠한 옷칠을 긁어내고 아주 가는 명주에 종

1. 재궁梓宮 : 임금의 관棺. 가래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쓰는 말임.

1. 육진六鎭: 조선시대에, 지금의 함경북도 북변北邊을 개척하여 설치한 여섯 진鎭. 세종 때 둔 것으로 경원, 경흥, 부령, 온성, 종성, 회령의 진을 이른다.

은 칠을 적시어 송곳으로 틈 사이에 밀어 넣은 다음 또 다시 세 모시에 옷칠을 하여 거꾸 바르고, 다시 좋은 칠로 여러 번 두껍게 바르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재궁을 갈지 말고 옥체를 동요하지 말아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안케 하소서.” 하니, 도감의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34장 A면 【국편영인본】 20책 627면

□ 조강에서 세법의 문란, 함경도 육진¹의 육성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8월 7일 계축 1번째 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오겸吳謙이 아뢰기를,
“소신이 두 차례 호조판서가 되어 본 바에 의하면 국고의 저축이 겨우 1년을 지탱할 정도여서 해마다 세입歲入 이외에 군자軍資 저축을 써 온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아주 오래 전에 저장해 둔 것이어서 장인匠人이나 하인이 받는 녹봉은 모두 써어서 먹지 못할 것들이며, 군자의 저축도 바닥이 나고 있으니 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실로 세법稅法이 『대전』의 본의대로 되지 않은 까닭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중고 시대에는 인심이 조금 순박하여 그 법이 쓰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리의 농간을 적발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실實을 재災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함으로 해서

궁한 백성이 조금의 혜택이라도 입는다면 괜찮지만, 이제 실을 재로 만드는 것은 모두가 호족들의 논밭일 뿐 궁한 백성들은 더욱 시달리고 있으니 바라건대 『대전』의 본의에 따라 선처의 방도를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다. 공사가 모두 편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이하 생략)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48장 A면 【국편영인본】 20책 657면

1. 국본國本: 왕세자.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
2. 계청啓請: 주청奏請.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

□ 영평부원군 윤개 등이 국본에 관하여 중전과 논의하다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9월 17일 경술 3번째 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영평부원군 윤개, 영의정 이준경, 좌의정 심통원, 우의정 이명, 좌찬성 홍섬洪暹, 좌참찬 송기수宋麒壽, 우참찬 조언수趙彦秀, 병조판서 권철權轍, 이조판서 오겸吳謙, 공조판서 채세영蔡世英, 예조판서 박영준朴英俊, 형조판서 박충원朴忠元, 대사헌 이탁李鐸, 부제학 김귀영金貴榮, 대사간 박순朴淳이 언서로 중전에 게 아뢰기를,

“국본國本¹에 대한 일은 지난번 신들이 입대하였을 적에 계청²하였는데 상께서 아직 확답이 없으시니 신들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몹시 불안해하고 있으니, 지금 인심을 안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전께서 마음을 두신

1. 동서반東西班: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동반은 문반文班 또는 문신文臣, 서반西班은 무반武班 또는 무신의 다른 이름으로,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받을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2. 제포濟浦: 중종 때 삼포왜란이 일어났던 곳의 하나이다. 1443년(세종 25)에 개해조약에 의하여 왜인들에게 삼포三浦(부산포·제포·염포)의 왕래를 허가하였다. 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었던 포구.

3. 표략剽掠: 협박하여 빼앗음.

데가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이준경 등이 후사를 정하는 일은 누설시킬 수 없다 하여 박계현朴啓賢을 시켜 이 계사를 쓰게 하고 봉하여 들여갔으므로 사관史官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계청한 뒤에 비로소 그 초안을 보았다.) 하니, 중전이 뒤에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조금 있다가 중전이 전교하기를,

“일이 몹시 망극하니 후일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 (이하 생략)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80장 B면 【국편영인본】 21책 40면

□ 2품 이상을 모아 놓고 일본이 요청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승락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5월 16일 경오 1번째 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상이 육조와 동서반東西班¹의 2품 이상을 중추부에 모아 놓고 일본국에서 요청하여 온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승락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준경·심통원·이명이 의계議啓하기를,

“오늘 일본국에서 요청하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육조 및 동서반의 2품 이상과 의논한 결과, 제포濟浦² 개방을 요청한 데 대하여는, 조종조가 그들을 제포에서 접대하여 왔으나 제포는 해중에 도서島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들이 조공을 빙자하여 와서 이곳 모든 도서에 은박隱泊한 뒤 수시로 드나들며 표략剽掠³을 자행해서 1년 동안 살해된 인명이 무려 1백 여 명

에 이르렀고, 경오년의 반란¹에도 그들이 몰래 배를 대놓고 도적질한 자취가 있어 그 뒷폐단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숙의를 거듭하여 그들을 부산포로 옮겨 접대한 것입니다. 부산포는 일망무애한 대해라서 그들이 오가는 데 은박하거나 잠형할 곳이 없고 거센 풍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포의 개방을 한사코 요청하는 것입니다. 적국을 대처하는 방법은 편리한 길을 열어줄 수 없고 관방關防²의 설치는 경솔히 철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포 개방을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포백척布帛尺³의 사용을 요청한 데 대하여는, 지금의 자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종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후왕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마도의 세견선歲遣船⁴ 30척의 대·중·소형大中小型을 정하지 말기를 요청한 데 대하여는, 혹자는 그대로 승락해도 괜찮다 하고, 혹자는 법으로 정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절대 고칠 수 없다 합니다. 또 희구熙久(왜인倭人)를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데 대하여는, 지난 경오년 반란 때 희구가 차병借兵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임신년 조약條約⁵ 때 거절을 당하였고, 그 뒤 여러 차례 접대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일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오년에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들 중 접대가 허락된 자가 많았으나 희구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앞뒤의 조약에서 다 불가하다 한 것이니 지금 다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허락된 20명을 접대하기로 허락해 주고 도서圖書를 지급해 달라는 데 대하여는, 일본국에서 요청하는 골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요청하여 온 것인데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국異國의 소망을 저

1. 경오년 반란: 조선 중종 5년(1510)에 있었던 왜인의 반란. 삼포三浦(웅천熊川의 제포濟浦, 동래東萊의 부산포釜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에 상주常住하는 왜인倭人 이 대마도對馬島의 왜인과 합세하여 제포와 부산포를 공격하고 웅천성熊川城을 함락시킨 일을 말한다.

2. 관방關防: 변방邊方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요새.

3. 포백척布帛尺: 바느질 자(바느질을 할 때에 쓰는 자).

4. 세견선歲遣船: 왜인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보내 오던 배. 조선 세종 때에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청원請願으로, 제포·부산포·염포 등 3포를 개방하고, 왜인의 왕래와 교역交易를 허가하여 해마다 일정한 수의 배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한 일종의 무역선이다. 세종 25년에 그 수를 50척으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교부되었다. 『전률통보典律通補』 예전 교린조交隣條.

5. 임신년 조약條約: 조선 중종 7년 8월에 일본국 사신과 더불어 세견선歲遣船과 세견미歲遣米의 수를 반감하기로 체결한 조약.

1. 서계書契: 조선시대 때 일본과 내왕한 공식 외교문서. 조선에서는 국왕 명의로 일본의 막부 장군幕府將軍에게 국서國書를 작성하였다.

2. 객사客使: 정조正朝나 동지冬至에 백관百官이 조하朝賀할 때 반열班列에 참여하는 일본·유구琉球의 사신과 모든 야인野人의 관원들을 일컫는 말.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

버리고 신의信義의 중대함을 훼손시킬까 두렵다 하고, 혹자는 지금 만약 허락한다면 이 다음의 요청이 끝이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변방의 걱정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니 아예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신들이 다시 여러 관원들과 그 가부를 자세히 타진하여 뒤에 군의群議의 다과를 참작하고 사세의 경중을 헤아려 보니, 앞의 네 가지 사항은 저들이 비록 요청하나 우리가 이를 답변하는 데는 다 대처할 만한 말이 있으므로 지금 허락하지 않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아무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서계書契¹와 객사客使²의 정적을 살펴보면 그 중요한 골자는 모두 20척 배의 접대 허락에 대한 일인데, 지금 만약 그들의 요청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이며, 역시 여국與國을 접대하는 도리가 아니니, 그 20척의 배 중에서 해동기海東紀 및 약조책約條冊·도서책圖書冊에 기록된 12명에게는 도서 지금을 허락하여 원방遠方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나머지 약조책·명부책名付冊·도서책에 기록되지 않은 8명은 다 접대를 허락하지 않기로 하여, 이 내용을 객사에게 효유하고 또 이 내용으로 써 회답 서계回答書契를 작성하는 것이 거의 사의에 부합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제한 말은 다 지당하다. 다만 내가 모든 실무자를 명하여, 그들에게 20명 접대를 허락하고 도서를 지급해 달라는 일에 대하여 효유하고 싶었으나 우선 의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왕래하는 객사의 수를 근래에는 오로지 20명으로 해 왔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쁘게 해주어야 하는데 어찌 원방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12명에게만 도서를 지

급할 것으로 의계하였으나 나의 생각에는 교실敎實 등이 비록 약조책 등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해동기에 들어 있으므로 도서를 모조리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경들은 다시 의계하라.” 하였다.

이준경·심통원·이명·홍섬洪暹·송기수·박영준朴永俊·이택李鐸·유강·성세장成世章·김순고金舜皐·윤선지尹先智·이문형李文馨·강사상姜士尙·임내신任鼎臣·목첨睦詹·박응남朴應男이 의계하기를,

“교실 등 8명의 접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에도 20명에게 아울러 허락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이들 8명이 비록 해동기에 기록되었으나 약조책 등에 일체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없는데, 만약 이들을 아울러 접대한다면 후일의 그지 없는 폐단을 열어 놓게 될까 염려되므로 다만 12명만 접대하려고 의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교를 받들어 다시 의논하여 본 결과 해동기의 기록은 이미 접대 받았던 왜인들입니다. 비록 이 밖의 기록은 더 있지 않으나 이 또한 근거가 될 만하니, 상교에 따라 모두에게 접대를 허락하여 원방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들이 만약 이를 빙자하여 명목을 삼는다면 훗날 탄 소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미 교린하는 의리를 지키고 또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허락하여 줌으로써 그 후의厚意가 너무 극진하여 다시 더할 수 없으니, 이 다음에는 비록 탄 계획이 있더라도 일체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끝없는 소망을 단절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겸吳謙·임열任說·이택李澤·오상吳祥·어계선魚季瑄·유경심

1. 명초命招: 임금의 명으로 신하를 부름.
2. 합문閣門: 각문閣門. 편전便殿의 앞문.
3. 인묘仁廟: 조선 인종仁宗의 묘호.
4. 명묘明廟: 명종明宗. 조선 제13대 왕(재위 1545~1567). 중종의 둘째 적자嫡子이자 인종의 아우.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 하였다. 문정왕후 동생인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켰으며 문정왕후 사후, 선정을 펼치려고 노력하였다.

柳景深은 의계하기를,

“성구盛久 등 12명의 이름은 약조책 등에 여러 차례 보였으나 교실 등 8명은 그 이름이 해동기에만 겨우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원방 사람의 간청이 집요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못할 그들에게 외람되이 허락해서 구차히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후일의 그지없는 폐단을 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명목이 없는 일이니, 그들 8명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서서히 전교하겠다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32장 B면 【국편영인본】 21책 153면

□ 공경, 정부의 동·서벽 등 백관이 을사년의 일을 바로잡으라고 청하다

—선조실록 4권, 선조 3년 8월 5일 경자 1번째 기사 1570년 명 융경隆慶 4년

공경公卿·정부政府의 동·서벽東西壁, 삼사三司의 장관과 도승지 등을 명초命招¹하여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하였다. 신시申時에 비로소 합문閣門²으로 들어가니 상이 좌·우상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종친의 상소문과 상의 비망기를 보여주고 찬성贊成·참찬參贊·육경六卿·삼사 장관 등에게도 두루 보게 하였다.

상소문은 내용이 매우 많았는데, 그 중의 한 조항을 보면,
“궁중에 참언讒言을 진달하는 자들이 ‘인묘仁廟³는 재위가 1년도 채 못 되신 임금으로 사람들이 매우 애모哀慕하고 있는데, 인묘를 위하여 명묘明廟⁴의 훈신勳臣들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

고 있다. 그래서 명묘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한 사람도 은혜에 감동하는 자가 없다.’고 하여, 자전慈殿¹을 동요시켰습니다.” 하고,

상이 보여준 비망기에는,

“을사년 일은 어찌 우리 선왕이 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그 훈적勳籍은 선왕께서 삼혈敵血²하여 함께 맹세한 것이고 문정대비文定大妃가 종사宗社를 위하여 정한 일이니, 내가 어찌 감히 고칠 도리가 있겠는가. 나는 보잘것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유교遺敎를 받들어 후사後嗣가 된 지 겨우 3년이 지났으므로 눈물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어찌 차마 고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결단코 따르지 못하는 까닭인 것이다. 조정에서 항론抗論한 지 넉 달이나 되어 국가의 소요도 염려스럽고, 선조先祖를 생각하여도 차마 못하겠으니, 탄식과 눈물을 금치 못하겠다. 경들이 나의 마음을 잘 체득하여 생각한다면 어찌 마음에 느끼는 바가 없겠는가. 이 세 가지 상소를 보면 내용이 놀랍기 그지없다. 종척宗戚³들이 국가와 휴척休戚⁴을 함께 하는 의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비를 논의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조정의 여론餘論을 모아 감히 분수를 벗어난 상소를 한 것도 이미 불가하거늘 더구나 자전慈殿까지 거론하여 이치에 당치 않는 말을 하였고, 또 사특한 이야기까지 취하여 썼으니 더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자전에 성명聖明하심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경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자전이 과연 사특한 말에 현혹될 분인가. 그러나 인심이 이러하니 어찌 성심聖心에 매우 미안한 점이 없겠는가. 이것이 내가 매우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이다. 자전에 대한 나의 효성이 부

1. 자전慈殿: 자성慈聖. 임금의 어머니를 이르던 말.

2. 삼혈敵血: 예전에, 굳은 약속의 표시로 개나 돼지, 말 따위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거나 입에 바르던 일.

3. 종척宗戚: 왕의 종친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던 말.

4. 휴척休戚: 편안함과 근심.

죽하여 사람들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하유했 바를 모르겠으니, 이 상소문을 보라.” 하고,

또 이르기를,

“자전에게 관계없는 일을 이따금 언급한 것만도 이미 미안한 데 지금 이 상소에서 또다시 ‘참언이 자전에게 들어갔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옥_{下獄}하여 그 말의 근원에 대해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참언한 사람을 찾게 되면 그를 죄줄 것이고 찾지 못하면 상소문을 지은 자를 벌하겠다.” 하였다.

이에 좌의정 권철, 우의정 홍섬_{洪暹}, 대사헌 김귀영_{金貴榮}, 대사간 박근원_{朴謹元}, 도승지 이후백_{李後白}, 경연관 윤희춘 등이 그 일의 옳지 않음을 극력 간하였다. … (중략) …

찬성_{贊成} 오겸_{吳謙}·참찬_{參贊} 박영준_{朴永俊}·박충원_{朴忠元}·홍담_{洪曇}·어계선_{魚季瑄}·오상_{吳祥}이 모두 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22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233면

□ 경연관 정지연이 은퇴한 신하들을

문안하기를 청하니, 이조에 서계하도록 하다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3월 10일 을유 1번째 기사 1574년 명 만력_{萬曆} 2년

경연관 정지연_{鄭芝衍}이 노쇠하여 은퇴한 신하들을 문안하기를 계청하니, 이조로 하여금 서계하도록 명했다. 곧 오겸_{吳謙}·정대년_{鄭大年}·송순_{宋純}·백인걸_{白仁傑}이다.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23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297면

□ 상이 오겸·백인걸·송순에게 음식물을 내리다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3월 11일 병술 1번째 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상이 오겸吳謙·송순宋純·백인걸白仁傑에게 음식물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23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297면

1. 제급題給: 제사題辭(관부의 관결이나 지령)를 매기어 줌.

□ 오겸·송순에게 식료를 제공하라는 전교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4월 28일 정유 2번째 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전교하였다.

“재상인 오겸吳謙·송순宋純이 모두 고향으로 물러가 노년老年을 보내고 있다. 내 생각으로 비록 녹봉은 주지 못하더라도 참작해 마련하여 해마다 본도로 하여금 쌀과 콩을 주도록 하여 노 재상을 우대하는 내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어떨겠는가. 옛 법에 그런 예가 있고 없는 것을 모르겠으나, 다만 우연히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것이다. 이 뜻을 해조該曹에 물어보고 또 먹을 것을 제급題給¹할 것도 본도에 하서하라.”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2장 A면 【국편영인본】 21책 360면

1. 방후손 계수繼洙 삼가 쓰다

옛날 조선시대 중종·인종·명종·선조 네 분 왕조王朝 때 국운이 신령하기만 하였고, 인물과 문화가 활짝 꽃피어 경학을 익힌 어진 선비들이 왕성하게 계속하여 일어나 군왕을 도왔다. 화려하게 활동하는 그 모습은 큰 고기가 구렁에서 뛰어 오를 듯하고 기러기가 순풍을 만난 듯하여 국사의 책임자로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국정을 헌신적으로 도모하고, 관직에 나아감은 신중하나 물러남은 가볍게 여기는 명망가가 있었으니, 곧 위대한 조상이신 정간공 국재 선생이 그 중 한 분이다.

선생께서는 홍치弘治 병진丙辰(1496년)에 금성군, 나성군, 나원군 3대 봉군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타고난 자품은 단정하고 깨끗하였으며 재주와 도량이 일찍이 성숙하여 유서봉柳西峰님을 스승으로 섬기셨는데, 서봉은 사문斯文의 어른으로 추대됐다. 외삼촌 신申 문절공文節公은 공의 재주가 많다 하여 더할 수 없는 칭찬을 하였다. 또 이퇴계, 김하서, 기고봉, 송면앙, 송지지당, 나송재 등 모든 선생과는 모두 다 도의적 교우 관계를 맺었다.

중종 27년 임진壬辰(1532년)에 문과文科 제 2등으로 합격하여 중앙 부처와 외직을 두루 거치면서 현저한 업적을 남겼다.

중앙 내직을 언급하자면, 예조좌랑으로서 형조정랑에 승진

되었고, 시강원 문학文學과 필선을 거쳐 홍문관 교리·부응교로 자리를 옮겼으며, 정미丁未(1547년)에는 중삭仲朔 공신들의 잔치에 참여하시어 국은國恩의 준례에 따라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승진되셨는가 하면, 금양군錦陽君에 봉군封君 되셨다.

기미己未 1559년에는 자헌대부 예조판서에 특별 승진되셨고, 그 후 대사헌과 호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5조 판서 겸 세자빈객을 역임하시고 경연을 맡기도 하셨다.

신유辛酉 1561년에는 정헌대부로 승자陞資¹를 하였고, 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발령되셨다.

융경隆慶 경오庚午 1570년은 곧 우리 선조대왕 3년인데, 이 해 가을에 좌찬성으로써 휴가를 얻어 호남으로 돌아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

신미년辛未年 여름에는 덕망이 높은 대신大臣으로서 우의정에 임명되어 모두가 진실된 마음에서 협치하였건만, 질병을 빙자하시고 취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생께서 현재의 지위에 만족을 하시고 뜻을 거두신 것이다.

외직을 언급하자면 전주, 광주와 남원, 의령은 곧 영남과 호남의 큰 고을인데, 부임하신 곳마다 직무의 처리는 흐르는 물과 같았으며, 강자에게는 두렵게 하시고 약자는 안아주셨다.

일찍이 광주목사로 재직 중 기고봉奇高峰²과 이청련李靑蓮³ 두 분의 명성을 듣고 초청장을 보내어 사마재司馬齋에서 문사文士들의 모임을 베풀었다. 이 날 많은 문사들이 모두 찾아오고 관기들의 음악도 갖춘 것이 매우 화려하였으며, 두 분들과 더불어 근체시近體詩⁴와 고시古詩 각 10편을 작성하게 하여 기쁨을 다 하시고 행사를 끝내셨다. 다음 날 선생께서는 별관에 간소한 술

1. 승자陞資: 직위가 정3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던 일.
2. 기고봉奇高峰: 기대승奇大升의 호.
3. 이청련李靑蓮: 이후백李後白(1520~1578)의 호. 조선 중기의 문신. 자 계진季眞, 시호 문청文淸.
4. 근체시近體詩: 한시체漢詩體의 하나로 금체시金體詩라고도 한다. 고체시가 형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데 반해 근체시는 일정한 격률格律과 엄격한 규범을 갖추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에서 이루어진 시체가 율시律詩·절구絶句·배율排律들이다.

1. 송규암宋圭庵: 송인수宋麟壽(1499년, 연산군 5~1547년, 명종 2)의 아호.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미수眉叟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 급제했다. 관찰사에 부임하여 형옥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교화에 힘써 풍속을 바로잡았으며, 교육을 진흥시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동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와 다시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을 탄핵했다. 1545년 을사사화 때 한성부 좌윤에 있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여 청주에 은거하여 있던 중 사사賜死되었다. 선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 저서로 『규암집圭菴集』이 있다.
2. 공경公卿: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비롯한 높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리를 마련하시고 요청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모임은 한바탕 이야기나 하면서 심정을 털어 놓자는 것만은 아니다. 바라건대 두 분 그대들은 양보할 것 없이 각자 평생에 보았던 것을 기록하라” 하셨다.

이청련은 강목綱目 가운데 책자 중에 현저히 나타난 것들은 빼고 그 밖의 150권에 달한 사소한 장구에 이르기까지 구두로 설명하며 익숙하게 강독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기고봉 또한 이청련이 논의한 것에서 어렵다고 한 것들을 그 본전本傳을 들추어 유래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 마치 강물이 터져 쏟아지듯 하였다.

이를 지켜본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글 시합에서는 계진季眞(청련의 자)이 능숙하게 명언明彦(고봉의 자)을 이겼고, 오늘의 시합에서는 기명언이 능숙하게 이계진을 이겼다”고 하셨으니, 이는 선비들의 다시 볼 수 없는 성대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 이는 선생께서 선비들을 대접하는 예우의 융성함이었다.

또 남원과 의령 두 고을에서는 옛날 잘못된 풍속을 뜯어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크게 밝혔다. 감사(전라도관찰사) 송규암宋圭庵¹께서 선생의 정치 행적을 제일이라고 평가하여 조정에 올리니, 조정에서는 자품資品을 특별히 한 등급 올렸으니, 이는 선생의 관리로서의 재능이 뛰어나 옛날 훌륭한 분들의 행적과 부합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로회耆老會는 조선 왕조 초기부터 공경公卿²들의 희수稀壽(나이 70살)를 경축하는 의미로서 진행된 것인데, 꼭 대과大科 합격자만이 참여한 것은 아니요 지위가 8좌座 이상이다.

비록 고귀하고 또한 장수를 누린 분이라 하더라도 초청을 받

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생께서는 이 모임에서 네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은 사람들의 귀와 눈에 반짝반짝 비쳤으니, 금상 전하에게 우대를 누리신 것이 이와 같았다.

병조와 이조판서의 요직을 여러 번 지내실 때 관직을 부당하게 베풀어 준 적이 없었기에 문 앞에는 선물 가지고 찾아온 손님이 끊어졌다. 받으신 녹봉은 가난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눠 주셨기에 거주하신 집은 넓은 것이 없었고 전답도 더 보탠 것이 없었으니 그 청백한 지조가 이와 같음이 있었다.

몸가짐을 삼가셨으며, 일처리하기를 자상하고 세밀하셨고, 옳고 그름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으며, 사악한 것과 정대한 것을 마음으로 먼저 분별하시고 확실히 지킨 것이 있어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 때문에 윤원형이 시기가 대단하여 누차 중상을 입히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시비를 걸지 못하였으니 그 경위涇渭의 판단이 이처럼 엄격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께서는 나이를 빙자하여 관직에서 용퇴하셨고, 그 많은 녹봉 보기를 하나의 초개처럼 여기셨으며, 고향에서 만족한 삶을 보내시면서 담박하고 곧게 살으셨다. 날마다 칠송공과 서윤공 두 아우와 더불어 경전經傳과 역사서를 강론하고 연구하며 훈지墳簋¹ 악기를 번갈아 불면서 날이 저물어간 것과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하셨으니, 형제분들의 우애가 독실함이 이와 같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거처하실 때는 마포 건을 쓰시고 평범한 옷을 입으셨으니, 그 진솔함과 담박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지난 날 존귀하셨던 것을 잊으셨다.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이 기쁘고 감복을 하였으니, 그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신 태도가

1.훈지墳簋:훈墳과 지簋는 제례악에서는 아직도 사용되는 악기로, 질나발과 젓대피리를 말한다. 즉 형제 간의 돈독한 우애를 상징하는 말.

이와 같음이 있었다.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는 잠곡潛谷 김육金堉께서 엮은 선생의 사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충효세가忠孝世家라고 칭송하고 있으니 관리들이 선생을 크게 사모하는 평론이 이와 같음이 있다.

금성 고을 북쪽에 있는 광산사廣山祠는 한 가문에서 배출된 3현三賢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 선생의 위패는 그 두 번째 모셔졌으며 제물을 올리고 있으니 선비들의 높이 받드는 정성이 이와 같음이 있다. 이 사적은 온 조정 대신들이 공동으로 아는 바 이요, 어느 한 사람이 하나의 입으로 아부하고자 하는 말쑥이 아니다.

아! 선생께서는 온 나라의 원로元老이시고, 네 조정을 섬긴 현신賢臣이시며, 못 선비들의 영수였으니 저 북인北人들이 망령되어 함부로 헐뜯음이 선생에게 무슨 명예훼손이 있겠는가.

문장을 엮은 일은 틈틈이 여가의 소일로 하셨지만 건강한 몸으로 87년을 장수하시면서 남기신 저술 작품이 상자에 가득 넘칠 정도로 많았으리라 상상이 된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었는가 하면, 집안에 화재가 거듭되면서 소장하고 내려온 문자를 대부분 잃어버리고 전수된 것이 없으니 아쉬운 마음 어찌 가히 이겨내겠는가.

9세손 석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 원고가 더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 더 많은 것이 없어져버릴까 두려워하여 나(계수)에게 부탁을 하며 남아 있는 원고를 수집 및 기록을 하라고 하였다. 자신을 되돌아 보건대 어리석고 몽매한 것이 수백 년 뒤에 태어나 수백 년 전의 선조님 사적을 더듬어 서술한다는 것

은 역시 어려운 일이다.

드디어 우리 족보를 광범위하게 고증하고 여기저기 각 집안을 탐방하여 발견된 대로 기록을 하여 한 권의 책자를 합성하였다. 상편에 시 몇 수는 곧 숙조叔祖인 송주공松洲公¹께서 수집한 것이고, 하편에 유사遺事 두어 조목은 도암공韜庵公²께서 서술한 것으로 그 원고가 매우 적어 책다운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온화하고 유순하여 돈독하고 훈후한 것이 시경詩經에서 가르침”이라고 하셨다. 진실로 이 국제유집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듯하니, 비록 한 편의 책이라도 좋으니 어찌 꼭 분량이 많아야만 좋다고 할 것인가.

아! 선생의 스승과 벗들의 연원淵源 관계와 살아오신 발자취 등은 이율곡李栗谷께서 쓴 묘비문과 김청사金晴史가 쓴 시장謚狀 등에 이미 상세히 구비되어 천 년 이후까지도 고증될 만하다. 두 분 선생들의 붓 끝에 어찌 감히 망령되이 한마디 말씀을 더 보태어 선생의 위대하신 덕행을 더럽힐 것인가. 이 글을 열람하신 분들은 나를 용서할 것이다.

소양적분약昭陽赤奮若(계축癸丑)1913년 12월 상순

방후손 계수繼洙³ 삼가 쓰다

1. 송주공松洲公: 휘諱 봉석朋錫, 자 백여百汝. 석문공 휘 익以翼의 장남이다. 우암 송시열의 문화생으로 시문詩文에 조예가 깊은 유학자.

2. 도암공韜庵公: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휘 희길希吉, 자는 길지吉之, 호는 도암韜庵이다. 금양군 오겸吳謙의 아우인 서윤공庶尹公 오원吳諤의 손자이다. 김인후金麟厚·기효간奇孝諤의 문하에서 수학.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 경기전慶基殿 참봉으로 태조의 영정影幀과 역대 실록을 내장산에 옮겨 봉안한 공적으로 위성공신衛聖功臣에 녹훈되었다. 전란으로 다른 사고史庫의 실록은 모두 없어졌으나 전주의 것이 보존됨으로써 재간할 수 있게 한 공로가 크다. 사근도 찰방을 거쳐 대인현감에 이르렀다. 저서에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 『명대의明大義』 등이 있다. 고창 금암사에 봉향.

3. 계수繼洙: 도림공(휘 이구)의 9세손. 한말유학자·항일지사. 자는 중함重涵, 호는 난와難窩이다. 기우만奇宇萬이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가담하였으며, 경술국치 후 은사금恩賜金을 거절한 일로 장성 현병부대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았다. 저서로 『난와유고』 17권이 있다. 도림사에 배향.

[原文]

跋

昔我中 仁 明 宣四朝之際國運靈長人文宣朗經學賢良之士懋興迭作羽翼乎 王庭黼黻乎 皇猷躋躋踰踰若巨魚縱壑鴻毛遇順以任終始贊襄之謨繫來去重輕之望者先伯祖貞簡公菊齋先生其惟一乎先生 以 弘治丙辰生於錦城羅城羅原三君之家天資端雅才器夙成師事于柳斯文西峰西峰推爲長者而外舅申文節公重公之才亟加稱詡又退溪河西高峰俛仰知止松齋諸先生皆其道義之交也中廟二十七壬辰擢文科第二歷中外俱有著蹟以言乎內則以禮曹佐郎陞刑曹正郎侍講院文學弼善遷弘文館校理副應教丁未叅仲朔功臣宴以恩例陞嘉善封錦陽君己未特陞資憲判禮曹歷大憲戶 刑 兵 吏四判兼 世子賓客知 經筵辛酉加正憲拜參贊甲子陞崇政判中樞數年間再判兵吏三拜贊成兼判義禁 隆慶庚午卽我 宣廟三年秋以左贊成乞暇南歸不復還朝辛未夏以宿德重望擢右議政物情允協而謝病不就是先生滿盈知足之戒也以言乎外則全州光州南原宜寧卽嶺湖之雄府而所到符決如流強畏而弱懷嘗宰光州聞奇高峰李青蓮二公之名折簡邀請設文會于司馬齋是日章甫畢至妓樂俱侈與二公賦近體與古詩各數十首盡歡而罷翌日先生就別館略說盈酌而請曰今日之會非作一場閒說話抒情素而已願兩君無讓各罄平生覩記李公於綱目中除其表著者外至百五十卷徽章小句無不應口而熟講奇公又取李公所論難者舉其本傳所從來一一辨析若決江河先生曰昨日之戰季真

能克明彦今日之戰明彦能克季真真儒林絕代之勝事是先生待士以禮之盛也又於南原宜寧二郡革去舊瘼黎情丕新圭庵宋公上治行第一特加一資是先生長於吏才而動合古之循良也嘗耆老會自國初設行以寵公卿之稀壽而非大科進而位八座以上雖貴且壽者不得望焉先生於是會居第四繪像煌煌照人耳目享 聖朝優老之典有如此者累長兩銓座無干謁門絕苞苴前後俸祿盡頒於親戚故舊之貧而居第無所廣田土無所增其冰檠之操有如此者持身謹慎處事詳密是非不形於外而邪正先辨於內確乎有守不爲撓奪故大被尹元衡所忌累欲中傷而未售則其涇渭之嚴有如此者引年勇退萬鍾一芥優遊桑梓抱淡肥貞消日與七松庶尹二弟講究經史迭唱塤箎不知日之暮而老之至其篤於友愛有如此者與鄉人處葛巾野服真率淡泊由由然忘其尊貴而人自心悅而誠服其卑而自牧有如此者海東名臣錄潛谷金公之所纂而先生事蹟昭然載錄稱以忠孝世家縉紳之景慕有如此者錦北廣山祠一門三賢妥靈之所而先生位牌序居其二薦以芬苾士林之尊奉有如此者此皆舉朝之所共知非一人一口之阿好語也嗚呼先生一國之元老四朝之賢臣多士之領袖噫彼北人之妄加訾謗者有何損於先生哉文章儘餘事而康寧壽福八十七年所著述想必盈箱溢篋而間經龍蛇之變荐鬱攸之灾家藏遺文蕩迭無傳可勝惜哉九世孫碩煥恐其愈久愈泯屬繼洙俾爲之收錄自顧顓蒙生於數百載之下追述於數百載之前亦已難矣遂廣攷世譜旁搜各家隨得隨錄合成一局上編堂詠若干首卽叔祖松州公之所哀輯也下

編遺事數條韜庵公之所纂述也甚零星不成卷樣而孔子
曰溫柔敦厚詩教也苟於是乎近之雖一編可也曷嘗以多
爲尙哉噫先生之師友淵源履歷行事已於栗谷墓道之銘
晴史金公諡狀之撰旣詳且備可百世徵也二賢筆下何敢
妄贅一辭以累盛德哉覽者怒之
昭陽赤奮若大呂月上澣 傍後孫 繼洙謹書

2. 종후손宗後孫 승환勝煥 삼가 쓰다

금성錦城은 호남의 큰 고을이며 우리 오씨 선조님들이 살아 온 고을이다. 금양군은 우리나라의 기둥과 대들보 같은 인물이고, 우리 오씨문중의 현조顯祖님이시다.

아! 맹자께서 말씀하신 세 달존達尊은 도덕이 그 하나요, 관직이 그 하나요, 연세가 그 하나라는 것이다. 하늘 아래 이 지구촌에서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얻기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 있으니 우리 오씨 가문의 선조이신 정간공貞簡公¹께서 그런 분이시다. 그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바야흐로 그 당시 조정에서 기로회耆老會를 베풀고 화공을 시켜 기로도를 그리게 하였는데, 그 기상을 방불케 그리도록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홍섬洪暹님께서 그 기로도 아래쪽에 설명서를 썼으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윈 낮빛에 백발이 성성하니 연세가 높아 존경을 받을 만하며, 무소 뿔 금빛 나는 띠를 가로 둘렀으니 관직이 높아 존경할 만하겠다. 그러나 화공이 그리지 못한 것은 그 분들의 덕성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덕성은 확인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인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의 대화하는 말씀 사이에서 덕성을 찾을 수 있을 따름이다.’〉

1. 정간공貞簡公: 국재 금양군(휘 겸)의 시호.

1. 칠실지우漆室之憂: 칠실 고을의 근심이라는 뜻으로, 제 분수分數에 맞지도 않는 근심을 이르는 말. 중국 노魯나라의 칠실이라는 고을에 사는 한 비천한 노처녀가 시집 갈 걱정은 아니 하고 나랏일을 근심했다는 고사에서 유래.

2. 오승환吳勝煥: 자는 인범仁範, 호는 연정蓮汀. 송은당공 휘 탁진卓眞의 14세손. 한말 유학자이며 송조사업·빈민구제 등에 공적이 많음. 나주 동강 백련사白蓮祠에 배향.

최근에 종형宗兄인 석환碩煥 씨가 금양군의 그 성대하신 덕성이 세상에 영원히 묻혀버릴까 두려워하여 난와공難窩公 계수繼洙에게 부탁을 하여 금양군께서 남기신 그 말씀들을 대략 수집하여 엮었으니, 돌아보건대 다행스러움이 많지 아니 한가!

아! 말세末世에 태어난 승환勝煥이 본래 영산강 남쪽 한 구석에 거주하면서 항상 칠실지우漆室之憂¹의 노처녀처럼 제 분수에 맞지 않게 걱정하는 마음을 품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두 분(석환·계수)이 어질고 착한 노고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공경하고 감사하는 충심을 책 끝장에 이와 같이 쓰노라.

계축癸丑(1913년) 12월 세모에

종후손宗後孫 승환勝煥² 삼가 쓰다

[原文]

錦城湖之雄鎮而吾吳之先鄉也錦陽君國之棟樑而吾吳之顯祖也噫孟子所謂天下三達尊者德一爵一齒一天下有難其得一焉而并有於一人之身者吾宗先祖貞簡公是耳何其躋歟方是時朝廷設耆老會繪耆老圖髣髴其氣像而世人榮之洪公暹題其下略曰蒼顏白髮壽可尊也犀金橫帶貴可尊也而所不可畫者德然則德不可求乎曰否求之乎言辭之間而已矣近間宗兄碩煥氏懼夫其盛德之永沒于世付于難窩繼洙綴其遺辭略干其爲幸顧不多哉嗚呼末生勝煥素居江南一隅恒抱漆室之憂者多歲而聞兩氏之賢勞敢書欽感之衷于卷端如此云
昭陽赤奮若之歲暮 宗後孫 勝煥 謹書

1. 10세손 불초 재두在斗 삼가 쓰다

생각하면 나의 선조님이신 시호 정간공, 금양군 부군府君께서는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나 벼슬은 정승이 되었고 도량은 크고 넓었다. 또한 자기를 다스리는 데는 잘 단련되었으나 남에게 처신은 인정이 두텁기만 하였으니, 마치 끝이 없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듯하였다.

금옥처럼 귀중한 시문詩文 등 저작물과 수많은 장서 등은 어찌 다만 화려한 문체를 나타내는 것뿐이겠는가?

선조님의 참모습을 서적에 실린 글 속에서 찾고자 하지만 전수된 것이 없으며, 옛 늙은이들에게 묻고자 하지만 보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은 선조님이 가신 지 이제 4백 여 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대저, 문장이란 여가에 작성하는 일이라서 그 양이 많다는 것으로서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써 고귀하게 여기니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찌 가없지 아니한가.

그러나 더욱 감동이 깊기만 한 것은 선조님께서 애정을 담아 남기신 훈계는 간절하고 간절하여 후손되는 자들로 하여금 끝없는 추모의 생각이 나는 것은 선조님 생존 시 서 있으셨던 바로 그 날 뜰 앞을 달려가 유훈을 들은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

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유훈을 한 가정의 유언으로만 여기고 유집에 수록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적인 유훈이 될 뿐이고 공적인 유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선고先考께서 이 세상에 생존 시 우리 종친인 난와공 계수님에게 유집 편집을 부탁하였건만 그 작업을 마치지 못하였고, 형님께서 또 송사문宋斯文 광세光世 님에게 청탁을 하였으나 형님 역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 애통하고 애통할 일이었다.

그리하여 불초 나의 보잘 것 없는 학식으로 감히 아버지와 형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가을 광산사廣山祠에 모인 선비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협의하여 유집遺集을 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영원히 세상 사람들의 규범이 되게 했노라.

병신丙申 1956년 봄 정월 대보름날,

불초 후손 재두在斗 삼가 쓰다

[原文]

惟我先祖貞簡公錦陽君府君生自華宗身爲宰相器宇弘遠治體鍊達在物斯厚處躬以約觀於海者莫際其涯涘也若乃金版玉匱汗牛充棟而豈直雕章縟采而已也哉求之載籍翰牘所莫傳訊之故老耳目所莫接距今四百有餘年之久乎大抵文章餘事不以多爲貴而人以爲寶則豈不爲世道惜之然愈爲感深者丁寧遺訓懇懇切切俾爲後昆者

罔極之思少無異於當日趨庭也若只歸一家之言而不列于集則是爲私非爲公也是故先考在世托于吾宗難窩繼洙未卒業家兄旣請於宋斯文光世而兄又遽逝嗚呼痛且哀矣哉然而不肖在斗之蔑學敢齎父兄之志就質于往秋廣山祠多士之席而謀與之綴輯遺文刊爲一冊永爲世範云

歲丙申春王正月上元日

不肖後孫在斗拜書

2. 10세손 불초 재술在述 삼가 기록하다

1. 주문공朱文公: 중국의 남송 유학자. 이름은 회熏,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시호는 문文이며, 주자朱子는 존칭이다. 10살 때 유학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공자公子를 숭배하게 되었으며, 송대의 유학을 집대성하여 성리학性理學(주자학朱子學)이라는 새로운 유학 체계를 완성하였다.

주문공朱文公¹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조에게 선행善行이 있는데 자손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선조에게 덕행이 있는데 자손들이 이를 사모하여 후세에 전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자신을 돌아해보건대, 불초 재술在述은 제사를 받드는 10세손으로, 입으로는 능히 성현들의 훈계하는 글을 읽고서 선조의 선행을 밝히지 않는 죄를 범하였고, 골수는 오히려 선조의 체통을 받았건만 어질지 못한 함정 안에 빠졌으니 이러한 나를 사람이라면 누가 사람이 되지 못하겠는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큰 죄인이므로 지극히 통탄할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 선조 정간공께서는 덕성이 크고 도량이 넓어 나라 임금은 총애를 하였고, 조정은 소중히 여겼으며, 당시 현명한 분들은 사모하였고, 후세 선비들은 칭송을 하였으니 공公에게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선조님께서 저술하신 시문詩文은 남아 있는 것이 만 분의 일 정도 되는데, 그 만 분의 일 정도 있는 것도 먼지 낀 상자 안에 소장하고만 있어 그 시문을 오랜 세월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인 가운데 더욱 큰 죄인이다.

이러한 까닭에 족형 재두在斗 씨가 팔십 노령으로 힘을 내어

끼니도 잊어가며 추위와 더위 속에 오고가면서 동지들과 협동을 하여 흠어져 있는 원고를 수습, 재술과 만선萬善 등에게 넘겨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일을 서로 도와 발간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10세손 불초 재술 삼가 기록하다

[原文]

朱文公先生曰先祖有善而子孫不能知是不明也先祖有德而子孫不能暴以傳於後是不仁也顧余不肖在述祀事十世口能讀聖賢之訓書而犯不明之罪骨猶受先祖之體統而陷不仁之域是可人也孰不可人也覆載間一大罪人也痛極痛極惟我先祖貞簡公弘德大度國君寵之朝廷重之時賢慕之後世誦之於公何恨而其存於咳唾之餘者有萬其一以有萬其一因藏之塵篋而不壽其傳尤罪人之罪人也是故族兄在斗氏八十衰齡發憤忘食跋涉寒暑謀協同志收拾錯簡付于在述萬善輩曰汝等勗相茲役歸以登梓云

十世孫不肖在述謹識

3. 11세손 불초 만선萬善 삼가 기록하다

아! 나는 금양군 선조님의 유서遺書를 읽고 나도 모르게 옷깃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 강령의 중대함과 규모의 원대함은 비유컨대 태산을 올라가 그 높이를 잴 수 없고, 바다에 다가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들에게는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유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사佛事를 거행하지 말 것이며, 무사巫祀를 거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금양군 선조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다.

또 그 유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경하는 어른을 받들 때는 감히 교만을 부리거나 쉽게 보지 말 것이고, 마을에서도 나이가 많은 모든 어른들을 존경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나이가 한두 살 많더라도 당연히 겸손하게 양보를 하고, 또한 비록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길을 양보하고 좌석을 양보하여 아래 좌석에 앉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다.

아!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금양군께서 도리를 지극히 따른 것이다. 또한 금양군께서 불의를 꺼린 그 이유가 이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리라. 이것이 아니라면 금양군의 업적과 덕행 그 위대함이 이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금양군의 존귀한 지위에서 이와 같은 겸양이라는 교훈을 남

겨주셨으니, 남들에게도 그 착한 본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하다. 하물며 그 후손들에게야 말할 것도 없다.

이 몇 조목의 유훈에서 선조님 도학의 만 분의 일이라도 엿볼 수 있으며, 선조님의 유서에 남아 있는 손때가 아직까지도 새롭기만 하니, 아! 아쉽기만 하도다.

이 책을 출간하는 온갖 일은 선비들이 먼저 주장을 하였고, 우리 문중에서는 합심하여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니, 어찌 감히 그 뜻을 벗어난 것이 있었겠는가?

어떤 이가 말씀하기를 “금양군의 훌륭한 덕성과 위대한 업적이 담긴 유집 간행이 지나치게 늦었지 않았는가?”라는 이 말씀은 진실로 온당하지만, 이 유집을 정밀하게 간행하고 말쑥하게 편집하여 영원히 후세에 전수하려는 것이니, 이 또한 국제유집을 위한 성대하고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11세손 불초 만선萬善 삼가 기록하다

[原文]

嗚呼余讀先君錦陽君遺書不覺掩袂流涕也其綱領之大規模之遠若登泰山而莫攀其高臨河海而莫測其深是不肖不識輩之所固然然其曰勿作佛事勿作巫祀此君之正學也其曰凡奉尊長不敢驕易於鄉黨一切以齒長尊敬雖長一二年皆當遜讓不敢先雖微微之人讓路讓坐勿憚下坐爲可噫孔子曰居上不驕此君之至孝也抑君諱義其由於是歟抑君勲業德行其由於是歟以君達尊有此遜讓之訓在他人能足以感發其本然況其爲本裔者乎於此數款

可以窺其萬一而手澤尙新嗚呼惜哉凡刊刻一事士林先
倡之吾門合從之曷敢有越厥志或曰以錦陽君之崇德偉
勳其不幾太晚乎此言誠是而精以刊潔以編以永來世則
亦不爲盛德事乎是爲菊齋遺集云
十一世孫不肖萬善謹識

【제4장】

금양군 유서 遺書

친필 영인 일부



吳氏之先出於羅州後裔多居之而世代已遠子
 孫衰微未知始姓之祖為何代人鄉中舊
 老或傳始祖生於州之中興里登科仕新羅
 爲金傅王尉焉其後有進士吳叔瑾與正
 郎鄭隨及茅鄭松壽同爲中郎將鄭
 寶儒之婿松壽即高麗侍中鄭可臣之
 考叔瑾乃中郎將諱偃之先也云而可徵文
 籍代数名諱不得考焉意其不得考焉不
 可妄爲傳說矣而中郎將以下兩祖遺體實
 始安措衣此爲後裔子孫居此者其可不爲

之追遠而念之我中即將生禮賓正諱李真
 季真生工曹參議諱穎達穎達生府使慎
 交進士諱慎中慎儀三男焉慎交生敬祖敬
 親敬長同登庚辰武舉不仕進士慎中生
 羅城君諱自治參議功追贈考錦城
 君祖考則仍工曹參議次弟慎儀羅城君曾孫習
 讀命福居靈光而羅城君之後敬祖三兄弟之
 後多居三加里廣山村中即將禮賓正兩祖墓在
 廣山村南二三百步俗號瓦窰洞平地之原長
 松雜木數千餘條直幹森立皆可百許尺者

甬溪一洞行路望之蒼翠鬱然者即工曹
 參議祖為先祖先考兩墓而手植者後來子
 孫者弱不振為公私斫伐而有不能禁焉何
 限正德甲戌遭烈風迄今歲萬曆乙亥又值風
 復而多顛仆可勝嘆哉計其餘存僅有捌佰
 陸拾叁條參條如前時之斫伐不能禁絕子孫等列
 居旁近不為共力守護則不十年而無餘矣
 先祖參議之手植今幾二百年其長條高
 至百尺者森々可數而至於元禿無所餘則
 豈不為後孫居此者之責又可安於心而人

謂之何山也吳氏之門有人乎哉高孫謙謹亭子
 孫居此村者若干人躬親挾持奉審松林之秀
 拔表之者一考數錄之于冊而又與約束作約束
 冊而書之曰吳宗姓在此里者雖雲仍之遠皆是
 中即將禮賓正兩祖氏之後裔飲食居處
 于斯常目在之其可不為之思念乎况此松林
 皆工費恭議祖為先祖先考之墓手植者
 歲月已迫二百餘年之久為其後生子孫者宜
 但甘棠之敬慕乎歷至百世猶當勿剪勿
 拜者而或有無識之裔不思所本之源而惟利

是圖者斯皆先祖之所不容也先祖在天之
 靈必不保佑之矣况置位田與齒以付諸山直
 以垂諸永久為子孫者其可不思其所以然之
 故乎先儒有言曰不斬丘木以為宮室豈古
 之為墳墓培植松楸之意如此其可忽諸
 然子孫貧乏如不得備棺槨或窘急貸用入
 家之所有而不能償者或造家而必須用長
 木者他無可得之勢者則富與共守護子孫等
 通共會議可否只可許壹條而須要共監伐取
 亦不可容易許之而許取壹條者必種植猶然

毋使耕犁侵近舊墓之內必使松楸有增無減可
 矣或有不顧約束之意而擅自斫伐者子孫共守
 護之人同心同力相與排擯論以背本源忘弃祖
 先之惡而斥之必須連名僉署遣人呈單字于
 牧官或呈于監司道或呈于水使道期於推
 考治罪不可但已將此約束冊而告之則其必
 有於謹此志而均有為先人護墳墓之念孰
 不為之釐正其罪乎



一世代久遠後裔衰微始姓之祖不得詳知而
 中郎將與禮賓正兩祖墓始乃安措於

平地之原為吳門之始祖而金海府使與錦城君
 及貞夫人墓隨其後葬于此其餘後裔之居
 此里者亦葬其下皆以是兩祖墓為主而托焉
 今不盡錄其他分葬遠地者則不能一一可能守
 護亦緣人心漸惡不古難得禁樵牧者已矣不論
 而若此中即將禮賓正兩祖墓則近在望見之
 地皆有位爵禁制之墓况因已長之材亦守
 國法而禁止樵牧有何難焉後裔在此之人雖
 遠代不及奉祀事而皆以是兩祖蔭與承荷二
 三祖爵位而得為衣冠之後乃能得齒於兩班

之列而行於鄉閭者可不思其所以然者乎惟當共
 守護而不可忽也曾祖錦城君之山直爲壽之家
 適近平原之區正與相對咫尺之地訓道吳瀚亦爲
 其祖母墓定令玉同仍居其家遙與禁伐居止
 雖不切近然左右直守位田位畝半分并作同力直
 守而勅令常川檢舉看審照管如有折枝剝
 削之聲則必無不知輒卽來告共守護之家母曰
 不及聞知而忽之哉後有子孫中欲以奴隸使守
 直之人則亦依此例而爲之而山直者其所自培植
 之松雜木則各具其主家任自區處矣而至於泰

議祖主為先祖考手植之松與雜木則養成
 於人心醇厚畏法之時今迨二百年其成長也
 久遠特異於近年養成者表之可數同門子
 孫若不愛護而擅行下手伐之則而今決不復
 古昔之盛長而終為兀禿無餘矣如有不得
 已研伐之事則家門宗姓齊會同議以為可然
 後乃可以壹條許之不得過此壹條也所以議許
 者乃指貧乏同宗子孫不得備內棺者與
 壹條耳蓋與壹條則復可備內棺矣至如外
 槨則亦不可許之蓋外槨貧家不能備是

雖有棺而無柳亦可也外柳板必擇高大木而與之
 於墓木保護之情大有妨而人子之心必欲為之則外
 柳集眾板亦可合為柳雖不與之亦可矣柳板亦
 不許之其他亦有以此意為準而商議斟酌切可
 從易許之也

會議許之者令俟春社前擇取五六歲稚松直
 幹者數土掘取拾條種于墓道之下虛疎處
 以翌年成立生活為度其不如約者家門同議
 責行罰禮必以成立生活為之期限焉可也
 列錄先代及今同姓人居此里者以明系派又以

著世代所本以至于五代

五代以下婚娶定居則必錄之其未及者俟更進錄其次

中郎將諱偃

或云

葬于平地之原

資級不得考

。通政大夫禮賓寺正諱

季真葬先考墓

下

此兩祖平

地原始葬之墓

。工曹參議諱頴達葬北星山平地原松木

參議祖爲祖與者而予植云

。參議長子通政大夫金海府使慎文

葬祖墓下

。次子贈純忠補祚功臣嘉祐善大夫

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錦威君

慎中成均進士葬平地原

。府使長子敬祖次參親末子敬長

。錦城君子羅城君諱自治

、及弟敬祖長子成均生負衆衆子

石年石年子震男

。精忠出氣敵氣副臣資憲大夫

吏曹判書無知義禁府事羅

城君贈謚襄平公 長子

。贈宗政大夫議政府左贊成無判

義禁府事羅原君行通政大

夫富平都護府使韓世勲

、羅原君長子崇政大夫錦陽君

謙謙長子通訓大夫行臨

陂縣令彦厚次彦寬

、羅原君次子成均進士訥訥長

子彦龍次子彦虎

、羅原君末子通訓大夫行玉果

縣監諒諒長子彦麟次

彦彪次彦仁

、及弟敬親長子世嘉世豪奉

子永福永福子訓導子翰

及第敬親次子世俊世俊承命

永命子湜

永剛子 居光州

及第敬長子世麟世麟子季昌

次起昌次應昌

季昌子澄次沆次潔

起昌長子別監仁祐次仁億次

仁豪

羅城君次子樂梅將軍行忠佐衛副護

軍世翊子誠誠子敬老次敬福

及茅敬長次子世龜世龜子必昌

必昌子壽祥

忝議祖五代孫以上居此里者既已錄之于
右矣雖十世之遠同姓之人皆一
人之裔又當俟成長婚娶定居
此者追錄于下同心共護而不可
忽也法制有限力亦不及故雖不
得奉行祀事而至於護守祖先
丘墓松楸則皆有爵秩之墓自
可依守國法而護守不難而况

同居墓下村星元易為力矣庶生
 為良之人亦並錄之者安知後日不
 能守家業亦能保護丘墓者乎
 此語追惟 祖先無已之念也凡今
 同客約束之人相與勗之哉

萬曆乙亥八月日宗政大夫前議政府左贊成
 兼知 經筵事判義禁府事知
 春秋館事錦陽君八十歲人
 庚午秋甚老病退居是村艱難生存僅

得手書

一六代以下同姓之人勿拘次序惟

婚娶定居此里者追錄于此

震男子長淵次潛次泳次洵次

溉時居南村

吳潔子夢井夢參

吳澄子長夢奎次夢星次夢

得

吳洵子希復

時所錄止此

餘皆稚幼不錄異時亦書此下

又如木好木以木為木輻僅取形擇造作為之常看細中一件必福等入手內外
 箱之間可也常振夫入之美多顯焉故言之

勿作佛事

余非敢自擬於抑異端之人而為是言也嘗
 見新羅人鄭規臨卒戒子孫書曰堂楹之
 殊善惡之報果有主者必無私心矧予平日
 之所為不愧於彼豈此一將之追賄得行其間
 乎予甚服其理明而語切汝等見識雖未及
 此姑從斯言承予訓說可也

勿作巫祀

凡余祀之道在於潔淨精專而巫覡之徒

置祀於部架於此豈正鬼之所爲歟者乎况
 標爲悲聖貪且悲死之語以傳去靈之意標則
 未安。觀聽之類是爲授讀士夫之心以着居於
 先靈至矣。中等守子送願章勿令兒女輩爲
 此設也。

發引前了。南鄉之俗出柩于外必爲高穴。果房
 以奠神位前又多設餉客之具。以餉來客。謂之徹夜
 賓客。聚飲。主人子弟以饋之。相與恣飲。解群徒
 有年於外表。或有貧乏之人。因此不能措錢。乃還
 還。其期以送。其眷有未美者。大不可也。若鄉中遠

追錄

未得見久遠族而不識遠祖某曆乙亥始得見而追錄于此
萬曆六年四月乃始追錄焉

萬曆乙亥歲成此冊時進士吳淑珪之後
至中郎將吳偃其間年代則長遠而
祖先名諱無從可憑考常多愼然
者有之矣萬曆六年四月鄉人鄭夢席
自稱諸系之袖持久遠族譜以不子号
考之則吳淑珪與鄭可臣之考同為
鄭寶儒之婿諱鄭松壽而吳淑珪子
吳慶延子吳光佐名諱其次昭然可考
矣而中郎將偃禮賓正季真兩祖又聞

遺不錄其下以及茅武科吳慎交金海守
 云云噫世代久遠記其所聞而為譜諸門
 所錄互有詳畧而然耶然中即將偃祖以
 下則要門所詳知而無疑矣其上兩祖慶延
 光佐始得因是譜而知之深為韋喜而追
 錄于此萬曆六年四月十五日錦陽君謙書
 又以求禮守吳承達子慎交云其承字之誤明矣高
 祖諱穎達生子諱慎交慎中吾門所詳也

萬曆乙亥七月十二日夜大風祖先墳墓樹木多
 顛仆因是驚悚又聞居此子孫等多劣弱
 弛廢不為同心守護之計爰使芥斤日尋不絕
 故蒞與宗姓居此里人既為約束書之以誌
 一或曰祖先墳山盡使一人主之乎曰同姓子孫今
 皆至於玄孫而高孫謙亦八十歲豈得久乎
 況同姓之人皆一門子孫何有親疎若使親
 作主未必得人如後專恣研伐以益不親為
 高貨惟利是圖其如子及不如衆共守
 護之為得矣

一約東之辭雖因俗保之語老子孫不能皆
解文致欲其易以曉饒日心守約束永無
怠忽弛廢故反覆曉告而不以詞費為之
 範通身卷八

一平地之無畛穢祖為先祖先考所植松
等皆二百餘年歲長非可潛行竊取者
若有斫伐者則必皆聞之知之即富呈狀
治罪一依約束施行卷八

一如有不得已伐取亭則皆高大之木近
於先祖之墓必聲振一洞驚動幽明誠

為未安必須先行告祭于四祖之墓然後乃得伐取不行告祭而伐者論罰四祖謂中即將墓禮賓正墓金海府使墓錦城君墓也

一伐取壹條則必錄某年某月某日以某事某人處某之人等齊會僉議可否而許之云々詳錄于此冊之下以憑後考

知今在捌百陸拾叁條之數減與加

『국역 국재유집』 발간 후기

1. 『국재유집』의 내력

『국재유집』은 1913년 국재 금양군 9대손 석환碩煥께서 한말 유학자이며 방후손인 난와공難窩公 계수繼洙 님께 국재유집 편집을 의뢰하여, 한시와 유서 등 금양군 선조님이 작성한 친필 유고遺稿와 율곡 선생이 지은 금양군 묘지명, 외손인 영의정 김재로 님이 지은 시장諡狀, 종손從孫 도암公韜庵公 희길希吉 님이 작성한 유사遺事 등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목필본 『국재유집』을 만들었고,

1956년에 10대손 재두在斗 님이 발의하여 문중과 유림儒林 인사들이 유집발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한 결과, 1913년의 목필본 유집에 금양군 선조님의 관보官譜와 수집한 자료를 추가하여 1958년 4월에 최초의 인쇄본 『국재유집』을 발간하였다.

아! 국재 금양군 오겸 선조님께서 서거하신 지 376년이 지난 뒤에야 유집이 발간됐으니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고가 사라진 가운데에도 선조님의 친필 유서를 기본으로 하여 한 권의 유집을 엮을 수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2. 『국역 국재유집』 발간 제언 및 결정

1958년 발간한 『국재유집』은 앞 세대의 많은 노력의 산물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한문으로 쓰여 있어 일반인이 읽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쉬움이 남았다. 『국재유집』 발간 이후 60여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는 금양군 선조님 직계 후손들마저 이 유집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후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15년 10월 21일(음력 9. 9) 광산사廣山祠 제향 후 문중 회의에서 11대손 기선 씨가 일반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재유집 한글 번역 사업을 제안한 바 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4월 12일(음력 3. 16) 금양군 선조님 시제를 마친 후 문중회의에서 『국역 국재유집』 발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유집 발간 실무를 12대손인 대종회 종사연구위원장 종만(이하 필자)에게 위임하였다.

3. 국역 과정

『국재유집』의 번역자를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명곡유고明谷遺稿』를 번역하고 『도호집道湖集』 발간에 책임을 맡는 등 우리 오씨문중의 주요 문집 발간에 참여하였고, 한학자로 성균관 부관장成均館副館長이신 노강蘆江 박래호朴來鎬 님을 선정하였다.

2017년 4월 22일, 문장門丈인 기선, 문중 대표 동근과 필자 등이 방후손 낙균(명곡공 13대손) 씨의 안내를 받아 박래호 님에게 번역을 요청하였던바, 뜻밖에도 금양군 오검 선조님의 외후손임을 밝히며 정성을 다하여 번역하겠노라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2017년 8월 9일 번역이 완료됐고, 초고草稿 매수는 200자 원고지 191매이다. 이 과정에 낙균 씨가 번역된 초고를 박래호

님으로부터 수시로 넘겨 받아 필자에게 송고(送稿)하여 줌으로써 교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 번역 초고(草稿)의 교정 및 추록(追錄)

대중회 종사연구위원장인 필자와 총무부회장 형근(내금위공 후손), 홍보부장 종문(참판공 후손) 등 3인이 편집 및 교정 팀을 이루어 번역 초고에 대한 원문과의 정밀한 대조와 교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 과정에서 한시의 국역 부분은 시인(詩人)인 종문 씨의 시적 표현 윤문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유집 원고 전반에 걸쳐 주기(註記)에 수고가 많았다. 『국재유집』은 1958년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발견된 금양군 선조님의 시(詩), 금양군 선조님이 작성한 가승(家乘),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사적 등을 엄선하여 새로 작성한 『국역 국재유집』에 추가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 형근 씨가 사적(史蹟) 추록 부분을 전담함은 물론 선조님의 관보(官譜) 교정에 수고가 많았다.

5. 편집 체제의 재구성과 국역판 가책자 제작

『국재유집』은 한문 편집 체제인 “권지 2, 유서 상” 등으로 세로 쓰기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현대 서책의 체제에 따라 표기와 글의 내용별로 제목을 붙여 “제2장 유언, 제1절 유서 상, 1. 나주오씨 가문의 원조에 관한 유가, 2. 도선산 관리에 관한 유서, 3. 약식가승” 등 가로쓰기로 편집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사전에 어떠한 주제의 글이 쓰여 있는지 소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 찾아보기 쉽게 전반적으로 편집 체제를 재구성하

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역된 국재유집 원고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가책자 15부를 교정용으로 제작하여 한문 원문을 포함한 정식 책자인『국역 국재유집』의 편집 체제 및 내용 심사(검증) 등의 의견 수렴용으로 활용하였다.

6. 출판 의뢰

출판은 금양군종중의 고문이신 기선, 대표 동근, 임원 성수 씨와 필자 등 편집 및 교정팀이 협의하여 서울 소재 ‘도서출판 이미지북’에 의뢰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중 숙원사업인『국역 국재유집』 발간 과정을 개략적으로나마 기술한 것은 유집 발간 실무를 위임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먼 훗날 보다 현명하고 어진 후손들이 이『국역 국재유집』을 재 발간할 때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새로 발간된『국역 국재유집』이 후예들에게는 국재 금양군 선조님의 유훈을 가슴에 새겨 받들면서, 선조님의 훌륭한 인품과 업적을 본받고 기리는 지침서가 되고, 그 밖의 독자들에게는 공사생활에서 지덕을 닦는 타산지석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2월 10일

12세손 종만鍾滿 삼가 기록하다

『국역 국재유집』 발간 사업 추진 일정

추진일자	추진사항	비고
2015. 10. 25 (음력 9월 9일)	*광산사 제향을 마친 후 문중회의에서, 좌장인 기선 씨가 장차 『국재유집』 번역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여 이를 논의	
2017. 4. 12 (음력 3월 16일)	*금양군 오겸 선조님 시제를 마친 후 문중회의에서, 『국역 국재유집』 발간 사업 추진 결의 -발간 사업 실무는 금양군 12세손이며 대중회 종사연구위원장인 종만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참석자 : 기선, 무송, 종만, 화수, 성수, 윤근, 안모, 동근 등	
2017. 4. 22	*문중의 고문 기선, 대표 동근, 발간업무 담당 종만 등이 방후손 낙균의 안내로 한학자인 노강 박래호 님의 서재를 방문, 『국재유집』 한글 번역 의뢰 *금양군 선조님의 담양부사 시절 교유하며 시를 읊었던 송순의 면앙정(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소재)과 양산보의 소재원(담양군 남면 소재) 등을 답사	
2017. 6. 25	*번역된 원고(전체 50% 분량) 인수 및 나머지 번역 작업 격려차 기선, 종만, 한균, 성수, 동근, 낙균 등이 박래호 님을 방문	
2017. 8. 15	*방후손 낙균이 박래호 님으로부터 마지막 번역 원고를 인수하여 발간업무 담당 종만에게 송고 -번역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91매	
2017. 8. 21	*번역료 200만 원을 노강 선생께 송금	
2017. 9. 18	*문중 대표 동근, 임원 화수.성수 등이 풍영정(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소재)을 답사하여 금양군 선조님의 한시 편액 발견	
2017. 9. 20	*『국재유집』 원문을 포함한 『국역 국재유집』 정식 책자를 발간하기 전, 번역문만을 편집한 『국역 국재유집』 교정용 가본假本 15권 발행	
2017. 9. 24	*『국역 국재유집』 출판 인쇄업체 선정 등을 논의 -문중 대표 동근, 임원 성수 등이 상경하여 문중 고문 기선, 편집담당 종만 및 종문 등이 협의 -서울 소재 ‘도서출판 이미지북’ 에서 발간하기로 결정	

2017. 10. 28	*금양군 선조님의 영정을 모신 광산사 제향에 번역자 박래호 님이 참제 *대중회에서는 광섭 고문, 근성 회장, 정균 총무원장, 양근 서울본부장, 기주 부회장, 형근 총무부회장, 은열 부회장, 광고 부회장, 찬균 부회장, 현교 부회장, 낙균 부회장, 승기 감사, 종문 홍보부장 등이 대거 참제하여 유림에서 주관한 제향을 성황리에 마친 후, *문중 대표 동근이 『국역 국재유집』 발간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대중회의의 협력을 요청 *오근성 대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업 추진 축하와 협력을 화답	
2017. 11. 24	*『국역 국재유집』에 게재할 유적지 및 정자의 촬영을 위해 기선, 종만, 성수, 동근, 종문 씨 등이 현지 답사 *광산사와 묘소, 호가정과 풍영정(광산구 소재), 관수정(장성군 소재), 면양정과 소재원(담양군 소재) 등	
2017. 12. 20	*축간사 필자 선정 및 청탁 의뢰-강운태(전 광주광역시시장), 오근성(나주 오씨대중회 회장) *노강 박래호 님께 번역을 마치면서 원고 청탁 의뢰 *참석자 오기선, 오종만, 오양근, 오형근, 오종문	
2018. 1. 11	*문중에서 고문 기선, 대표 동근, 임원 성수, 유집 발간 담당 종만 등 4인과 대중회에서 회장 근성, 서울본부장 양근, 총무부회장 형근, 홍보부장 종문 등 4인, 총 8인이 서울 대중회사무실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 1. 출판사에서 편집한 가책자에 의거 유집 체제 및 내용 심사 2. 책 표지 색상 및 지질과 제본 검토 3. 화보에 게재할 사진자료 결정 4. 발간부수를 1,000부로 결정 5. 발간일자 ; 2018. 3. 25일(대중회 총회) 이전 발행으로 잠정 결정 6. 새로 발간할 유집 책자 제목 논의 : 『국역 국재유집』으로 최종 확정 7. 발간사업위원회 임원 명단 검토	
2017. 6. 25~ 2018. 2. 28	*도서출판 이미지북으로부터 편집 조판한 원고를 수시로 넘겨받아 종사연구위원장 종만, 총무부회장 형근, 홍보부장 종문 등 3인이 1주일 간격으로 회합해 원고 교정 완료	
2018. 2. 28	『국역 국재유집』 표지, 화보, 본문 최종 확인	
2018. 3. 25	『국역 국재유집』 1,000부 발행 (46배판 양장본, 본문 컬러/흑백, 총236쪽)	

1958년 『국재유집』 임원록任員錄

도유사都有司 : 기세철奇世哲

부유사副有司 : 정운영鄭雲英, 이호정李浩呈

총무總務 : 오재두吳在斗, 오재술吳在述

교정校正 : 김재석金載石, 송광세宋光世

장재掌財 : 오동섭吳東燮, 오만선吳萬善

감동監董 : 오영선吳永善, 오희수吳希洙

감인監印 : 오쌍근吳雙根

간사幹事 : 오종수吳鍾洙 오응수吳應洙

단기檀紀 4291년 4월

인쇄소 : 전남 광주시 양동 신29반班 양지철梁志哲

2018년 『국역 국재유집』 발간위원회 임원 명단

고문 : 오기선吳起善, 오무송吳茂松, 오동련吳東鍊

대표위원 : 오동근吳東根

위원 : 오삼선吳三善, 오화수吳和洙, 오한균吳漢均

오성수吳聖洙, 오종수吳鍾洙, 오현수吳鉉洙

오이수吳二洙, 오윤근吳潤根, 오희근吳憲根

오안모吳安模

편집·교정 : 오종만吳鍾滿, 오형근吳榮根, 오종문吳鍾文

국역 국재유집 國譯 菊齋遺集

© 나주오씨금양군종중, 2018.

1판 1쇄 인쇄 | 2018년 03월 15일

1판 1쇄 발행 | 2018년 03월 25일

著 者 | 국재菊齋 오겸吳謙

譯 者 | 박래호朴來鎬

編 著 者 | 나주오씨 금양군종중 羅州吳氏錦陽君宗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77(광산사)

대표전화 | 062-943-7305, 010-5544-7036

010-3605-5330

편집 및 제작 | 이미지북

출판등록 | 제324-2016-000030호(1999. 4. 10)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2가길 6, 202호

대표전화 | 02-483-7025, 팩시밀리 : 02-483-3213

e-mail | ibook99@naver.com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나주오씨금양군
종중 羅州吳氏錦
陽君宗中